

석사학위논문

테러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청사 내 선제적
예방기법 및 대테러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eemptive Prevention Techniques and
Counter-terrorism Measures in Government Complex According
to Changes in Terrorist Environment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대테러안보전공

김 영 훈

2020

테러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청사 내 선제적 예방기법 및 대테러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eemptive Prevention Techniques and
Counter-Terrorism Measures in Government Complex According
to Changes in Terrorist Environment

지도교수 박 정 원

이 논문을 법학석사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대테러안보 전공

김 영 훈

2020

김영훈의

법학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2021년 1월

심사위원장 김진형 (인)

심사위원 임선기 (인)

심사위원 박정원 (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초국가적인 테러, 안보 위협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정부청사로 한정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의 랜드연구소에 의해 뉴테러리즘이라는 용어가 생기며, 9·11 테러 이후 바뀌어 버린 패러다임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중요시설의 테러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찾고자 한다. 해마다 변해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중동지역의 이슬람 계열 테러 단체에 기인한 테러는 전무한 상황이지만, 테러자금을 조달하는 조직원이나, 외국인테러전투원이 국내에 은신하여 활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인종우월주의, 조현병, 사회불만자, 인셀(성별에 대한 혐오자) 들의 외로운 늑대형 테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청사 시설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제 테러리즘은 오늘날 어느 한 국가 또는 한 사회 견디어 내기 어려운 세계적인 안전 보장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테러리즘의 세계관, 이념과 테러의 수단, 방식도 끝없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테러의 대상 역시 최근에는 개인, 사회의 범위를 넘어 국가 간 다툼이나 대립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테러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대응방안 수립 등의 활동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불가측성, 다양화라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명 전 세계는 테러의 예측이 어려운 전선 없는 전쟁이 계속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런 위협적인 정세를 반영하여 정부청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상황을 현실적인 분석기법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테러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강력대응 하는 방안의 검토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사 내 테러대응 인식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뉴테러리즘, 국제정세, 테러수단, 심리적 요인, 법령정비, 대응 전담 인력

목 차

국문 초록	i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테러환경의 변화와 대응	5
제1절 뉴테러리즘의 이론적 배경	5
1. 뉴테러리즘의 개념 정의	5
2. 뉴테러리즘의 발생원인	7
3. 선행 연구	9
제2절 뉴테러리즘의 환경 변화	10
1. 주체와 환경 변화의 특징	10
2. 4차 산업 혁명과 환경적 변화	16
3. 뉴테러리즘의 심리학적 접근	20
제3절 주요국가의 테러정세	26
1. 해외 정세	26
2. 국내 정세	43
제4절 뉴테러리즘의 수단 및 유형 분석	45
1. 폭발물 테러	45

2. 총기 테러	53
3. 차량 테러	56
4. 드론 테러	60
5. 사이버 테러	63

제 3 장 외국의 대테러기관 법제도 67

제1절 미국	67
1. 대테러기관	67
2. 대테러 관련 법제도	68
제2절 영국	70
1. 대테러기관	70
2. 대테러 관련 법제도	71
제3절 독일	72
1. 대테러기관	72
2. 대테러 관련 법제도	73

제 4 장 선제적 예방 기법 및 대응 방향 75

제1절 테러범죄의 특수성과 선제적 대응 방안의 필요성 ...	75
1. 테러방지의 법적 근거	75
2. 기본적인 대응 방향	76

제2절 선제적 예방 기법	77
1. 구조화 분석 기법	77
2. 행동탐지 기법	80
제3절 정부청사 대테러 강화 방안	83
1. 관련 법령의 정비	83
2. 테러대응 초동 조치 인력	86
3. 폭발물대응 전문 인력	87
제 5 장 결 론	91
참고 문헌	94
Abstract	98

표 차례

< 표 - 1 > 주요 국가 정부청사 테러 사례	3
< 표 - 2 > 주요 선진국에서 법적으로 정의된 테러 개념	7
< 표 - 3 > 국내 사회 불만세력에 의한 자생테러 가능성 증가	15
< 표 - 4 > 최근 프랑스 국내 주요 테러 발생 사례	42
< 표 - 5 > 국내 주요 폭발물 사건사고 및 사용폭발물, 원료물질	50
< 표 - 6 > 주요 차량돌진 테러사건	58
< 표 - 7 > 국외 대테러 제도의 비교	75
< 표 - 8 > 청사 내 발생 가능한 테러 상황 가설	78
< 표 - 9 > 청사 내 테러 중 주목할 만한 시나리오	79
< 표 - 10 > 거동수상자 관찰 기준표	82
< 그림 - 1 > 차량 폭탄 탑재 시 폭발 피해 기준	57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020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테러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ISIS 수장 ‘알 바그다디’가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사망하면서 미국과 우방국에 대한 보복테러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공격과 같이 과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테러도 현실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던 외국인이 약칭 ‘테러자금금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 알카에다의 전술 교관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국내 잠입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변하는 국제관계와 다양한 형태의 사회 갈등을 고려할 때 우리도 테러리스트의 유입이나 자생테러의 가능성으로부터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한국사회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외국 국적의 근로자나 난민신청자, 결혼이민자 등의 외국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전국의 외국인 등록 수는 117만 명을 넘어 서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사회의 부적응으로 인한 정부나 사회에 불만이 폭력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예상이 있을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가위상 제고에 따른 과병 등으로 글로벌 테러조직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테러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으려고 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대응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왔다. 자국이나 타국에서 발생한 테러의 배후나 단체를 찾고,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며 그에 따른 대응과 후속 조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각국에서 발생하는 테러사건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한국의 글로벌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의 증대와 국내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위협의 조건이 무엇인지 찾아 내에 테러 예방에 빈틈없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¹⁾.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은 본 연구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테러라는 것은 일단 발생하면 사회에 막대한 피해와 불안을 일으키는 만큼 무엇

1) 정현수, “테러발생에 미치는 주요원인 분석”,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3, p. 1.

보다 빈틈없는 예방·대비·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각 시설이나 현장에서의 초동조치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테러가 일어나게 되는 기본적인 환경에서부터, 그들이 사용하게 되는 수많은 테러 수단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심리적인 부분을 연구하여 정부청사 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과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다. 해외 주요국가의 테러대응체계를 분석하여 정부청사 안전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자 했으며, 민간 부문이나 정부청사 시설 이외의 기관 시설에서도 적용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적용하였다.

우리나라 국가중요시설의 경우 통합적으로 테러에 대한 절차와 예방·대응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이 미흡하거나 없는 것이 사실이며, 테러방지법에서 국가중요시설을 테러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국가중요시설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테러예방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테러대응 장비나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기준 또한 부재하기 때문에 국가중요시설의 환경적, 지리적 특성에 따른 교육과 예방·대응 시스템의 수준과 새로운 위협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여건이 존재한다.

국가중요시설마다 각각의 조직구성이 다르며, 일부는 내·외곽의 상황실과 지휘·통제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내에서 상황접수, 전파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상황실 간 연락망은 구성되어 있으나, 각각의 인력운용 및 CCTV와 같은 감시 장비를 통해 실제 사건의 접수-판단-전파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문제와 효과적인 임무분담, 대응, 지휘·통제 문제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²⁾ 이러한 지휘·통제 체계의 혼란은 사건 초기에 가장 중요한 초동조치와 피해확산 방지 및 고착, 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대응주체의 개별법에 따른 중복된 임무수행으로 인해 책임전가와 관전자적 입장을 고수하게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뉴테러리즘의 결과들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테러에 예방·대응하기 위해 국가중요시설의 조직을 재편하고, 대테러 장비의 도입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양성해야 하지만, 실제 적용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은 전무하다. 기존의

2) 홍태현,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위협 대응방안 연구”, 용인대 석사학위논문, 2019, p. 13.

체계에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직의 재편이 상당히 어렵고,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한다 해도, 해당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중요시설 방호 관리자의 경우 이를 대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³⁾ 새로운 테러위협이 나타날 때마다 조직을 개편할 수는 없겠지만, 테러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의 설치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오히려 조직을 개편이나 확장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런 위협적인 현실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청사 시설을 통해 적용하여 현실적이고, 매우 적합한 대응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고, 정부청사 시설의 안전과 방호에 기여하며, 나아가 국가 안보와 테러대응 체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테러리즘과 관련된 기존의 수많은 연구들은 지나치게 기술적 이거나 단순히 법제를 소개하는, 개별 기관의 관점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에 국한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테러리즘의 환경에서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테러 대응 방안을 제시 하지는 못한 것이다.⁴⁾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정부청사 시설에 한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러수단들을 각 국의 정부청사 테러 사례와 현재 국제 정세나 테러 동향 등에 기인한 각각을 사례들을 살펴보고 선제적인 대테러 방안과 예방 기법들에 접근하였다.

< 표 - 1 > 주요 국가 정부청사 테러 사례

지 역	일 시	수 단
영국 런던 정부청사	2017, 4	흉 기
터키 남부 정부청사	2016, 11	차량 폭탄
시리아 정부청사	2012, 3	차량 폭탄

3) 박준석, “국내 국가중요시설 드론, 무인항공기 테러공격 대응방안”, 용인대 2019, 181p.

4) 오세환, “사제폭발물 테러 사례분석을 통한 대테러대책 효율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2013, 3p.

노르웨이 정부청사	2011, 7	차량폭탄, 총기
네팔 정부청사	2011, 2	사제폭발물
이라크 정부청사	2009, 12	차량 폭탄
체첸공화국 정부청사	2002, 12	차량 폭탄
미국 오클라호마 정부청사	1995, 4	차량 폭탄

이번 연구에서는 이론적 주장을 위해 문헌적 연구방법과 해외 주요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의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학술지 및 학위 논문, 뉴스 및 단행본과 인터넷 검색을 통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각 국가별 사례에 대한 특성 등을 살펴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 하였다.

총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 1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그리고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고, 제 2장에서는 뉴테러리즘의 이론적인 배경과 발생 원인에 관한 이론 그리고 선행되어진 연구를 살펴보았다. 또한 테러리즘의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주체가 변화되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였고, 뉴테러리즘의 심리학적인 접근까지 추가하여 분석해 보았으며,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와 미주, 유럽 등 해외 주요 지역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세와 그에 기인한 국내 상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뉴테러리즘의 주요 수단이 되는 폭발물, 총기, 차량, 드론, 사이버 공격 등을 각각 구분하여 기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제 3장에서는 이러한 테러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법 제도를 살펴보았고,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 4장과 5장에서는 정부청사 시설에서 테러대응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을 위한 분석기법과 관찰 기법을 살펴보고, 테러대응 전담인력을 편성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의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문헌과 선행 연구 논문, 해외 싱크탱크 자료집 등을 수집하여 연구 했고, 테러 정보의 특성상 일반 공개가 제한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로 국가기관의 정세 평가 및 매스컴 자료를 인용하였다.

제 2 장 테러환경의 변화와 대응

제1절 뉴테러리즘의 이론적 배경

1. 뉴테러리즘의 개념 정의

우리나라는 테러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내의 테러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의 테러위협, 국제적인 지위와 경제규모, 그리고 다문화 사회가 형성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테러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테러와 관련된 제도는 개인의 법적 침해를 초과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테러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준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바로 테러에 대한 개념정의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테러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 본질적으로 ‘공포’라는 기본적인 심리적 속성을 함의한다. 그리고 테러는 개인, 집단, 조직 혹은 국가 수준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의 내재된 공포를 이끌어 내도록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수단 혹은 활동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러한 테러에서 변형된 뉴테러리즘은 (New Terrorism) 1999년 미국의 ‘민간연구소 RAND⁵⁾’의 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브루스 호프만(Bruce Hoffman)이 과거의 전통적 의미의 테러리즘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를 ‘뉴 테러리즘’이라고 처음 명명하면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테러에 대한 개념은 용어로서 정밀성이 없고 구체성도 없기에 법률적 용어로 부적절성과 막연한 상황을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법률적·사실적 단일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라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의적인 해석이나 남용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개념 확정이 필요한 것은 맞다. 따라서 이와 같은 테러 개념은 테러대응체계가 마련된 국가에서 개념 정의를 위한 노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에서 법으로 정의된 테러개념의 특징은 < 표-2 >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방산재벌 맥도넬 더글러스의 전신 더글러스 항공이 1948년에 설립했다.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다. 2008년 예산이 2억3천만 달러에 이르며, 16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대규모 싱크탱크다.

특히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의 경우 테러의 개념을 정의하는 범위는 테러주체의 국적, 인종, 종교,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지만 정치, 사회, 종교와 같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무고한 시민 등을 공격하는 등 구체적인 설명이 누락되었다. 따라서 국내 ‘테러방지법’에 정의된 개념과 범위를 접근할 때 다양한 국가에서 법적으로 개념이 정의된 테러를 고찰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 표 - 2 > 주요 선진국에서 법적으로 정의된 테러리즘의 개념

구 분	내 용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정부조직법상 『국토안보법』 테러는 ‘불법성, 항공기나 선박 내 인명, 재산, 단체에 대한 대량파괴, 치해, 기타 손실을 초래하는 수단의 사용 혹은 시도’ 등 3가지 요건을 갖춘 행위 - 미국중앙정보국(CIA)는 ‘확립된 정치권력 혹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협박 혹은 폭력행위’ 등으로 규정 (박재풍, 2016)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테러리즘 법』에는 ‘정치, 종교, 이념적 목적을 불법적으로 달성 하고자, 신체에 대한 심각한 폭력행사, 재산상 중대한 피해 유발,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또는 안전에 심각한 해를 가하는 행위, 전자 장치를 불법적으로 차단하고, 심각하게 훼손하여 정부에 영향을 주거나 대중에게 공포를 확산시키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음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형법』 제129 조에는 ‘어떤 집단이 직접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사회 일반에게 공포를 확산시켜 체제 전복 혹은 중대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심각한 폭력행위를 사용하고, 위협하는 행위’ 로 정의하고 있음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형법전』에서는 국민과 국가 공공평화에 대한 중죄 혹은 경죄 등을 전제로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접근하여 일정한 테러행위를 포섭하고 있음 - 특히 『형법전』 제421-1조에는 개인 또는 집단이 의도적으로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목적으로 위협이나 공포를 통한 행위로 규정

※ 출처 : 경찰청 대테러 연구 제 42호 12p

그럼 여기서 테러의 일반적인 의미나 요소를 살펴보자면, 테러라는 말의 어원은 ‘공포를 일으키다.’ 라는 의미의 라틴어 ‘Terrere’ 에서 나온 것이다. 테러라는 단어와 그 파생어들은 아주 다양한 문장들에서 사용되어 왔는데, 예를 들면 아주 포악한 폭군에 대한 별명에서부터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폭력, 오늘날 국제테러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폭력사태 등이 있다(권정훈, 2009). 그러나 1, 2차 세계대전은 테러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테러에 있어서 물리적인 충돌 또는 폭력 그 자체는 핵심이 아니며, 폭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테러리스트들의 의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범죄행위에는 일반적으로 동기가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테러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인 대테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며, 효과적인 대테러 방어책만이 테러에 대한 일반대중의 공포와 근심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테러의 본질을 따져 보자면, 핵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물리적인 충돌 세 가지는 재래식 전쟁, 게릴라 전쟁, 국제테러로 볼 수 있다. 앞의 두 가지 예는 일반적으로 비전투원과 전투원이 구별되어, 비전투원이 희생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살육의 주 초점은 상대편 전투원이므로, 이것은 일종의 고립된 또는 특별한 무력 충돌인 것이다. 그러나 국제테러의 본질은 비전투원에 대한 착취, 예를 들면 고통과 죽음 등 인 것이다. 국제테러의 숨겨진 본질은 정치단체들이 비록 실질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테러범 또는 단체를 이용해 왔다는 의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2. 뉴테러리즘의 발생원인

가. 박탈감 이론

박탈감 이론(Ted R. Gurr, 1970:)은 좌절과 공격이론으로도 불리는데 인간의 기대와 실제 간의 괴리 또는 가치와 가치 능력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 박탈감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집단적일 수도 있다. 박탈감의 유형으로는 점감적 박탈감, 열망적 박탈감, 점진적 박탈감이 있다. 박탈감 이론은 제3세계 문제에 대한 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이 정당하다는 논리로 이용되었고,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테러리즘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무엇보다도 남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테러리즘이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는 시각이 강화된 것이 테러리즘 발생의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최진태,2006)

점감적 박탈감은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음에도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국가의 대처능력이 퇴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박탈감이다. 과거에 누렸던 영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고 혜택이 줄어들어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경우이다. 금융위기 등의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박탈감이다.

열망적 박탈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들의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는 데 반해 이러한 기대치를 모두에게 만족시켜 줄 수 없을 때 발생한다. 흔히 식민지 지배에

서 막 독립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점진적 박탈감은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박탈감으로 기존에 점진적으로 삶이 개선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개선이 불가능할 때 발생하는 박탈감이다.⁶⁾

나. 국제정치구조 이론

국제정치구조 이론은 주권을 가진 개별국가가 힘을 배경으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익 충돌로 테러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국가 간의 이익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유발하고 이러한 전쟁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2차 세계대전 후 핵무기의 발명과 함께 국가 간 군사대결은 매우 하기 어려운 결정이 되었고, 그 대안으로 테러가 등장하였다. 한편 강대국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약소국가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국제적 정치 문제의 해결이 진행될 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테러이기도 하다. 냉전체제에 녹고, 열려있던 민족주의가 등장함에 따라 종족 간의 갈등도 테러를 야기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서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분쟁으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수니파, 시아파의 분쟁, 예멘 내전, 영국과 아일랜드 분쟁 등이 있다.

다. 현대사회구조 이론

수단으로서 선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테러리즘에 도구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환경적 배경은 인류가 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현대의 생태학적 환경에 있다고 하겠다. 현대적 환경이 테러수단 사용을 쉽고, 용이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테러리즘의 발생을 촉진하는 현대사회의 환경은 첫째, 고도의 도시집중화 현상, 둘째, 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도화된 교통체계의 존재와 대중전달 매체의 발달, 셋째,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기체계의 고도화, 넷째가 발생한 테러리즘에 대한 주권국가 차원의 묵인현상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고도로 집중화된 현대 사회의 도시는 테러리스트에게 무제한적으로 공격표적을 제공해주고, 공격 후 용이하게 은신할 수 있게 해주며, 자행한 테러리즘 행위 원인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대중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의 활동무대가 되고 있다.

6) 최진태 지음,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대영문화사, 2006, p. 55.

즉, 고도의 밀집된 현대의 생활양식은 목적의식을 가진 테러리스트에게 심리적 효과와 상대방을 억압할 수 있는 최적의 공격표적을 도시에 집중시켜 놓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TV, 신문 등 대중 매체의 발달은 발생한 테러리즘 행위가 테러리스트가 의도한대로 일반 대중에게 실시간에 신속하고 정확하며 생생하게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무런 공간적, 시간적 제약 없이 테러조직이 의도한 목적의 전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무기체계의 정밀화는 테러리스트에게 테러리즘 행위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켜주고 있다. 테러목표에 대한 접근, 시행, 탈출과정에 있어 테러리스트에게 생존 가능성을 높여 주었으며, 파괴력의 향상은 테러리즘을 더욱 합리적인 도구로서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속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⁷⁾

3. 선행 연구

테러는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안보와 관련한 사항 중 하나로 테러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는 그에 대한 주요인은 무엇인지 등은 테러관련 연구의 주요 연구과제 중 하나였다. 이런 테러 발생의 주요 요인 혹은 영향 요소를 분석하여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대비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⁸⁾ 그에 따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상구(2010)는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을 사회·심리이론, 폭력이론, 국제정치구조이론 및 현대사회구조이론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사회·심리 이론에서 거(Ted R. Gurr)의 상대적 박탈감 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을 바탕으로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에서 야기되는 문제가 상대적 박탈감이라 했으며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조건들과 실제로 그들이 향유하는 현실적 조건간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사회·심리적 긴장을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의 하나로 보았다. 여기서, 거(Ted R. Gurr)의 상대적 박탈감이론은 사회적 욕구 형성도가 사회적 욕구 불만족을 훨씬 초과할 경우 사회·심리적으로 좌절감이 형성되고 이것은 곧, 폭력적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테러리즘이 탈 식민지화 과정에서 폭력행사의 연장선상에 기인된다고 하였다.

또한, 최진태(2010)는 한국이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는 테러잠재국가라고 하여 국외적 위협요소와 국내적 위협요소로 나누어 상세한 연구를 하였다. 글로

7) '현대사회구조 이론' <http://m.blog.naver.com/ksm9286/110119535144>, (검색일 2020,12,28)

8) 정현수, "테러발생에 미치는 주요원인 분석",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3, p. 7.

별 위협요소로 출국자의 증가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졌고 중동지역에서는 외국인인 테러의 가장 흔한 공격대상이라는 점에서 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군의 해외파견으로 국제 테러단체로 부터 테러대상국가로의 등극이다. 한국이 미국주도의 테러정책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어 특히, 중동 국가에서는 비록 한국군의 파병은 평화를 위한 재건지원이 목적이지만 미국과 같은 적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국내 위협요소로는 북한에 의한 테러의 잠재성이 계속 남아 있고, 외국인 체류자 및 북한 이탈주민의 증가가 테러의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라 하였다. 2004년 3월 스페인 열차테러와 2005년 7월 런던 지하철 테러의 공통점은 모두 자생테러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북한 이탈주민 그리고 그들의 2세가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만이 폭력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스페인과 영국의 사례처럼 테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국내, 외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의 안보환경변화를 직시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절 뉴테러리즘의 환경 변화

1. 주체와 환경 변화의 특징

주체 변화의 특징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현재의 테러리스트들은 어떤 환경적 변화를 기반으로 테러행위를 일삼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테러 단체의 개입 없이 자생적으로 급진화 된 개인들의 ‘로우테크(low-tech)’ 테러가 핵심 위협요인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ISIS·알카에다 등 테러 단체들의 세력 약화로 서방권 대상의 대규모 공격이 어려워지자 ‘외로운 늑대’ 형 테러를 선동하고 있으며 공격 양상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흉기나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모하였다. 이런 테러범들이 급진화 되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보안당국의 위협인물 지정이나 모니터링 등 테러 예방, 차단활동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⁹⁾ 프랑스 파리의 역사교사 참수 테러범의 경우에도 급진화 징후를 보인 것이 불과 사건 발생 6개월 전으로 확인 되었고, 같은 해 프랑스에서 발생한 6건의 테러사건 중

9) 국제급진화연구센터(ISCR)는 ISIS 등장 이후 인터넷 선전활동 영향으로 급진화 기간이 2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8.20). 『테러정보통합센터』, 2020.

5건의 용의자들이 당국의 위험인물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SNS가 ‘급진화→돌발적 테러’로 이어지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는데 최근 테러범들은 테러단체의 지시나 조언 없이 스스로 유튜브나 텔레그램으로 공유되는 영상물 등으로 학습하여 테러에 나서고 있으며 테러의 타깃이 될 인물의 신상정보를 SNS를 통해 손쉽게 검색하거나 획득할 수 있다는 점도 테러의 실행을 용이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대처방안을 적용해야 함이 분명해진 것이다.

어떠한 정치적 목적의 테러는 일반적으로 위협의 형태를 띠며, 이런 현대의 수많은 테러 행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통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게 된다

첫 번째, 압박수단으로 폭력사용 (The use of violence to persuade)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로 삼은 상대방을 회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폭발물이나 물리적인 공격을 가한다. 상대방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이러한 방법은 정부나 정부단체를 대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계획을 중단 또는 철회를 강요하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사용된다.

두 번째, 선전효과가 최대인 희생목표 선정(Selection of targets and victims for maximum propaganda)이다. 언론매체의 관심을 가능한 최대로 끌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희생목표를 선정하는 것으로, 1972년 독일 뮌헨 올림픽 기간 동안 발생하였던, 이스라엘 대표선수 인질사건(검은9월단)이나 1985년 크리스마스 휴가기간 동안 로마와 베트남 공항에서 일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였던 기관총 난사 사건 등은 좋은 사례가 된다.

세 번째, 이유 없는 공격(The use of unprovoked attacks)이다.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만의 복잡한 합리적 이유에 의해서 테러행위를 감행하기 때문에 모든 테러리스트들의 공격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네 번째, 최소의 위험부담으로 최대의 선전효과 지향(Maximum publicity at minimum risk)이다. 특히 폭발물 테러인 경우가 그러한데, 이것은 대부분 테러행위들의 기본원칙이다. 폭발물테러의 경우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선전효과가 엄청나다. 시한장치의 경우 몇 시간 전에 설치하여 폭발물이 발견되거나 폭발되는 시간 전까지 테러범은 이미 멀리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테러범들의 위험부담을 최대한 줄여준다. 테러범들이 선호하는 납치 또는 공격, 암살 등 범죄 역시 위험에 빠질 가

능성이 많아진다. 테러범들의 범죄행위 유형에는 주기적인 형태가 있는데, 만약 일련의 납치행위가 있어 신문이나 방송 뉴스를 이전의 사건들처럼 크게 장식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경우 같은 기간 동안 폭탄테러가 빈번하지 않았다면 폭탄테러는 또 다른 납치행위보다는 더욱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하기에 최대의 선전 효과를 지양하기 위해 그들의 전술을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목적을 가지고 테러를 감행하는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테러범들의 특징 (Characterist of Terrorists)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 번째, 테러조직들의 권력 체계도는 지도자가 명령체계상 맨 위에 위치하는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테러조직의 체계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으로는 원형, 직사각형, 과녁형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핵심지도부는 기간 행동요원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은 광범위한 적극적 활동지원그룹이 있으며, 그 주변에는 더욱더 광범위한 수동적 지원그룹이 위치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폭력사용 효과의 최대화를 위해 정치 또는 경제적인 선전이용 (Prooagsnda is used maximize the effect of violence)이다. 어떠한 선전효과도 얻지 못하는 테러행위는 테러리스트들의 목적상 기중이 무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972년 “검은 9월”은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독일 뮌헨 올림픽을 이용하여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자 했던 것이다. 정치적인 견지에서 검은 구월단은 자신들의 조직이 강력하고 사람들이 항상 염두해 두고 두려워 해에 할 힘과 영향력을 가진 단체임을 과시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른 테러단체들을 지원해왔던 온건한 아랍 각국정부들에 자신들의 조직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자체조직 및 유사조직에 대한 충성(Loyalty only to themse or kindred groups)이다. 대부분의 테러범들의 공통요소는 어떠한 나라에도 충성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조직 및 유사조직에 대해 충성한다는 것이다. 만약 예외가 있다면 아마 그런 조직들은 아르메니아인, 크로아티아인, 쿠르드, 타밀인, 바스크인 등 가운데 존재하는 몇몇 인종 또는 민족주의 단체들일 것이다. 이러한 조직의 경우 조직원들의 맹목적 충성심은 너무나 강해, 조직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 가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조직의 제 2, 3세대 조직원들은 조직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을 잃고 그들 자

신이 개인적으로 성취하고자 추구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테러행위 그 자체를 인생의 목적이며 기쁨으로 여기면서 테러행위에 가담하고, 허무주의로 변하며 그들 자신들에 대한 재정적인 보상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위한 종교적, 철학적, 또는 정치적 토대를 명확하게 신봉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근접하려는 방법들이 테러리스트들의 전술이었다. 이런 전술들은 정치 무대에서 자신들의 조직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공포와 위협으로 가능한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기도 했고 아직도 여러 곳, 여러 단체에서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의 테러 주체들이 점차 변모하고 있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Foreign Affairs』 보고서¹⁰⁾에 따르면, “진정한 테러위협은 더 이상 지하드 조직과 같은 테러 단체가 아니며,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이념에 급진화되고, 총기 접근이 쉬워진 개인으로부터 시작 된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제 ISIS·알카에다는 미국에서 작전 능력이 부족하며, ‘10.5 탈레반의 뉴욕 폭탄테러 미수사건’이 테러조직 차원의 마지막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9·11 이후 테러 사망자 104명의 3/4과 치명적인 테러공격 13건 중 8건이 ISIS의 온라인 선동 전 이후 추종자들의 공격에 의해 발생했고¹¹⁾, 대부분의 테러가 지하드 사상에 심취한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의 소행인 만큼 테러범의 입국을 우려한 여행금지조치는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내 테러주체가 테러조직에서 자생극단주의자로 옮겨가고 있는 점과 총기 제한, 온라인 규제 등 실질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와 사회 불안을 틈타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서는 ISIS, 알카에다가 지속적으로 공세 강화를 펼치고 SNS상의 포섭 활동을 통해 불안 정세를 지속화 하고 있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 바 있다.

여기서 경쟁적으로 테러를 일으키는 두 조직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자면, 이 두

10) 국제정치·경제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도 날카로운 분석을 가한 수준 높은 잡지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다. 집필진도 국내외의 저명한 기고가들이며, 충실한 편집으로도 유명하다.

11) ‘16.6 ISIS 동조자 “오마르 마틴”의 『올랜드클럽 총격』(49명 사망)은 9·11 이후 최악의 테러.
<https://news.ajoins.com/article/20160471> (검색일 2020,10,10)

조직(ISIS, 알 카에다)은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기초한 신성국가 건설이라는 이념은 동일하다. 하지만 이 두 조직은 테러 전략이나 전술, 조직 운영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알 카에다는 조직원이나 자금의 모집 등 운영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이슬람 세계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 무슬림을 겨냥한 테러는 비교적 자제하는 편이지만, ISIS는 조직원이나 자금 모집에 SNS를 주로 사용하며 같은 민족(아랍), 종파(수니)라도 배교자를 살해 하는 등 ‘알 카에다’보다 극단, 과격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공격 성향을 보이는 ‘ISIS’는 ‘19.10.26 수장 ‘알 바그다디‘ 사망 직후 새 수장으로 ‘알 쿠라이시¹²⁾’ 라는 인물을 선출하여 ‘ISIS’를 ‘준 국가조직’에서 ‘비밀 테러단체’로 변모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ISIS의 집행부격인 대표위원회 산하의 중앙부서를 14개에서 5개(군사, 재정, 선전 등)로 축소하며 조직의 기동성과 보안성을 제고시키며 원격지 전담조직(Directorate of Remote Provinces)을 통해 프랜차이즈 조직을 관리 하고 있다.

또한 칼리프국 붕괴(19.3)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응집력이 탄탄하고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프랜차이즈 조직과 지휘, 동맹 체계도 견재하다. ISIS-호라산, 서아 지부 등 20 여개 연계조직이 ‘알 쿠라이시’에게 충성 맹세를 발표하는 등 하부조직의 이탈 움직임도 전혀 없는 상태이며 많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테러 공격에 필요한 전투역량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의 중앙조직이 보유중인 자금은 1억~3억불로 칼리프국을 자칭하던 2014년 전성기 때의 20억불 보다는 재정능력이 저하 되었으나, 과거의 준 국가 조직에서 게릴라전술 위주의 테러단체로 변신함에 따라 영토방어 비용이 불필요해지면서 자금에 대한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특히 중동,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무기나 인질납치, 주민 갈취 등을 통해 조직의 운영이나 유지비용을 자체 충당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도자 ‘알 쿠라이시’에 대한 정통성 논란으로 불안 요소가 있기도 하다. ‘무함마드’ 직계 쿠라이시 부족이 아닌 투르크멘계 이고, 작전경험이 부족하며, 이라크인에 대한 편중인사 등에 대해 일부 불만이 있으나 지휘력 이나 종교적 권위 및 장기간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을 무난하게 장악중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다만 UN의 테러분자 지정(5.21) 및 미 현상금 증액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12) 본명은 ‘아미르 압달-라흐만 알 마울라’(44세)로 이라크 북부 모술 인근 ‘알 마할라비야’ 출신
<http://www.dailywrn.com/14672> (검색일 2020.11.10)

있는 점도 또다른 리더십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알 쿠라이시’는 향후 기존의 전력에서 큰 변화 없이 프랜차이즈 조직 이탈 차단과 통합에 집중하며 전통성 논란 등 취약한 리더십을 보강하기 위해 프랑스 교사 참수로 촉발된 갈등을 틈타 서방에 대한 보복테러를 지속적으로 선동하면서 자체 선전매체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선전 및 자금, 조직원 모집 등 테러연계 지원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선전 활동으로 인해 극단화 되는 ‘자생적 극단주의자’에 대해 2019,2 미국가대테러센터(NCTC)가 국토안보부(DHS)·FBI와 공동 작성하여 공개한 ‘자생적 극단주의자 행동지표’가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의 행동이 테러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행동지표(46개)를 ‘높음(6)-중간(21)-낮음(19) 등 단계로 분류하고, 특정행위가 어떤 행동유형(준비, 동기부여, 활동은폐)에 포함되는지, 인지가 가능한 자(가족, 지인, 여행사, 당국 등)가 누구인지, 궁극적으로 테러로 나타나는 시기적 위험도(장기, 단기, 즉각적)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고위험 행동지표에는 성명서 및 유언 작성, 유포/ SNS 등에 테러활동 의사 표출/ 테러단체 가담을 위한 해외여행 계획, 시도/ 폭력행위에 대한 종교적, 정치적 정당성 추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위험 지표로는 해외 체류 신원 미상 제3자로부터 입금/ 가족, 지인 대상 극단화 시도/ 온라인상에서 극단주의자들과 소통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잠재적인 위협인자로 폭력성(가정폭력, 동물 학대 등)과 사회적 소외, 무기, 폭발물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친숙도 등을 지목하였다.¹³⁾ 이런 상황에 기인한 ‘인셀¹⁴⁾’ 테러가 요즘 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인셀’ 들의 반사회적인 범죄나 폭력성은 그간 정신병력자 또는 소외 받는 자들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범행과정에서 자신이 ‘인셀’임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일부는 사회적 반란을 도모하겠다는 입장까지 피력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연대감을 형성하고, 유명 인셀 주의자들을 추앙하면서 모방 공격을 기획하는 등 이데올로기화 되는 징후도 포착이 되고 있다.

특히 서구권의 반 이민, 백인 우월주의 등 극우세력의 과격화 추세와 맞물리면서, 최근 들어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안보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에 착수 하였으며, 미 FBI 또한 인셀 주의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과거 공격양상을 모방하고,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다고 조사 한

13)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보고서, 2020.

14) 인셀(Incel)은 ‘Involuntary Celibate’의 약자로 비 자발적인 독신주의자를 뜻한다. 여성의 애정이나 성적 관심을 받지 못한 남성을 의미 하며, ‘여성 혐오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확 대되어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바 있다. 우리나라 에서도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이나 ‘서울역 문지마 폭행사건’ 과 같이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FIVE Eyes’¹⁵⁾ 국가들에도 유사 개념의 도입을 이끌어 내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가장 큰 테러 위협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외로운 늑대형, 자생적 극단주의자 테러범을 사전 적발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분석한 자료를 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공개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테러리즘의 주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내 사회 불만세력에 의한 자생 테러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 인식 조사에서 경찰특공대 요원과 경찰청 위기협상 요원들은 아래 표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¹⁶⁾

< 표 - 3 > 국내 사회 불만세력에 의한 자생테러 가능성 증가

답 변	빈 도 (퍼센트)
전혀 아님	5(4.7%)
아 님	10(9.3%)
보통임	33(30.8%)
그러함	39(36.4%)
매우 그러함	20(18.7%)
총 계	107(100.0%)

※ 출처 : 경찰청 치안정책 연구소 ‘경찰의 대테러 전략기획 수립방안’

국내 사회 불만세력에 의한 자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사회 불만세력에 의한 자생 테러에 대한 가능성 증가에 있어 경찰특공대 요원과 위기협상 요원들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문화 가정’, ‘정신질환자’ 에 의한 테러 발생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안인득 사건’¹⁷⁾ 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2. 4차 산업 혁명과 환경적 변화

21세기의 첨단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인간의 삶은 한층 편리해졌지만, 이런 첨단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력이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넘어간다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¹⁸⁾ 이미 테러리스트들은 인공지능을 충분히 악용할 수 있

15)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의 정보동맹체, 『테러정보통합센터』 보고서, 2020.

16) 이만중, “경찰의 대테러 전략기획 수립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7. p. 30.

17) 2019,4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범인 ‘안인득’이 아파트에 방화를 하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한 사건.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49> (검색일 2020, 11,11)

는 수준에 있다고 평가 받고 있으며, 미사일화 되는 드론이나 정치적 여론을 조종하는 ‘딥페이크’¹⁹⁾ 기술을 악용한 가짜 영상 제작, 유포 혹은 자동화된 해킹 프로그램 등은 이미 테러리스트들이 악용 가능한 인공지능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사물이 지능을 갖게 되며,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의 생물학적, 물리적 영역 간에 경계가 허물어지는 기술의 융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융합의 핵심에는 사이버 물리시스템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은 물론 로봇, 의료기기, 산업장비 등 물리적인 현실세계와 인터넷 가상공간의 사이버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집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여 사물을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²⁰⁾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의 개입이 없어도 되는 완전한 자동화 시대가 될 것이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거론되는 주요 기술은 무인운송수단, 로봇공학, 블록체인, 비트코인, 인공지능(AI), 나노공학, 뇌 과학, 가상현실 등이다. 이러한 기술들이 생물학, 물리학과 융합되어 스마트 도시와 공장, 무인자율주행차량 등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²¹⁾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이미 테러 단체의 자금 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의 새로운 수단이 되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발생 위험이 커졌고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²²⁾의 평가로 각국에서 규제 마련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무인운송수단이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더욱 손쉽게 사용이 가능해 졌다. 이런 최신의 기술들이 테러리스트들의 테러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전 세계에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가 변화 하였고, 기술들의 역기능으로 범죄 방식이나 테러의 형태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역기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며, 통제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개선 되어야하고, 관계기관의 대응 체계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²³⁾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고 각 기관에서는 선제적으로 규제나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드론과 같은

18) 조홍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테러동향과 대응방안”, 『한국테러학회보』 2020, 제13권 제2호,11면
19)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한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몇 단계 정교해진 결과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44&seqNum=2608> (검색일, 2020. 10,11)
20) 최은수, “4차 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비즈니스북스, 2018, p. 11.
21) 송봉규, “제 4차 산업혁명기술과 범죄에 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제12권 제2호, 2019, pp. 73~98.
22) FATF의 주요 역할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을 평가 하며, 자금조달의 수법 등을 연구하여 대응 수단을 개발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는 기관이다. 『테러정보 통합센터』,2020.
23) 조홍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테러동향과 대응방안”, 『한국테러학회보』 제13권 제2호,2020, p.6.

무인 비행체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과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 또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테러에 이용되는 기술력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력 또한 더욱 향상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화의 패러다임을 선도한 '3차 산업혁명'과는 차별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파괴적인 기술의 등장으로 서비스의 생산이나 유통, 소비 등의 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지능화 되면서 삶의 편리성이 극대화 된다'²⁴⁾.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클라우드 슈밋'이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의제로 결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로 등장한 바 있다. 이후 세계의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산업 및 사회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혁명의 시대를 의미하는데 주요 분야는 로봇공학, 인공지능, 무인 운송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나노기술이다.²⁵⁾ 또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이 경제와 산업 전반에 융합되어 보다 지능화 되고 혁신적인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회의 각종 패러다임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와 자율화의 초연결성 이라고 알려져 있고, AI와 드론, 빅데이터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다. 사이버와 물리적 체계가 혼합된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스팟' 과 같은 로봇이 등장하고, 우리나라 경찰특공대와 같이, 작전 목표시설의 분석을 위해 3차원 공간정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국의 지하철 등 113개 소 주요 시설물에 3차원 공간정보를 '공간정보 산업진흥원'과 함께 개발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융합이 이루어지며 급속한 자동화가 실현되며,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연결된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 능력까지 갖춘 기계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런 인공지능은 지능형 에이전트나 로봇 등으로 다양하

24) 김범모, 김형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사회적 가치: 불법, 악의적 드론 대응을 중심으로”, 『회계정보연구』, 2020, 제38권 제1호, pp. 75~100.

25) 임창호, 이윤용,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드론이용, 테러리즘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원』 제 15권 제3호, 2019, p. 169.

계 표현이 된다.²⁶⁾

중국은 2030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공공연하게 공표하였으며, 현재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율무기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의 비밀의 손으로 통하는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도 이미 인공지능 스파이(AI-SPY)를 고용하였다고 한다.(한희원, 2019) 지구의 귀라고 불리는 펜타곤의 국가안보국(NSA) 또한 정보수집과 분석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운용 중임을 시인하였다.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반대로 ‘치명적 자율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s, LAWs) 일명 ‘살인 로봇‘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개입 없이 시스템 스스로가 목표물을 선택하여 공격하도록 설계된 자율작동무기 체계를 의미한다. 현재까지도 ‘LAWs‘가 어떤 것인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없지만, UN 특별보고관 ‘크리스토퍼 헤인즈(Christof Heyns)’는 ‘LAWs’를 “일단 활성화되면 더는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고 완수하는 무기 시스템이라고 정의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무기들이 발전됨에 따라 윤리의식의 부재로 테러 단체나 악용을 목적으로 한 이들에 손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상업적인 목적이 농후한 인공지능 무기들은 각국의 보안 아래 연구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핵무기와 같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유통이 제한되고 추적 감시 등이 이루어지만, 인간의 윤리적인 부분까지 장담 하기는 어렵다. 단적으로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원격 드론 상살이나 전투차량을 사용할 때 국제기준이나 법적, 윤리적 논의 없이 이미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모두 자국의 국가이익과 국가 안보를 내세운 결과이다. 테러 단체들이 이런 국가들과 직접 경쟁을 할 수 있는 국가 체제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테러에 악용할 목적의 수준 단계에 있는, 무기 획득 하려는 시도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히 안전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공 지능과 관련된 자율무기는 그 누구도 예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며, 독특한 형태의 조작에 취약할 것이고, 전장이라는 돌발 적인 상황,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인 곳에서도 인간과 기계간에 상호 작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 무기는 스스로 자율작동을 촉진하며 강화 학습을 통해 인간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오판을 하거나,

26) 한희원, “인공지능(AI)기반의 치명적 자율무기에 대한 법적, 윤리적 쟁점 기초연구”, 『국가정보연구』 제 12권 1호, 2019, p. 152.

잘못된 조작이나 입력의 결과로 치명적인 사태를 불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테러 단체 등이 간파하여 선점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무기는 이제 대테러 분야와 더 나아가서 국가안보의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²⁷⁾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능력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동차가 최초에 개발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자동차가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도 훨씬 느렸지만 지금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또한 초창기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통신의 발전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통신 본연의 기능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만 작은 전화기 안에 다양한 기능들을 접목하면서 소식전달 외에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부터 그런 변화의 깊이와 넓이가 더욱 빠르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²⁸⁾

3. 뉴테러리즘의 심리학적 접근

가. 테러리스트의 시작

외로운 늑대형 테러를 논할 때, 한 가지 특징적인 요인이나 요소만으로는 테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려는 결정과 능력은 개인적 동기나 외부 영향 혹은 내부적인 스트레스 요인, 역량 수준, 기회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테러리스트들은 폭력적 행위를 하기 전에 다양한 행동이나 언급을 한다. 또한 대부분의 테러리스트 들은 실제로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가족, 동료 및 온라인 인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은 테러리스트의 우려스러운 행동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주변인들은 항상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전체 맥락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 우려스러운 행동을 관찰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개입을 하거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다.

연구와 경험에 따르면, 잠재적 주변인들에게 위협 징후에 관해 교육하고 사람들에게 우려사항을 신고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7) 한희원. “인공지능(AI)기반의 치명적 자율무기에 대한 법적, 윤리적 쟁점 기초연구”, 『국가정보연구』 제 12권 1호, 2019, p. 153.

28) 이재영, 문영상 외 지음. “인사이트 플랫폼”, 와이즈베리, 2020, p. 6.

그렇다면 이러한 위협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혹은 진짜 테러리스트가 된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변하게 되는지 심리학적인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최초의 발생은 불공정과 편견을 느끼고, 그로 인해 좌절감과 굴욕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가 테러리스트가 되는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된다. 사회적 불만을 가진 개인이 테러리스트가 되는 과정에서 불공정을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물론 이런 동기가 발생 하였다고 모두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테러집단에 가입 하였더라도 그 집단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한다면 중도에 탈락하거나 테러 실행과 같은 주요 임무를 맡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²⁹⁾

나. 변화 과정

테러리스트가 되어가는 과정에는 몇 가지 단계가 존재한다.

첫 번째, 부당함에 대해 싸우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불공정을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그들 모두가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의 이동가능성에 대한 지각(Taylor 7 Moghaddam, 1994)이다. 개인의 이동 가능성은 사회적인 신분 상승에 대한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사회 계층의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공격성의 이동이다. 지각된 공격성이 외집단으로 향하게 되는 과정에서 테러 집단의 선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외부의 적을 타도하는 것으로써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발생한 공격성의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오사마 빈 라덴’은 이슬람의 전통 율법인 샤리아³⁰⁾를 회복하는 것이 무슬림 세계를 정상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며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만이 샤리아를 제대로 적용한 국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계가 실제 세계의 모습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이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중동의 무슬림을 억압하고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9·11 테러와 같은 미국을 향한 유래 없는 규모의 테러사건을 성공시키고 순수한 이슬람 세계를 세우기 위해 서방세계를 축출해야 한다고 미디어를 통해 밝힌 바 있다.

29) 김영준. “테러리즘에 대한 인지 및 사회 심리학적 고찰”, 『대테러 연구』 제 42호, 경찰청, 2019, p. 329.

30) 고대 아랍어로 ‘지켜야 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종교의 율법, http://hopia.net/kime/mid_IsEconomy2.htm (검색일 2020, 11,9)

세 번째는 도덕적인 관여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테러 집단과 도덕적으로 동화되기 시작한다. 테러집단과 공격성을 표출하는 개인은 강하게 결속하게 되고 이 단계부터 테러집단의 일원으로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된다.

네 번째로 범주적 사고의 고착화와 함께 테러집단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단계이다. 개인의 조직 내 활동은 그들에게 ‘우리’와 ‘그들’로 구분되는 범주적 세계관을 고착시키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용의 정당화하도록 변화시킨다. 테러집단에 대한 몰입이 커질수록 개인은 집단의 전통, 방식, 목표 등을 내면화하게 되어 진정한 테러리스트로 거듭나게 된다.³¹⁾

마지막 다섯 번째는 테러리스트 실행의 단계이다. 이 단계의 개인은 테러리스트로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정규 군사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쉽게 무고한 시민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그들’로 구분하는 사회적 범주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거리감을 통해 이해 할 수 있다. 테러리스트들은 우리와 그들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를 과대평가 하고 자신들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로 치부해 버린다. 어떠한 공격 직전에 테러리스트들은 민간인들의 복종의 신호를 볼 수 없고 따라서 ‘억제 기제(Inhibitory Mechanisms)’³²⁾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다. 이데올로기의 변화

냉전시대의 테러리스트들은 명분에 의해 테러를 일으켰기 때문에 나름의 윤리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지자들의 지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테러는 일으키지 않았다. 하지만, 탈냉전시대의 테러는 더욱 무차별적이고, 치명적이며, 대규모의 사상자를 내고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 그들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테러를 계획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들에게 참혹한 대규모 살상을 야기하는 테러를 저지룰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테러 심리학자들은 테러를 일으키기 쉬운 개인의 성격에 집중했다. 편집증, 정신분열증, 소시오패스 등을 테러를 일으키기 쉬운 성격으로 보았다. 하지만, Lamzi Yousef³³⁾ 처럼 잘 교육받은

31) 김영준. “테러리즘에 대한 인지 및 사회 심리학적 고찰”, 『대테러 연구』, 제 42호, 경찰청, 2019, pp. 319~333.

32) 인간의 억제 행동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

https://ko.wikipedia.org/wiki/%EB%B0%A9%EC%96%B4_%EA%B8%B0%EC%A0%9C
Google, (검색일 2020, 10,11)

테러리스트들이나, 잘 조직화 된 테러집단의 지도자들의 등장으로 이런 이론은 약화되었다. 사회적 상황과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운, 배척된 사람들이 일반적 사회에 배타적인 종교지도자나 단체지도자의 사상에 빠지게 될 때, 테러리스트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 외에도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를 성취하고자 무력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몇몇의 실험 및 연구 결과들은 사회로부터 배척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쁜 쪽으로 창의적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잔혹한 살인은 정교성 측면에서 창의적으로 평가되었다. 요약하면, 사람을 테러리스트로 만드는 것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상황적, 동기적 요인의 작용 또는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특히, 사회적 위협을 받는 요인에 처하게 되면 개인은 공격적이고 악의적으로 사고가 초점화 되어 다른 사람을 해하는 행동을 잘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변하게 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과정에서 이데올로기는 무차별적인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테러리즘의 확산은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억제될 수 있다. 사회와 정부에 비판을 넘어선 적대적인 시각을 가진 온/오프라인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감시해야 한다.³⁴⁾

라. 악의적 창의성

뉴 테러리즘의 또 다른 변화중 하나는 특이한 변화인데, ‘창의적인’ 방법으로 테러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Cropley, Kaufman (2008)은 이를 ‘악의적인 창의성’(malevolent creativity) 이라고 이름 붙였다. 테러리스트들은 항상 테러대상인 ‘그들’로부터 탄압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테러 단체를 상대하다가 붙잡히거나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공포는 집단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에 고도로 집중하게 만든다. 초점화된 사고와 유발된 공격성은 결국에는 ‘악의적인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켜 테러 활동을 더 성공으로 이끌어 내는 경향을 만들 수 있다.

테러집단은 대테러집단과의 경쟁을 통해,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이 느끼는 공포에 의해 창의성이 발현된다. 이들의 환경은 좁고 집중적인 생각을 하게 하여, 산출물이나 계획의 정교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진다.

33) 1993년 알카에다가 미국의 세계무역센터에 가한 첫 번째 폭탄테러의 행동대장. 알카에다의 수석요원이며, 1990년~1991년경 알카에다 트레이닝 캠프 에서 훈련을 받음.

https://en.wikipedia.org/wiki/Ramzi_YousefGoogle, (검색일 2020, 11,9)

34) 김영준. “테러리즘에 대한 인지 및 사회 심리학적 고찰”, 『대테러 연구』, 제 42호, 경찰청, 2019, p. 319.

1993년에 세계 무역 센터에 일어났던 Lamzi Yousef 의 폭탄 테러는 비록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테러리스트들이 직접 폭탄을 제조하고 설치하는 정교성을 보여주었다. 도쿄 지하철 테러를 일으켰던 옴진리교는 컴퓨터, 통신장비,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전문적인 과학자들과 함께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였다(Hudson 1999). 이들을 시초로 테러집단의 대량살상 수단들은 점점 과학화되고, 대테러 수단을 무력화 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점점 더 발전하고 무차별적이 되는 테러집단에 맞서 국내에서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고, 대테러활동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 연구의 주요 초점은 테러 수단에 대한 대응이나 테러 집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테러리스트에 대한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혹은 ‘외로운 늑대’라 불리는 이들이 어떻게 종교적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며, 테러를 성공시키기 위해 어떠한 창의력을 발휘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들은 왜 테러리스트가 되는가에 대해 몇몇 학자들은 성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테러 집단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과는 대조적으로 테러리스트 개인에 대해 접근하는 심리학자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Hudson 1999). Berkowitz(1972)는 대량살상 무기 사용을 시도할 것 같은 성격으로 편집증(Paranoids), 편집적 정신분열증(Paranoid schizophrenice),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mental defectives), 정신분열형 유형(Schizophrenic types), 수동 공격형 성격(Passive-aggressive personality type), 소시오패스적 성향(Sociopath personality)의 6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지목했다. 우정희(2015)는 선행 연구(Ajar, 2008; Kennedy, 2006)를 근거로 하여 자기애적 성격과 권위주의적 성향이 테러리스트들 중에 현저하게 많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자기애적 성격이 강한 사람은 분노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자존감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극단적인 정서 반응을 보일 것 이라고 설명했다.³⁵⁾

마. 테러리스트들의 성향

테러리스트는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공포를 유발하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한다. 테러리스트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유의미성을 획득할

35) 우정희, “테러리스트의 심리적 특성 고찰”, 『한국테러학회보』, 제8권 제2호, 2015, pp. 55~72.

기회가 생겼을 때,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성취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자기 편애를 충족시킬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강력한 동기가 활성화되면, 자기사랑의 동기가 억제되어, 극단적으로 자폭 테러까지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몇 년 전에 한국을 비롯한 서방국가 시민들이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는데 이들이 개인적 박탈이나 동포 박탈을 당했다기보다는 영웅이 되려는 개인의 유의미성 추구로 인해 동기화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듯 테러리스트가 되려고 하는 동기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테러리스트가 되는 과정을 보면, 그 동기는 불공정의 지각이지만, 폭력의 행사를 정당화 하고 실제로 폭력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테러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테러리스트는 좌절된 개인이 과도한 이데올로기를 만날 때 완성되며, 그들은 성격적으로 마키아벨리즘 성격, 권위주의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이 강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테러리스트가 된다고 보기 힘들다. 이들은 불공정으로 인한 좌절을 겪은 상태에서 테러집단의 메시지에 노출되면 이러한 좌절이 공격성으로 변환되고, 테러 집단에 연루되게 된다. 테러집단은 이러한 개인이 테러리스트에 적합하도록 사상적 무장을 시키고 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맨 앞에서 폭력을 휘두르게 한다. 이들은 테러를 막으려는 집단과 상대하면서 더 악랄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테러를 자행하게 된다.

개인이 테러리스트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불공정에 대한 통제감을 가질 수 있다면 테러집단에 가입하는 개인의 수는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폭력제어 장치로써 민주주의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자유 언론이나 법치주의 같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는 개인의 좌절로 인한 분노를 해소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폭력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으며, 건강한 민주주의는 불만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대신 합법적인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잘 발달된 민주주의가 아니라도 신분의 이동 가능성이나 자신들의 대표에 대한 직접 선거는 개인이 좌절을 겪지 않게 만들어 테러리스트와 그 이데올로기가 설 자리를 줄일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영역에 민주주의적 제도들이 확산될수록 점점 더 지하 세계로 숨겠지만, 시민들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이 공고하다면, 이들의 행동

은 늘 시민에 의해 감시당하게 되기 때문에 테러리즘에 대한 억제력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테러를 막기 위한 단기적인 방법으로 사회 불만 세력들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테러리스트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과도하게 불만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의 활동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민에게 테러 감시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한다면 테러리즘에 대한 억제력은 높아질 것이다³⁶⁾.

제3절 주요국가의 테러정세

1. 해외 정세

가.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5개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ISIS의 중동 패퇴 이후 아시아에서 연계, 추종, 단체 활동이 강화되고, 아프가니스탄의 혼란 정국과 극우테러가 늘어나며³⁷⁾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ISIS 연계, 추종 단체 활동 강화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며, 카슈미르 분쟁, 아프간 평화협상 난항 등으로 테러 위협의 증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아프가니스탄

2019년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이 진행되던 중 2차례 연기된 끝에 실시된 대선(9.28) 관련 부정선거 의혹 및 대선 결과 발표가 지연 되면서 치안 불안이나 정국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탈레반의 테러 또한 계속 되고 있다. 아프간은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평가되었으며, 2020년에도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과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의 내부대화, 신정부 구성에 따라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테러 위험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최근 NATO 등에서 외교단 대상의 테러 및 납치 기도에 대한 경고가 빈발하고 있고, 2020년 신정부 구성과 관련하여 외교단에 대한 공격위협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인도

36) 김영준, “테러리즘에 대한 인지 및 사회 심리학적 고찰”, 『대테러 연구』 제 42호, 경찰청, 2019, p. 319.

37) “최근 5년간 320% 가 급증하였다”, 『테러정세 평가 및 전망』, 외교부, 2020, p. 10.

사망자수 기준으로 세계 7위 테러 발생국가 이다. 지난 2월 폴와마 테러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군사적인 대치가 발생하였고 4월 스리랑카 테러, 5월 총선 등으로 인해 경계태세가 강화된 결과, 예년에 비해 총 테러는 감소한 상황이다. 또한 8월 잠무-카슈미르 자치권 폐지에 따른 향상된 경계태세에도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는 위축되었다. 여기에 힌두 민족주의의 강화에 따른 이슬람극단주의, 동북부분리주의 운동에 기인한 테러 위협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인도는 활발한 IT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인터넷 보급이 확산 추세에 있으며, 주요 IT강국으로 세계 여러 IT 업체들이 인도 내에서 활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유형의 테러는 더욱 확대가 될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³⁸⁾

3) 인도네시아

2019년 총 9건의 테러사건이 발생하며 전년 대비 52.6%의 감소를 보였다. 남성들의 단독 범죄에서 아내, 아동을 포함한 연루형 테러로 고착화 되었고, 특히 경찰에 대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ISIS 연계조직들의 테러 공격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ISIS를 모집단으로 하는 셀조직의 라마단 등 주요 종교기념일, 지방선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를 활용하여 비교적 간단한 무기를 사용,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의 안보당국 강성접근에 더하여, 행정명령에 따라 테러조직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거나 테러조직의 조직원 모집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집단에 대한 연성접근(soft approach)에 더욱 중점을 두어 테러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4) 파키스탄

인도령 카시미르 테러(2,14) 카시미르 자치권 폐지(8,5), 파키스탄-인도 통제선 인근 상호 포격 지속 등 긴장과 정세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테러 사건 발생건수 및 사상자 규모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군, 경 등 기관의 테러관련 정보 공유 및 연계 강화, 그리고 합동 작전에 있다. 정보기반 작전으로 사전 조치를 강화 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접경 국경 지역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국경지역의 통제 또한 강화 하였다. 파키스탄 정부와 군이 대테러 작전을 이어감에 따라 테러발생 건수 등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지만, 서, 북부의 험준한 지리적 환경과 종교적 극단주의가 자생하기 쉬운 경제사회적 환경 등이 테러세력

38) “2019 테러정세 평가 및 2020전망”, 『테러정세 평가』, 외교부, 2020, p. 17.

의 은신처로서 기능을 하는 한편, ISIS 세력이 남아시아 지역 내 입지 확보, 강화를 목적으로 테러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카시미르 지역의 테러 발생 및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긴장고조의 가능성과 아프간 평화협상의 성공여부, 그리고 미군의 감축 영향 등 아프간의 정세에 따라 파키스탄의 테러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5) 필리핀

필리핀 내의 테러 단체 및 무장 단체들의 활동 역사는 매우 깊고, 테러리즘과 무장세력 근절을 위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각종 테러 위협 및 무장단체의 공격 가능성이 상존 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치안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수행중이며, 그간 테러활동의 명분이 되어 온 필리핀 남부의 이슬람 자치 지역인 ‘민다나오’의 차지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사모로³⁹⁾ 조직법’의 이행 및 주민투표의 성공적인 실시 등으로 평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2019년도에는 필리핀인이 포함된 자살테러가 등장하였고, IS 수괴 ‘알 바그다디’의 제거 이후 중동 내 IS 세력의 약화에 따른 필리핀 등 여타 지역으로부터의 잠입 및 외부세력과 필리핀 내 추종 세력과의 결탁을 통한 세력 확장 도모 등의 움직임이 있어 주목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필리핀 정부는 군, 경 및 행정력을 동원한 반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역내 다자 협의체를 통한 해양안보 확립과 테러 근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민다나오 지방의 테러 및 무장 단체 활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고, 주민투표로 비준된 방사모로 조직법 이행과 방사모로 전환위원회의회의 회의선거 및 여타 자치행정부 수립 전반에 걸친 거버넌스 확립 과정에서 분과간의 갈등 조정이나 권한 분배 등에 있어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정부의 역할이 테러정세의 안정화에 큰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나. 중동

중동지역은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요르단, 이스라엘 등 6개

39)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신설된 자치구. 모로족 언어로 ‘무어인의 집’을 뜻 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0%A9%EC%82%AC%EB%AA%A8%EB%A1%9C>
(검색일 2020, 11,1)

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지역의 테러 위협이 지속되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로 위협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1) 레바논

레바논 내의 일부지역 출신자들은 빈곤, 불공평 및 정치 불신 등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스스로 ISIS 조직과 접촉하고 암약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ISIS는 자생적 테러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신규 조직원 모집이나 훈련, 테러방법 교사 등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정부군 및 군 시설에 대한 테러에서 기독교 교회 등 타 종교 시설물에 대한 폭탄테러를 모의 하는 등 공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ISIS 괴멸에 따른 약 1천여 명에 달하는 레바논계 ISIS 조직원 및 그 가족들의 시리아 잠입으로 인한 잠재적인 테러의 온상기지가 되었고 정치 체제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가운데, 테러조직에 의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발생 가능성이 증대⁴⁰⁾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시리아 내 잔존 ISIS 조직원들이 신 칼리프 선출에 따른 충성서약과 함께 조직의 견제함을 알리기 위해 시리아뿐만 아니라 레바논 등 인접국에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농후한 특이사항이 있다.

2) 시리아

현재 ISIS의 공세 강화로 북부지역의 테러 정세가 악화 되었다. 북부 지역은 이슬람 반군과 시리아 정부를 각각 지원하던 터키와 러시아간 휴전합의(‘20,3)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ISIS의 공세 강화로 정세가 악화 되었다. 터키는 대규모 난민 유입을 차단하고 시리아 정부의 견제를 위해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하얏트 타흐리르 알샴’(HTS)을 지원하고 있으나, 터키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쿠르드 반군이 이에 반발하며, 터키 반군에 대한 습격과 테러를 자행하는 등 터키와 쿠르드 간 대립이 여전한 상태이다.

3) 사우디아라비아

2019년 IEP ⁴¹⁾ 글로벌 테러리즘 지수 보고서에서 테러리즘 영향도에 있어 세계 30위라고 밝히며, 중동, 아프리카에서 이라크, 예멘, 이집트, 리비아, 수단에 이어 7위를 기록하며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9, 14 동부 아랍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테

40) 2016,4 베이루트 시아파 밀집 거주지에 대한 폭탄테러로 242명 사상, 『테러정보통합센터』, 2020
41) Institute for Economic and Peace , 『국제경제평화연구소』

러로 전 세계 원유 공급의 5% 정도가 타격을 입는 등 다양한 형태의 테라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란 봉쇄를 위한 미국과 사우디 간의 군사협력 강화로 반 서방 극단주의자들의 외국 시설 공격 가능성과 함께 사우디로 복귀하는 ISIS 전투원들의 사회 재적응 실패 시 사우디 안보 환경은 크게 악화될 가능성에 놓여 있다. 하지만 10.24 ‘리야드 합의’ 체결 이후 사우디와 후티 반군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9.20 이후 후티 반군은 사우디에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중지하며 예멘 사태를 해결할 시 사우디 안보상황은 크게 호전될 것이라는 예상도 상존 하고 있으며, 2020년은 사우디가 G20 의장국으로서 11월말 정상회의 개최 시 까지 국가적 수준의 안보, 치안 강화 및 대테러에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이 또한 COVID-19로 인하여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보여 진다.

4) 예멘

금년들어 국제사회를 위협한 대규모 예멘 발 테러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멘 각지에서 하디정부군, 후티반군, 민간인 지도자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 행위 및 원유 송유관 폭파 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드론을 이용한 미군 중부사령부의 공습과 UAE군이 지원하는 보안군 및 예멘 특수부대의 남부지역 내 대테러 작전으로 인해 테러세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으나 완전히 진압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하디 정부와 남부 세력 간 리야드 합의 이행으로 남부 정세가 안정되고, 사우디와 후티 반군 간 종전 협상이 타결되어 2020년 예멘 정세와 관련하여 긍정적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단기간 내 예멘 평화 성은 어려운 상황이며, 예멘 정세가 계속 불안정한 가운데 이슬람 과격주의자 지하디스트(Jihadist)들이 주축인 AQAP⁴²⁾는 예멘 남부 등에서 후티 반군과 하디 대통령지지 세력을 겨냥한 무차별적 테러행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멘 내전의 정치적 해결이 단시간 내에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예멘 북서부 산악지대를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후티 반군 세력의 하디 정부지지 정치인의 탄압, 후티 반군 장악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직원들에 대한 위협은 상존하고 있으며, 부족 지배 계층의 이해타산에 따른 이합집산 및 상호 견제가 지속되는 한 부족 간의 대립이나 반목, 공격은 지속될 것이다. 현재 예멘은 정부군과 남부과도위간 교전으로 내전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멘 정부와 남부과도위원회(STC)간에 권력분점, 휴전을 선언한 리야드 합의('19,11) 이후에도, 남부 아비안 주 일원에서 교전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사우디의 주어로 한때 휴전에 합의(6,22)했으나, STC가 정부군의

42) Al-Qaeda on the Arabian Peninsula,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협상중단을 선언(8.25)하면서 교전이 제기되고 있다.

5) 요르단

대테러 연대의 리더를 자처하면서 국왕의 리더십 하에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규모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테러 공격은 없었으나, 지난 2월 암만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 및 지난 2019,11월 주요 관광지인 Jerash 에서의 흉기 난동 사건 등 테러로 의심할만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리아 남부에 잔류하고 있는 요르단 국적의 외국인 전투원(Foreign Terrorist Fighters)의 숫자가 3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귀환 시 가족들에 대한 처우 제공 및 법적 처리문제가 향후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ISIS 또는 시리아 테러 단체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요르단 인들이 자국으로 복귀할 경우 이들의 처리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요르단 뿐만 아니라 역내 많은 국가들이 이들의 처리 방법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크게는 이들에 대한 복귀 허용, 구금되어 있는 국가에서의 형법에 따른 처벌, 두 가지로 나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을 전신으로 하는 야당인 이슬람행동전선(IAF)이 배후에 있다는 의심을 받던 요르단 교사협회(JTA)의 총파업 사태가 교사 측 요구를 요르단 정부가 대폭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불안 요소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6) 이라크

ISIS는 2019년 중 마지막 영토를 상실하고, 최고 지도자인 ‘알 바그다디’가 사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 ‘알 쿠라이시’를 내세워 테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라크, 시리아 내에 15,000-20,000 여명의 조직원이 바그다드 외곽, 이라크, 시리아 접경지대역, 중앙정부 쿠르드 자치정부간 분쟁지역의 도심 외곽, 농촌, 사막 등 격오지에 은신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9,6월부터 소모전 전략을 통해 이라크 정부 및 군, 경의 능력/자원 소진, 물자 확보 및 지지세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고, ISIS 테러 및 대테러 작전으로 평균 사상자가 365명이 발생하였다. 또한 2019년 중 미국 대사관, 기업, 군 기지에 대한 로켓포 위협공격이 발생한바, 이는 미.이란 간 긴장 고조에 따른 일부 친 이란 강경 시아파 민병대(PMF)⁴³⁾ 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0년에 ISIS의 새로운 지도자

43) 인민동원군(알하시드 알샤비) 또는 인민동원부대(알하시드 알와타니)는 이라크 정부가 후원하는 40개의 무장 단체로 이루어진 통솔 기구로 대부분이 시아파 무장단체이지만 수니파, 크리스트교, 야지디 무장단체도 존재한다. 인민동원군은 ISIS에 맞서 창설된 부대이다. 원래 부대는 이라크 내 정부의 인민동원위원회라는 이름의 무장단체를 바탕으로 2014년 6월 창설되었다. 2020, 『국제테러정세 평가』, 외교부, p. 76.

‘알 쿠라이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미국에 대한 복수를 위해 테러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알 쿠라이시’는 알 카에다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어 이들의 테러영역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10월부터 시작된 대규모 시위 사태로 인한 치안 및 정국 불안도 ISIS의 활동을 더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이란 간 긴장상황이 지속되는 한, 일부 친이란 강경 OMF의 미국시설, 인원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라크 정국 혼란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PMF의 돌발적인 행위의 가능성이 예상된다. 아울러 PMF와 미군(이라크 정규군에 대한 공중지원 담당)은 이라크 정규군과 더불어 ISIS 진압병력의 주요구성 이므로 이들 간 갈등의 심화는 ISIS 소탕 작전에도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라크는 현재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ISIS의 세력 확장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이라크에서는 신정부 출범(5,6)에도 불구하고 종파, 부족갈등 및 치안력 부재에 따른 테러사건 발생 등으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게 지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43만 명, ‘20.10)에 따라 경기 침체 및 민생고로 사회 불만이 누적되어 반정부 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등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7) 이스라엘

중동, 서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한반도 1/10 크기의 국가로써 예루살렘, 텔아비브, 하이파 등의 주요도시를 가지고 있다. 2019년 테러발생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1.12일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PIJ)⁴⁴⁾ 사령관 사망이후 급증하면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고 주요 발생 장소로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집중되었다가, 11월 이후 가자지구에서 주로 테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란 핵 협정을 둘러싼 미국의 이란 제재로 미국과 이란간의 악화된 관계로 인해 시리나 호르무즈해협 등에서 직접적인 무력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란의 영향력 하에 있는 헤즈볼라 등 준군사조직과 이스라엘 상호간 드론 공격, 미사일 및 로켓 공격, 테러 공격 등 간접적인 저항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한 실정이다. 현재 이스라엘은 2019.9월 제2차 총선 이후 연정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기 집권 중인 네타냐후 총리가 뇌물, 사기, 배

44) 무슬림 형제단내에 팔레스타인 유학생 중심의 강경세력이 이란 혁명에 자극을 받아 ‘아랍권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약 1,000여명 규모로 결성되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Islamic_Jihad_Movement_in_PalestineGoogle (검색일 2020, 10,9)

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국내적으로 정치적 혼란 상황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오바마 정부와는 달리 예루살렘으로 미국대사관을 이전했고,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고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는 등 일방적인 이스라엘 편향정책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과 팔레스타인 간 관계도 악화되고 있다.

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은 나이지리아, 리비아, 말리, 알제리, 에티오피아, 이집트, 케냐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동에서 패배한 ISIS의 유입과 거버넌스의 부재로 인한 불안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악화 전망이다.

1) 나이지리아

동북부지역에서 서아프리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테러 활동이 활발하며 ‘보코하람’이나 ‘IS 서아프리카 지부’ 등의 테러 단체가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군 출신의 ‘Buhari’ 대통령의 2015년 취임 이후 계속된 진압작전에도 불구하고 군대보다 뛰어난 조직력과 무장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사실상 수도의 8개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중부지역에서는 유목민과 기독교인 농민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 간 다툼이기보다 생존권 차원의 갈등으로 볼 수 있겠으며,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로 인해 갈등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또한 유전지대 환경오염으로 인해 농지 및 어업자원을 잃었으나, 연방정부가 수익을 독식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남부 유전지대 지역의 독립을 주장하는 여러 단체들이 반정부 투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수도 ‘Abuja’ 를 중심으로 소수 시아파 무슬림단체(IMN)와 연방 정부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대정부 투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고,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무장능력이나 호전성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평가받는 나이지리아 해적이 선원 납치 사건 등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해군력이 미비하여 사실상 해적에 대한 근절책이 부재한 상태이다.

2) 리비아

하프트라르 장군의 리비아국민군(LNA)이 사실상 무법지역으로 남아있던 리비아 남부

지역에 대한 테러단체 등의 소탕 작전을 2019년 초반에 전개하여 일시적으로 동지역에서 테러세력의 위축 및 치안 개선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비아 국민군의 2019.4월 트리폴리 공격으로 촉발된 교전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리비아 남부지역 뿐만 아니라 서부지역의 치안 환경도 다시 악화 추세이고, 테러 단체들이 이런 치안 공백을 이용하여 다시 세력을 확대중이며, 리비아 전역에 걸쳐 예고되지 않은 테러, 납치 등의 발생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리폴리 외곽지역에서의 무장 세력들과 리비아국민군의 교전은 베를린회의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장기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교전이 장기화 될수록 리비아의 치안 환경은 계속 악화되어 리비아에서 활동 중인 테러 단체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고, 신규 유입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⁴⁵⁾

리비아는 서부 및 남부지역은 물론 동부 벵가지 등에서의 치안이 더욱 불안정해져 이를 틈타 ISIS의 지속적인 세력 확대 및 주요 정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격이 증가 할 것이며, ISIS 등 글로벌 테러 조직이 리비아를 거점화하는 노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유럽 내 테러활동을 전개해 나갈 가능성 또한 높다. 여기에 최근 미국은 리비아 내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면서 트리폴리 교전 중단을 위한 중재 노력도 전개 중이다. 리비아 내의 테러 단체 제거는 통합정부 및 리비아국민군의 목표이기도 하므로 미국과 통합정부, 그리고 리비아국민군 간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협력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또한 앞으로도 ‘미국아프리카사령부(US AFRICOM)’을 중심으로 리비아 내 테러단체의 세력 확장 견제 및 이들에 대한 소탕 작전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말리

한반도의 약 5배의 면적을 가진 나라로 1960년에 프랑스에서 독립하였다. 현재는 알카에다, ISIS 등과 연계된 테러조직들이 사헬 지역 내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전년도에 이어 특히 2019년 하반기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를 중심으로 테러공격을 크게 강화했다. 북부 유목민의 펄(Peul)족의 남하에 따라 중남부 농경민의 도공(Dogon)족과의 생활반경이 중첩되면서, 부족 간 갈등이 고조되어 2019.3 오고사구 학살, 2019.6월 소바네다 학살 등 부족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말리정부의 개입으로 일단 휴전에 합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헬 지역 내의 안보불안은 근본적으로 말리 중, 북부의 거버넌스 부재에 따른 것으

45) “2019 테러정세 평가 및 2020전망”, 『테러정세 평가』, 외교부, 2020, p. 108.

로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은 지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나 국제사회의 개입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 2020년도에 말리 내의 안보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오히려 작년 대비 악화될 가능성까지 생겼다. 여기에 테러활동의 격화로 인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보다 환기될 것으로 보이나, 주요국 중 사헬 지역 내 안보 이익이 크지 않은 국가의 경우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는 데는 소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프랑스군 피살(11.1), 프랑스헬기 충돌사건(11.25) 등으로 인해 프랑스 입장에서도 군사적 피해가 커져가는 가운데 프랑스는 국방장관이 직접 사헬 지역을 방문하고(11.4~5), 총리, 국방장관이 다카르 포럼에 참석(11.18~19)하는 등 사헬 지역의 문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4) 알제리

전 국토에 걸쳐 대테러 활동을 펼친 결과 2019,1~9 월간 테러리스트 11명 사살, 19명 검거, 37명 투항, 소속원 154명 검거 밀수업자 854명 등의 단속 성과를 냈다. 테러라 빈번했던 지역인 말리, 니제르 국경 지역과 남부에서 펼쳐진 대테러작전이 주효하였고 과거에 비해 테러조직의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 된다. 또한 정부 당국은 2019,2월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의 수도 알제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여타 주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차단하는 등의 검문검색 활동을 강화하면서 테러리스트의 유입을 원천 봉쇄 하였다.

알제리 정부 당국의 강력한 대테러 조치 및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 약화 등이 고려되어 알제리 내의 테러사건은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19,12,12 대선 이후에도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면서 피로감 누적에 따라 폭력시위로 변질 되거나 극단적 폭력주의 세력과의 결탁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리비아 암흑의 10년을 직접 겪지 않은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반정부시위의 비폭력 노선에서 분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알카에다 마그렙 지부(AQMI) 소속원이 300~500명 사이, 알제리 ISIS 연계 소속원이 100여명 이하로 추산되는 가운데 FTF의 귀환으로 인해 100여명 정도가 알제리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제리 국내정치적 긴장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FTF의 귀환이 야기하는 정치, 안보적 위협요인의 증대는 또 다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5)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내에서 제2대 인구대국으로 불리며 80여개의 종족을 보유하고 종족기반의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세의 불안 요소는 전년 대비 더욱 가중되어 일부지역에서 쿠데타 시도가 발생하였으며 전반적인 치안 상황도 악화 되었다. 2018,4 Abiy 총리가 취임한 이후 정치, 경제 개혁 조치를 적극 추진 중 이지만, 국민의 정치적 참여 공간이나 자위 확대에 따라 뿌리 깊은 종족 간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 등이 폭력적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정세 불안정이 지속중이다. 경제 개혁정책이 국가 경제 성장 및 민생 개선 등의 실질적,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높은 실업률,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도 확대중인 것으로 관찰되고 있으나 주요 지역,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이 실제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금년 9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테러 공격 시도가 있었고, ISIS 대원들이 체포되는 등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정세에 대한 유동성이 워낙 큰 상황에서 경제난 가중 등의 촉발 요인이 있을 경우 반정부 시위 또는 내생적 테러공격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소말리아 등 취약국과 인접하고 홍해 지역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상 외부세력이 침투하여 테러행위를 자행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6) 이집트

시나이 반도 '타바' 지역에서 우리국민이 탑승했던 관광버스가 자살폭탄 테러를 당한 후 특별여행정보가 발령된 국가이다. 2019,12월에 경보는 해제 되었지만 남부 시나이 지역은 북부지역 비해 치안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나 북부 시나이 지역에서는 군,경과 테러 단체 간의 교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집트 본토에서 테러단체의 활동이 과거에 비해 위축되고 있음에 따라 테러단체들이 이집트 정부 및 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관광객 등 민간인을 상대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테러단체들이 사회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자 내년 초 '콥트 교'⁴⁶⁾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콥트교도'를 대상으로 테러공격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집트 정부에서 대테러 작전을 약 2년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ISIS 연계 테러세력 등이 활동하고 있는 관계로 북부 시나이 반도에서의 대테러작전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부 리비아 국경 및 남부 수단 국경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고, ISIS 잔존 세력이 이들 국경지역을 통해 이집트내로 잠입하여 점조직으로 산발적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과 이집트 내의 테러단체들이 국경을

46) 이집트 오리엔트 정교회.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 교회. 이집트 인구 8,000만명 중 10% 정도를 차지하며 이집트 무슬림에게 오랫동안 차별을 받고 있다.
<https://namu.wiki/w/%EC%BD%A5%ED%8A%B8%20%EC%A0%95%EA%B5%90%ED%9A%8C>
 (검색일 2020, 10,10)

통해 다량의 무기류를 밀반입 하여 그 세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집트 당국은 긴 국경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음은 인정하지만 이들 국경을 통한 테러단체 잡입 보다 수단 국경을 통한 각종 마약류의 밀반입을 더욱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7) 케냐

2018년 ‘세계테러지표(Global Terrorism Index)’에서 케냐는 19위, 소말리아는 6위를 기록하며 고위험국 이상으로 분류가 되었다. 소말리아의 경우 2017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테러 증가 국가로 기록되는 등 전 세계 테러 위험국가 중 최고 위험국으로 분류된 가운데 케냐와 소말리아 국경지대에 테러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 소말리아 일부 연방 회원국내 총선 등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되어 지속적인 테러 공격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 등의 적극적 공격 및 테러 단체 내부적 균열의 조짐이 보이면서 다소 위축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 테러 그룹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인 알샤바브의 주된 활동 무대이다. 2020년 예정된 소말리아 총선이 향후 소말리아 정국의 안정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알샤바브가 총선 준비과정에서 연방정부와 회원국정부간 논의 및 주요 세력 포용 여부, 헌법 개정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 집단과 갈등 등 제반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여, 주요 정치인 및 세력을 대상으로 테러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대하고 기존 정치권의 이탈 세력을 흡수하려는 노력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라. 미주 / 유럽

이 지역은 러시아, 미국, 벨기에, EU, 칠레, 터키, 프랑스로 나눌 수 있으며, 대테러 노하우 축적과 국경통제 강화 등으로 테러 정세는 대체로 개선 추세이지만, 내국인의 급진화 문제나 귀환하는 전투테러원 관리로 인한 위협이 존재한다.

1) 러시아

2019년 러시아 내 테러 시도 차단 등의 대테러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10년 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997건→9건).⁴⁷⁾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등

47) “테러정세 평가 및 전망”, 『테러정세 평가』, 외교부, 2020, p. 146.

대규모 연례 국제행사와 카잔 기능올림픽 등의 행사도 안전하게 진행 되었고, UN 및 여타 국가들과의 대테러 경험을 공유하며 긴밀한 대테러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시민 운집지역에서의 테러 시도 무력화를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계도를 하며 대테러 활동을 한층 강화해 가아가고 있으며, 국제 테러조직의 러시아 내 세포조직 창설 방지와 전통적 불안 지역인 북카프카스 뿐만 아니라 크림 지역 등에 지역적 안정 유지,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를 위해 인터넷 상의 극단주의와 폭력 관련 프로파간다⁴⁸⁾에 대응하는 정보전도 강화해 나간다고 알린 바 있다.

향후 러시아는 국제사회와의 기존 협력 방향을 지속, 발전 시켜 가는 것 이외에 드론,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등을 포함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테러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국제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려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테러리즘의 발생, 확산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중동 및 주변 지역의 분쟁의 영구적 해결과 화해를 촉진하여 불안정 요인을 줄이려는 정치, 외교적 노력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2015년 시리아 사태 개입으로 90년대 이후 낮았던 중동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다시 드러내며 중동 내 세력조정자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고 최근 리비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예멘 등 여타 지역 문제에서도 주요 고려 요소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는 국내문제 불간섭, 주권 존중 등 우엔 현장과 국제법 규범을 준수한다는 일관적 대외 입장, 그리고 분쟁의 각 행위자들과 모두 접촉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레버리지,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대미 협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역할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은 미국과 우방국들의 지속적인 대테러 작전으로 ‘알 카에다’ 및 ‘ISIS’의 대미 공격 역량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나 두 테러단체의 미국 공격에 대한 의지는 여전하며, 다양한 공격 수단도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니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미국 내 자생적 테러리스트들과 인종 혐오 등에 기반 한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이 상존 하고 있으며 이란 및 ‘헤즈볼라’⁴⁹⁾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가 미국 본토에 위협을 제기한다.

48) 사상이나 교의의 선전과 존재의 효능 또는 주장 따위를 남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는 일이나 말함. <https://namu.wiki/w/%ED%94%84%EB%A1%9C%ED%8C%8C%EA%B0%84%EB%8B%A4> (검색일 2020, 10,6)

49)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교전단체 이자 정당조직. (검색일 2020,10,15)
<https://ko.wikipedia.org/wiki/%ED%97%A4%EC%A6%88%EB%B3%BC%EB%9D%BC>

또한 미국 외부에 상존 하고는 위협은 반 ISIS 국제연대가 영토적 ‘칼리프국’을 제거 하고 지도자 ‘알 바그다디’를 제거하였으나, 이제 성격을 비밀 저항 조직으로 재구성한 ISIS는 여전히 미국에 위협적이다. 알카에다 및 연계조직 또한 계속해서 미국의 이익을 공격하고, 각 지역별 조직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란 역시 계속해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한 영향력을 영속화하기 위해 테러리즘을 이용한다. 여기에 더하여 이들 테러리스트 역시 암호화 통신 수단이나 소셜 미디어, 무인기 활용 등 신기술을 테러에 사용하며, 능력을 강화 하고 있다. 주류 소셜 미디어 등의 활용은 감소 추세이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보다 안전한 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탐지를 피하고 선전전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상용 ‘무인항공기(UAV)’, ‘무인 차량(USV)’ 등을 활용하여, 전술 정찰, 밀수, 핵심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19.9월 사우디 정유시설)을 감행 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리고 이집트, 말리, 나이지리아, 리비아, 예멘 등 중동 지역의 장기화된 분쟁으로 테러리스트의 양성소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이다.

아프리카 지역의 지속적인 분쟁은 ‘알 카에다’ 및 ‘ISIS’ 연계 테러리스트들의 영향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우방국들의 관심 분산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테러 위협이 충분히 감소하였다는 일부 우방국들의 인식은 대테러 작전에 활용될 자원을 전용시킴으로써 테러단체들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킬 여지를 존재하게 한다. 주요 대테러 작전 대상 지역에서 중국 및 러시아 등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들의 증대하는 영향력은 동 지역 내 미국의 효과적인 대테러 작전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의 대테러 작전은 대체로 강압적이거나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현지인들의 또 다른 과격화 및 폭력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상기와 같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우방국 활용을 증대시키고 국내 부처 간 그리고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물리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테러 작전을 테러리스트들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 이라는 판단으로 위와 같은 복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한 지도력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우방국들이 효과적, 포괄적, 균형적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이를 충분한 자원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보여 진다.

특정 테러단체에 대응함에 있어 동 단체와 가장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인 것이다. 또한 과격화 자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및 공동체 관여 등의 단계에서부터 동맹, 우방국들과 협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테러단체들의 신기술 활용 증대 추세를 감안할 때, 이런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기업들과의 관계 구축이 중요한 것은 그들 역시 잘 알고 있다. 업계가 주도하는 ‘GIHCT’⁵⁰⁾ 등에 미 정부가 참여한다면,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의 인터넷 콘텐츠 활용 차단에 유용할 것이다. 소셜 미디어 활용의 폭증과 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의 범람, 사용자와 당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 등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 공유 및 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테러리스트들의 제재 회피 노력을 차단하는 것 또한 꼭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3) 유럽 연합(EU)

‘EU’의 경우 2015~2017년 최고조이던 유럽 내 테러 위협이 ISIS 쇠퇴와 함께 완화기조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 상반기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사건(14건)은 전년도(34건)에 비해 절반 이상 급감하였고, 사상자 수도 2/3 가량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슬람 테러가 대부분이었던 유럽에서 극우, 민족분리주의 테러가 부활 조짐을 보이면서 테러양상이 다양화 되는 경향이 보여 지고 있다. 극우세력 체포 사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벨기에

2018.1.22. 테러 위협 경보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낮춘 후 현재까지 유지중이다. 테러경보는 벨기에 연방 내무부 산하 ‘위협분석조정기구(OCAM)’가 벨기에 내부 및 벨기에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테러위협을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설정되는데, 시리아 및 이라크 내 ISIS의 격퇴 및 사실상 해체가 2018.1.22. 테러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정기적으로 평가 조정되는 정보 단계는 2007~2017년간 벨기에와 프랑스에 대한 연속 테러로 인해 3단계 또는 4단계로 격상되었던 테러위협경보가 2018.1월 이래 10년 만에 최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전투테러원(FTF)’와 달리 시리아 내 ISIS 약화로 ‘지하디스트’ 분쟁지역 여행이나 방문을 시도도 하지 않은 자생적 테러 전투원(Homegrown Terrorist Fighters)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ISIS는 비공식 지원 네트워크나 친 ISIS 미디어에 힘입어 온라인상 활동을 여전히 유

50) Global Internet Forum to Counter Terrorism, <https://gifct.org/> (검색일 2020, 10,9)

지하는 중이고, 영토 지배력이 감소되는 대신 점차 ‘알 카에다’가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양극화 심화와 극단주의 득세를 배경으로 범죄경력자들이 사상 주입에 취약하고 테러 활동 가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영국에서는 ‘노딜 브렉시트’ 혼란 속에 소강 국면이던 북아일랜드 공화군(IRA) 계열의 분리 독립 세력의 활동 재개 움직임도 포착 되어 주목 받고 있기도 하다.

5) 칠레

2019년에 미상의 테러단체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사건이 총 5건 발생하였다. 환경테러단체인 ITS가 산티아고 시내 버스정류장에 폭발물을 설치하여 5명이 부상당했으며 이중 1명은 중상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미상의 테러단체가 지역 경찰서 및 전직 내무부 장관을 향한 소포 폭발물 테러를 기도하여 경찰관 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위의 테러 사건들은 중도보수 성향의 ‘피네라’ 2기 정부가 출범 이후 테러법 개정 등 공권력 강화를 기도하다가 극좌세력의 불만을 야기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무정부주의자 및 환경테러단체 등의 극좌세력이 지난 1기 정부 시절 본인들의 탄압에 대한 보복 및 사회적 혼란 야기를 위한 목적 또는 단체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외로운 늑대 형 테러범의 단독 범행 등 여러 가지의 가설이 존재하기도 한다. 정부는 7월 경찰 대상의 테러 발생 직후 외로운 늑대 형 테러범죄를 겨냥한 테러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의회 측의 반대로 연내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여기에 2019년 10월 발발된 소요사태가 지속되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자 이런 분위기를 틈탄 자생테러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득을 취하려는 불순단체 세력들의 방화, 폭발물 투척 및 약탈 등 사회 인프라 대상의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국제 테러단체의 사주를 받아 시위대를 가장하여 갈등을 지속 유발하려는 불순세력에 의한 지속적인 폭력행위 및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발물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2020년 4월과 10월에 1, 2차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현재 소요사태와 관련된 국가적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폭력사태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사회 불평등에 대한 불만으로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개선되지 않는 경제상황과 개헌, 선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치, 경제적인 갈등과 분열로 인한 사회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틈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방화, 폭발물 투척 등 사회 인프라 대상의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 무정부주의자, 환경테러단체 및 ‘마푸체족’ 등이 개헌 이슈 등 사회 변혁 분위기에 편승하여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지역별 소규모 테러 위협이 전망되고 있으며, 시위진압 과정에서 물리적인 피해를 당한 시위대들을 선동하기 위해 정부와 경찰 등을 목표로 한 공권력 대상 테러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6) 터키

과거 2015, 1026년과 같은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테러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사실상 민간인 사상이 발생한 테러는 9.22 아다나 지역에서 경찰 통근 버스를 폭탄 테러 한 사건에 불과 하는 등 민간인 대상 테러는 급감 하였다. 여타 사상자들이 발생한 사건들은 테러 보다는 범죄에 가까운 사건들이며, 테러 시도를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검거가 되기도 했다. 터키 정부는 2019, 11월 ISIS 전투원 1,147명, 알 카에다 전투원 115명을 구금하고 있고 2016년부터 ISIS 와의 연계로 외국인 총 75,000명을 추방하는 등 테러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여 지속적으로 테러조직을 색출하여 처벌, 추방하고 있으며, 매주 국내 대테러 작전 동향을 발표하고 있기도 하다. 민간인 대상의 테러는 급감하였지만, 시리아 국경지역에서 터키 군 및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매복폭탄 테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차량 및 매복폭탄 테러는 주로 시리아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다만 터키정부는 군사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도 테러로 발표하기도 한다. 이런 강력한 조치로 인해 테러조직의 세력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PKK 및 그 분파 그리고 ISIS의 잔존 세력이 ‘Sleeper Cell(잠복해 있는 조직원)’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과 연계된 해외 테러조직들의 터키 내 활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특히 시리아 국경 및 시리아 내부 상황이 통제되기 어려워 지을 경우에는 터키 국경지역 또는 터키 주요 대도시에서 시리아에서 넘어온 테러단체의 테러 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7) 프랑스

국제적으로 대테러 작전을 적극 수행중이며, 국내적으로 이민자 통합정책상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까지 ISIS 계획, 실행 테러 공격의 주요 표적이었다. 다만, 최근 ISIS가 모든 중동 점령지(caliphate)에서 패퇴하였고, 프랑스도 국내적인 예방조치로 수감시설 내 극단화 및 자생적 테러에 대한 대응 등을 적극 실시하여 테러 정세가 크게 개선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한 ISIS의 선동이나 지시에 동조한 극단화단 개인들에 의한 잠재적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라크, 시리아 거주 경험이 있는 이

들의 귀국이나, 테러 혐의 수감자들의 출소로 이러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기도 하다.

< 표 - 4 > 최근 프랑스 국내 주요 테러 발생 사례

일 자	장 소	개 요
2016.7.14	니 스	해변에서 축제를 즐기던 군중들을 향해 트럭이 돌진, 84명 사망, 121명 부상
2017.2.3	파 리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인 군인을 흉기로 습격
2017.3.19	파 리	오를리 공항 총기 탈취 미수
2018.3.23	Trebes	프랑스 남부 Trebes시 인질극으로 사망 4명, 부상 15명 발생
2018.5.12	파 리	파리 오페라 인근 흉기 난동 테러로 사망 1명, 부상 4명 발생
2019.3.5.	교정시설	감옥 내 극단화된 죄수가 간수 2인에게 흉기 공격
2019.5.24.	리 옹	IS에 충성을 맹세한 알제리인이 상점에 폭발물 테러를 일으켜 14명 부상
2019.10.3.	파 리	극단화된 개인(파리경시청 경찰)의 청내 흉기 난동으로 경찰관 4명 사망

※ 출처 : 테러정보통합센터

이에, 프랑스는 국내적으로 대규모 테러 위협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테러단체와의 연계 테러나 자생적 테러, 극우 테러 등 다양화된 위협에 대처해 나 갈 것으로 전망 되며, 특히 프랑스에서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주요 주체로 ISIS나 알 카에다 로부터 귀환하는 프랑스인, 자생적으로 극단화된 프랑스인, 프랑스 거주 외국인(불어권 마그레브⁵¹⁾ 출신) 또는 ISIS 등으로 구분하여 각 주체별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 국내 정세

국내에는 국제테러단체 공격 및 테러조직원 잡입 등 직접적인 위해 사례는 없었지만, 테러 단체를 추종하는 세력이나, 가입, 선동 등 잠재적인 위협이 상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ISIS 등 테러단체지지 및 가담 선동 등의 혐의로 강제 퇴거 된 외국인인 7개국 29명으로 전년 대비 38%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19, 11월 에는 카자흐스탄 인이 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적발되어 사법처리 중

51) 아랍어로 "해가 지는 지역" 또는 "서쪽" 이란 뜻의 Al-Maghrib라는 단어에서 유래한다. 대체로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지역, 즉,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를 아우르는 지역을 말한다.
<http://blog.naver.com/sompat/220786835473>, (검색일 2020, 10, 20)

인데, ‘테러자금금지법’의 위반 사례는 처음 발생 하였다, UN안보리 등의 기관에서는 FT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고, 내국인에 의한 사제폭발물 제조, 차량 돌진 등 외형적으로 테러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중인 점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ISIS 추종 국내 체류 무슬림에 의한 테러 위협, 내국인의 유사테러 범죄, 드론 등 신종테러 수단이 당면한 위협 요인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ISIS의 선전 강화 등과 맞물려 무슬림들이 테러단체를 지지 하거나 가담을 조장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ISIS 퇴패 이후 시리아를 탈출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출신 FTF 등이 조직원과 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난민이나 근로자로 위장하여 잠입을 시도 할 가능성과 함께 내국인의 테러단체 선동에 동조, 정치, 경제, 사회적 불만 등 다양한 상황에 기인한 외로운 늑대 형 테러 또는 유사 테러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ISIS·알카에다 등의 직접적인 테러대상은 아니며, 테러기도 등의 위협 징후 또한 없었으나 ISIS 등 테러단체들이 국내를 테러자금 모집 및 아편 등 마약 밀매, 조직원의 잠입이나 은신처로 악용하며 병참기지화 하려는 등 다변화 양상⁵²⁾ 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테러정세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출신의 FTF 들이 이슬람 커뮤니티를 형성 하는 등 정착여건이 좋은 국내에 근로자, 난민 등으로 위장 잠입 할 가능성⁵³⁾ 을 배재하기 어렵다.

ISIS 등 테러단체들은 코로나의 장기화 속에 온라인 선전과 선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동조하는 추종자들의 테러자금⁵⁴⁾ 을 지원하는 등 연계활동 및 세력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외 체류 국민들 또한 7월부터 유럽, 중동 일부 국가의 외국인 입국 허용 등으로 중동, 아프리카 등 위험지역에서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나이지리아 등 동 아프리카 및 필리핀 등 동남아 해상에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난 가중에 편승한 우리 선박, 선원 해적 피해 재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52) “금년 상반기에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중앙아시아인 3명, 시리아 FTF 활동 및 테러자금법 위반 러시아인 등 총 4명을 사법처리 하였음“. 경찰청 통계, (검색일 2020, 11,25)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2.jsp>

53) “국내 이슬람 종교시설 166개, 집거지 44개소 등 커뮤니티가 형성 됨“. 경찰청 통계, 2020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2.jsp> (검색일 2020,11,25)

54) “ISIS는 4천여개 SNS 계정 확보를 주장하고 사상 유포 및 테러자금 모금에 활용 함”

『국가테러대책위원회』,2020

제4절 뉴테러리즘의 수단 및 유형 분석

1. 폭발물 테러

가. 유형

폭발물은 테러사건의 약 30%를 차지하는 상습적인 유형이다. 폭발물을 이용한 공격은 테러리스트에게 있어서 가장 성공적으로 테러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면서도 적발되거나 체포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 기폭장치의 이상으로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광범위한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게 되고,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테러 공격의 형태가 되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대인공격(Antipersonnel attack)’, ‘상징적인 목표에 대한 공격(Symbolic target attack)’, ‘선택된 목표에 대한 공격(Selected target attack)’, ‘지속적인 폭탄공격(Suatained bombing compaing)’ 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대인공격(Antipersonnel attack)’은 폭발 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도록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해 놓은 폭발물을 말한다. 혼잡한 도시의 거리에 폭발물이 장치된 자동차를 주차 시키거나 폭발물을 가득 실은 차량을 건물이나 특정 지역으로 돌진 시키는 ‘소프트 타겟’ 형태이다. 이런 테러 폭발물 테러의 일반적인 요소는 테러범의 생명을 포함하여 인간의 생명에 대한 철저한 무시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상징적인 목표에 대한 공격(Symbolic target attack)’이다. 상징적인 폭발물 공격은 일반적으로 ‘하드타겟’에 속하는 정부청사나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기업이 나 역사적인 기념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공격을 위해 사용되는 폭발물은 일반적으로 사상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에 설치된다. 이런 목표물의 공격에는 경고성 전화나 SNS를 통한 게시물을 통해 예고를 사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특정 조직이 자신들의 행위임을 주장하기 위한 방법이고, 테러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한다.

세 번째로 ‘선택된 목표에 대한 공격(Selected target attack)’이다. 특정 장소나 개별적인 목표를 대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대인공격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테러는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 이들 소유의 건물, 재산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네 번째로 ‘지속적인 폭탄공격(Suatained bombing campaing)’이다. 이런 형태는 감옥에 갇힌 테러범이나 조직원의 석방과 같은 사안에 대한 주위를 끌기 위해 행해지는 방법이다. 이런 네 가지의 유형과 합하여 테러에 사용되고 있는 폭탄의 종류는 편지, 소포 폭탄 등의 비교적 소형의 폭탄에서부터 자동차와 항공기를 폭탄으로 사용하는 대형 폭탄까지 매우 광범위 하다.

나. 유래

폭발물 테러는 장치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그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시중에 화공약품상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화공약품을 간단히 배합하여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테러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다.(정상태, 2011)폭발물은 테러범들이 이용하기 가장 쉬운 형태의 수단이며 이는 미국 GTD(Global Terrorism Database) 통계에서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⁵⁵⁾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테러 사건 중 70% 이상의 테러사건이 폭발물 테러로 추정되며,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폭발물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테러범들이 사용하기 쉬운 것들이 신속하게 제작 할 수 있는 급조폭발물(IED)⁵⁶⁾ 또는 사제폭발물(HME)⁵⁷⁾ 이다. 급조폭발물의 시초는 1970년대 영국군과 전투를 벌이던 IRA(Irish Republican Army: 아일랜드 공화국군)가 농업용 비료로 혼합한 ANFO⁵⁸⁾나 유기탄 으로 부비트랩을 만들어 사용하던 것이 살상효과가 우수하여 영국군이 사제폭탄이나 부비트랩 이란 명칭 대신 IED 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면서 유래되었고,⁵⁹⁾ 현재는 IED와 HME로 세분화 되었다. 이런 형태의 급조된 폭발물은 전쟁에서 군사적 약자가 상대적으로 강한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 1, 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화염병 형태로 제작하여 운용 되었으나, 그 위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6.25 전쟁 및 베트남전 등에서 적합한 발사 장치를 갖추지 못한 전시상황에서 노획하거나 유기된 포탄 등을 이용한 급조폭발물이 제작되었고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더욱 발전 되었다.(오세한, 2013) 최근에는 다양한 제품의 화약류와 일체의 폭발성 물질을 이용하여 폭약을 직접 제작, 사용하고 있다. 또한 9·11 테러처럼 연료가 충만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폭발시킴으

55) 박주희. “한국의 폭발물 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국민대, 석사학위논문, 2018, p. 23.

56) Improvised Explosive Device.

57) Home Made Explosive.

58) Ammonium Nitrat Fuel Oil. 질산암모늄과 경유를 혼합 비율에 맞춰 제작하여 사용 하는 폭약. 폭발속도는 2,500~3,000m/s 이며 저렴하고 마찰, 열 등에 둔감한 특징, 『한국광물자원공사』 마이닝센터, 2014. p. 11.

59) 오세한. 사제폭발물 사례분석을 통한 대테러대책 효율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3, p. 6.

로 폭발물의 기본 구성을 갖추지 않아도 연료 자체가 폭발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줌으로 해서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테러가 또 다른 형태로 발전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한재훈, 2013). 이처럼 비표준 폭발물인 사제폭발물, 급조폭발물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 구조

비교적 손쉽게 제작이 가능한 사제, 급조 폭발물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 졌는지 우리는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로 Power(전원), Initiator(기폭), Explosive(폭약), Case(용기), Switch(스위치) 로 나누어 정리하며, 줄여서 'PIECS'로 부르기도 한다. 주 장약은 화약류 및 화공약품을 사용하며, 기폭장치는 뇌관 등을 말한다. 거기에 폭발물이 담긴 용기로 구성이 된다. 주 장약은 폭발의 근간이 되는 폭약을 총칭한다. 군용폭약부터 상용폭약, 질산암모늄과 같은 화공약품 등이 사용된다.

여기에 살상효과를 높이기 위해 쇠구슬, 볼트, 너트, 못 등을 추가하여 장치한다. 혹은 황산, 염산, 프로판 탱크, 연료캔 등을 추가하여 폭발효과를 높이기도 한다. 기폭장치는 주 장약을 폭발시키는 장치로서 주로 전기뇌관과 비 전기뇌관을 사용하며, 뇌관을 폭발시키는 방법에 따라 유선점화, 무선점화, 시한점화, 부비트랩, 센서 감응 점화 등으로 나뉜다.⁶⁰⁾ 용기는 급조, 사제 폭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감싸고 있는 모든 물체를 말하며, 외부를 감싸는 용기를 이용하여 파괴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⁶¹⁾

라. 위력

그렇다면 과연 이런 폭발물들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기에 우리는 '위험 하다' 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폭발이 발생하면 충격파, 폭풍, 파편, 화염 이 네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급격한 에너지 방출과 함께 열, 빛 고온의 가스가 순간적으로 방출되고, 가스의 급팽창에 의한 충격파가 형성이 된다. 충격파(Pressure wave)는 폭발 시 발생한 압력이 인접한 계로 극히 빠른 속도로 전달되는 압력파이다. 니트로글리세린 1L가 폭발하면 이때 발생하는 전파속도는 5,500m/sec로 아주 강력하다.

폭풍효과는 폭발 시에 공기 속에서 초음속으로 전달되는 충격파를 따르는 공기의 흐름을 말한다. 폭발 시 방출되는 에너지는 대부분 폭풍으로 전환된다. 이때 화학적인 폭

60) 한재훈. “사제폭발물의 위험성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학회지, 2014 Vol.16. No.4,p. 13.

61)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례로 폭발물의 용기를 압력 밥솥을 사용하여 압력솥 자체의 압력억제 기능으로 인해 소량의 폭발물로도 상대적으로 큰 폭발력을 발휘한다. 또한 압력솥 자체의 파편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7001951072>
(검색일 2020,11,10)

발에 의한 폭풍은 후폭풍이 발생한다. 하지만 물리적인 폭발은 순한 압력의 해소 이므로 후폭풍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파편효과가 나타난다. 케이스 등 폭발물의 관체가 폭발에 의해 파편으로 되어 비산하는 효과로서 관체의 재질이나 형상, 폭약의 종류 및 충전 비율에 따라 매우 상이하며, 폭발물 용기의 파편을 1차 파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속도는 약 800m/sec에 달한다. 1차 파편과 충격하거나 폭풍 및 폭압에 의해 주변 기물이 파손되어 생기는 파편은 2차 파편으로 보며 폭약 자체의 직접폭발로는 1차 파편이 생성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효과는 화염이다. 폭약루나 폭발성 혼합가스 폭발 시에 발생한 열은 빛의 속도로 주변에 전파 되며 이때 발생하는 열은 약 2,000~4,000℃이다. 폭발에 의해 발생한 열은 곧 소멸하나, 대부분 주변의 가연물에 인화하여 2차 화재를 유발하는 현상을 보인다.⁶²⁾

폭약은 주 폭발물질 외 다양한 물질을 첨가하여 위약이나 감도, 열량 등을 조절하여 최적의 폭발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점점 고도화 되어가고 있다. 구성을 살펴보면 산소공급제, 연료, 예감제, 결합제, 표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소공급제란 폭약은 성분 자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폭발에 필요한 최적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산소공급제를 필요로 하기 도 한다. 산소의 부족 시 폭발의 위력이 감소하거나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사용하는 물질로는 질산나트륨(NaNO), 질산암모늄($\text{NH}_4 \text{NO}$), 염소산칼륨(KNO)등이 있다.

그 다음은 연료(fuel)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폭약성분과 혼합물 내에서 전자를 받는 기능을 하며,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물과 열을 발생 시키며, 주로 알루미늄, 목탄, Oil, 설탕 등이 사용된다. 둔감한 폭약 또는 연속적으로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폭약에는 예감제(sensitizer) 라는 것을 첨가하여 기폭의 감도를 높이게 된다.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예민한 폭약을 사용한다. 그리고 폭약은 혼합되는 물질의 비중이나 밀도가 다르므로 장기간 보존 시 균질한 혼합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장기간 보존 시 폭약 입자간 마찰에 의한 기폭을 방지하기 위해 결합제(binder)를 사용하며, Trinitro benzene 처럼 밀도가 높고 에너지 전달력이 강한 고분자 물질을 사용한다. 이런 폭발물의 경우 불안정한 상태로 결합을 유지하고 있어 외부의 작은 충격에 의해 급격히 산화될 수 있는 물질이므로 장치 등에 선불리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강력한 폭발물질을 비교적 손쉽게 구하고, 제작하여 수많은 단체에서 여러 가지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62) 최창호. “폭약폭발 현장 감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p. 20.

마. 해외 사례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1995년 4월 19일에 미 ‘오클라호마 시티’ 연방정부청사 폭탄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미 중남부 오클라호마 주 오클라호마시티에서 9층 상당의 연방정부청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한 것이다. 테러범 ‘티모시 맥베이’는 화학 비료인 질산암모늄과 디젤 유를 혼합하여 사제폭탄 2.3t이 실린 트럭을 청사 앞에 주차하고 근무 시작 시간에 맞춰 2분짜리 퓨즈를 점화시킨 뒤 현장을 이탈하였다. 범인은 도주 중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수상히 여긴 경찰에 체포 되었다. 당시 폭발로 인해 청사 건물의 50%가 파괴 되었으며 인근 건물 324동, 차량 86대가 파손 되었고, 연방 공무원 99명을 포함하여 168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수사당국은 초기에 2년 전 세계무역센터에 테러를 저지른 알 카에다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하였으나, ‘티모시 맥베이’가 검거되면서 자생테러로 결론지었다. 범인은 민병대 활동 등을 하던 백인 우월, 반정부주의자로 연방정부의 신흥종교 다윗파 강력진압사건(93,4)⁶³⁾에 반감을 품고 2주년에 맞춰 테러를 실행하였다. 법원은 ‘티모시 맥베이’에게 1급 살인을 적용하고 사형을 집행(01.6)하고 폭탄제조를 도운 공범 ‘테리 니콜스’에게는 종신형을 선고 하였다(97,6). 2001년 9·11 테러 이전 미 본토에서 발생한 최대의 테러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당시는 자생적 극단주의 테러에 익숙하지 않았던 미국 내 백인남성(퇴역군인, 걸프전 무공훈장)에 의한 극우테러 발생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최근에는 20,8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역시, 보관 중이던 질산암모늄 ‘2750톤’이 폭발해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미 의회는 초당적인 지지로 피해자 보상의무, 해외테러조직 지정 및 입국제한, 테러리즘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적인 테러대책을 담은 ‘테러방지 및 효과적인 사형 선고법’ (AEDPA)를 제정하고(96,4) 대테러 법령이 강화되는 기회로 삼았다.

다음으로 2015년 11월 13일 발생한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이다. 이 사건으로 130명이 사망하고, 352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ISIS 조직원 10명이 3개 조로 차량 이동하며 파리 도심 6곳에서 테러를 자행했던 사건으로. 당시 ISIS는 11.14 무함마드 모욕 및 시리아 공습에 대한 보복 이라며 배후를 자처하였다. 축구장, 식당, 공연장에서 각각 발생하였으며, 생드니 축구장 공격조(4명)은 경기 중에 진입을 기도하였으나 보안검색 과정에서

63) ‘93.4.19 텍사스 웨이코 에서 FBI의 다윗파(종말론)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화제로 신도 76명이 사망한 사건. http://plusnews.koreadaily.com/texas_waco/, (검색일 2020,10 21)

제지당하자 TATP⁶⁴) 조끼를 착용한 3명은 각자 다른 출입구 부근에서 자폭하였고, 1명은 도주하였다. 이때 축구를 관람 중이던 ‘올란드’ 대통령은 긴급 대피 하였다.

식당 공격조 (3명)는 시내 음식점과 카페 4곳을 돌며 총기 난사 후 1명은 자폭하고, 2명은 도주하였다. 공연장 공격조(3명)는 미국의 록밴드 그룹의 공연이 진행 중이던 바타클랑 극장에 난입하여 총기난사 후 인질극을 벌이다 진압과정에서 전원 자폭하였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 당국은 즉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도주하거나 연루된 범인을 추적하고 군사적인 보복을 단행하였다. 당시 벨기에와 협조하여 도주범 3명 전원을 사살하고 1명을 체포하였다. 핵 항공모함을 동원하여 ISIS 핵심거점인 ‘시리아 락카’(11,15)와 이라크 모술(11.23)을 공습 하는 등 강력한 응징을 하였다. ISIS 지휘부의 주도하에 FTF 3명과 난민위장 ISIS 조직원 2명 등에 의해 자행된 기획테러로 ISIS의 반 서방테러의 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된 테러이다.

사전에 콘서트홀 테러첩보를 입수하고, 바타클랑 극장 공격 경고가 있었으나 당국이 이를 무시하면서 최악의 테러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테러(191명 사망) 이래 유럽 최대의 테러 사건으로 기록 되었으며, 범인 10명이 축구장, 식당가, 공연장 등 소프트 타겟에 무차별 공격을 가한 점에서 인도 뭄바이 연쇄테러 (08,11, 사망 166명, 부상 304명)와 유사한 수법으로 밝혀졌다.

바. 국내 사례

국내에서 발생했던 폭발물 사건사고는 크게 표준제품과 비 표준제품에 의한 사고로 구분할 수 있다.(정상태, 2011) 표준제품이란 수류탄, 지뢰 등 군용의 규격 폭발물과 민수용의 다이너마이트, 연화 등 상용폭약류를 의미하며, 비 표준제품이란 표준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기타 폭발물을 모두 포함한다. 국내사건, 사고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표준제품에 의한 사고가 많았지만, 점차 비 표준제품에 의한 사건사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 불만 세력이나 개인적인 원한관계 등에 의한 범죄형 사건들은 제품화된 폭약 보다는 인터넷이나 발파문헌 등을 입수하여 폭탄제조법을 입수하여 급조하고 있으며, 질산암모늄 폭약이나 폭죽용 연화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TATP’의 제작사례 까지 발생하였다.(이종한, 2011)

64) 최창호. “Tri Acetone Tri peroxide, 유기 과산화계 고성능 폭발물로 1985년 독일의 화학자 ‘Richard Wolfenstein’ 가 발명하였다. 백색의 결정성 고체로 과산화수소와 아세톤으로 쉽게 합성이 가능하여 테러범들이 자주 사용하며, 폭발속이 5,300m/sec에 달하고 충격이나 마찰에 매우 민감한 폭약으로 ‘사탄의 어머니’란 별칭으로 불린다”, 『폭약폭발 전문 감식』, 국과수, 2018, p. 12.

< 표 - 5 > 국내 주요 폭발물 사건사고 및 사용폭발물, 원료물질

순서	폭발물 사건사고	폭발물	원료물질
1	김포공항 폭발사건	C-4(추정)	RDX90%, 가소제10%
2	대한항공 858기 폭발사건	C-4, PLX	C-4: RDX90%, 가소제10% PLX: Nitromethan 95% Ethylenediamine 5%
3	부산 크라운 호텔사건	TNT	Trinitrotoiuene
4	미 대사관 폭발사건	미상(화공약품)	-
5	서울청사 버스인질사건	폭죽용 화약	염소산칼륨, 마그네슘, 황 알루미늄 등
6	서울 창동빌라 폭발사건	폭죽용 화약	염소산칼륨, 마그네슘, 황 알루미늄 등
7	대전 부킹나이트 폭발사건	딱총화약, 메틸알콜	질산칼륨75%, 탄소(숯)15% 황10%
8	경기 양주 꿈의궁전 폭발사건	염소산칼륨, 니트로벤젠	염소산칼륨, 니트로벤젠
9	용산 원효사 지구대앞 폭발사건	ANFO	질산암모늄, 경유
10	대구 시민운동장 폭발사건	ANFO	질산암모늄, 경유
11	CGV 협박사건	흑색화약, 신너	질산칼륨75%, 탄소(숯)15% 황10%
12	CJ 엔터테인먼트 협박사건	흑색화약, 신너	질산칼륨75%, 탄소(숯)15% 황10%
13	강릉 국민은행 사건	황, 인, 염소산염	황, 인, 염소산염
14	서울역, 고속터미널 사건	염소산칼륨, 황, 마그네슘, 알루미늄	염소산칼륨, 황, 마그네슘, 알루미늄

※ 출처 : 2011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 19p

2013, 3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부근의 상점에서 과산화수소와 염산 등을 구매하여 실험실 용기에 혼합, 2일 동안 생성하는 방법으로 약 15g의 백색화약 ‘TATP’를 만든 것이다. 이들은 민간인 로켓연구회에서 활동하는 이들로 폭죽 실험을 하기 위해 재료를 구입하여 주변 밭에서 실험을 무사히 마치고 귀가 하던 중 폭약을 보관해둔 시험용 용기 뚜껑을 비틀어 여는 순간 폭발하여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면서 발견된 사례이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한 재료들이 많고, 공사현장에서의 상용 폭약 도난 등 큰 테러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폭발물에 대한 경각심은 느슨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미 FBI 에서는 사제폭발물 공격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제 폭발물 제작 시 이용 가능한 화학물질을 권고 한바 있다. 사제폭발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는 질산암모늄,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니트로메탄, 농축 질산, 농축 과산화수소, 나트륨, 염소산염, 염소산칼륨, 과염소산칼륨 등이 있다. 특히 질산과 요소, 과산화수소와 아세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요소와 아세톤은 목록에서 제외 되었으며, 질산과 과산화수소는 목록에 추가 되었다(정상태, 2011). ‘TATP’ 와 같이 혼합되었을 경우에 폭발성을 가지는 화학 물질들을 주 대상으로 한 것이다.⁶⁵⁾

이밖에도 사제폭발물을 제작할 수 있는 재료를 구하여 제작이 가능한 폭약은 백색화약A ,C, 톱밥폭약, 알루미늄 폭약, 등유 폭약, 텔미트 폭약, 플라스틱 폭약, 염화나트륨 폭약, 탄소 폭약, 벤젠 폭약, 질산암모늄 폭약, 니트로 메탄 폭약, 질소비료 폭약, 요소 질산염 폭약 등이 있다. 이런 폭약들은 원재료의 획득 가능성이 용이 할 때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유통 중인 상용 화학물질(비료, 화공약품, 유독물질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법적인 제한과 제도적인 접근곤란으로 공식적으로 평시에 표준 무기화 및 상용화된 폭발물을 획득할 수 없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테러리스트들이 합법적 수단으로서 원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획득의 용이성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등의 지역에서는 요소비료를 사용한 IED가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듯 사제폭발물의 제조가 가능한 화학물질의 목록과 국내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 외 사례 조사 및 국내의 관리현황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65) 정상태. “사제폭발물 제조가능 화학물질 관리방안 연구“,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 2011, p. 8.

2. 총기 테러

가. 무기의 접근성

우리나라의 총기 사건 같은 경우는 과거 안보 특성상 대공 관련 사건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총기에 의한 자살이나 타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총기 강도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불법 사제 총기류에 의한 안전사고 및 허가된 수렵총기에 의한 사고, 그리고 밀반입 무기에 의한 강력 사건, 테러 등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긴박한 국제정세와 잦은 대형 국제행사 개최로 국제 테러 집단에 의한 위험성마저 상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테러의 사회적인 요인 중에 무기의 접근성(Access to Weapons) 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총기 등 무기류와 관련하여 법률이나 헌법 등으로 명시하여 총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각 국가마다 역사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1세 성인은 누구나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미국의 독특한 소문화의 형태인 총기 문화는 수정 헌법 2조⁶⁶⁾에서 개인의 총기 보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정현수, 2014). 이는 개인의 총기 휴대가 자유국가의 수호와 자기방어를 위한 전통의 산물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총기 휴대는 폭력범죄를 증가시켰고 총기는 살인 범죄의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적이지 않은 개인적 목적달성에 가장 유용한 수단이 바로 총기 이다. 이처럼 테러의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총기를 테러 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테러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과거에는 칼을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휴대성, 간편성, 그리고 은닉성의 좋은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하고 있다(정현수, 2014). 뿐만 아니라, 공포효과 및 다량 살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하고 있어 효과성과 접근성 용이는 의도하고자 하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쉽게 테러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어 테러발생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66) 수정헌법 제 2조 :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A well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https://www.voakorea.com/world/3147455>, (검색일 2020,10 9)

테러발생요인 중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된 폭력범죄와 무기 접근성은 멕시코의 사례연구를 통해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멕시코의 테러는 마약 거래에서 오는 마약 카르텔간 혹은 마약 카르텔과 정부, 그리고 일반 시민사이에서 이들의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과 관련되어 발생한 테러를 마약테러리즘이라 하고 있다. 조직의 이익,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이들의 폭력범죄와 불법 무기류의 유통은 멕시코에서의 테러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⁶⁷⁾. 이러한 해외의 사례는 총기의 판매나 소지를 금지하는 우리나라 여건과는 다른 사례가 대부분 이지만, 국내에서도 모방, 충돌범행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나. 종류와 위력

법률에 의한 총포의 분류를 보면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 총포와 공기총’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종류만 해도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용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 타정총, 구멍줄 발사총 등 수많은 종류로 분류 되어 있다. 이러한 총기류의 구입 등 유통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지만, 개인이 모형 총기류 등을 구입하여 개조를 통해 탄환 발사가 가능한 사제총기로 개조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모형총기류는 압축가스의 힘으로 탄환을 발사하는 에어건, 전동 모터를 구동하여 공기를 압축하는 방식의 전동건, 실제 총기의 구조와 작동이 동일한 형태의 모형총기인 모델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마 살상이 가능한 탄환 에너지는 약 60J⁶⁸⁾ 이다. 5.56m 소총탄의 운동에너지가 900J 이므로 비교하면 아주 적은 수준이지만 저 또한 인마 살상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이야기이다.

모형 총기류의 탄환 운동에너지는 국내법에서 0.2J 을 초과할 수 없고 ‘에어건’이나 ‘전동건’은 총기의 구조상 실탄의 발사가 가능한 총기로의 개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탄환의 운동에너지 또한 최대 5J 이상으로 늘리기 어렵다. 하지만 실총과 구조가 같은 모델건의 경우는 실탄 발사가 가능한 총기로 얼마든지 개조가 가능하다. 간혹 해외에서 장식용으로 수입되는 ‘화승총’이나 ‘수석총(flintlock pistol)’ 중에는 인마 살상이 가능한 총기류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67) 정현수. “테러발생에 미치는 주요원인 분석”, 서울대, 2013, p. 98.

68) Joule, 줄은 에너지, 열량의 국제단위계 유도 단위이며 기호로 J를 사용한다. 1J은 물체에 1N의 힘을 가해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1m 이동했을 때 힘이 물체에 해준 일이다.

<http://m.blog.naver.com/novles/150167899748> (검색일 2020,11,2)

국내에서도 이런 모델건의 개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2003년 대구 권총강도의 용의자는 ‘Colt M1911’ 권총과 ‘Beretta 85FS’ 모델건의 플라스틱 슬라이드와 총열을 금속으로 교체하여 실탄 발사가 가능한 총기로 개조하고 황동 봉을 선반으로 가공한 탄피, 납을 주조한 탄환, 산탄 실탄의 뇌관과 화약을 이용하여 시제 실탄까지 제작하여 실총의 70% 수준의 위력을 가진 총기를 제작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총기류 형태를 갖춘 모델건을 개조하는 방법 이외에도 총기의 발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구조인 총열, 약실, 격발장치를 갖추어 실탄 발사가 가능하게 제작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제총기는 총열에 강선이 없으므로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근거리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며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공기총이나 가스총을 개조하여 0.22 인치 실탄 발사가 가능한 총기류의 제작이 가능하며,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쇠구슬이나 산탄 발사가 가능한 총기류의 제작이 가능하다.

다. 각종 사례

2003년 상도동 재개발 지역에서 있었던 사제총기 사건의 경우 쇠파이프와 폭죽의 화약을 이용하여 발사체를 발사하여 직경 약 15mm의 쇠구슬이 1.7mm 두께의 철제 컨테이너를 뚫었으며, 피해자의 우측 무릎과 좌측 종아리를 관통하는 위력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2016년 ‘오패산 성병대’ 사제총기 사건에서는 피의자 성병대가 알루미늄 파이프와 폭죽 지관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사제 총기 17종을 제작하여 난사를 하여 경찰관 한 명이 피격,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⁶⁹⁾ 이처럼 직접 제작을 하는 방법 이외에도 정식으로 수렵용 총기로 등록을 마치고 경찰서 지구대에 보관 중인 수렵용 엽총으로 발생하는 사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총기 사건 중에 하나이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1994년부터 우리나라는 꾸준히 한해에 적게는 7건에서 많게는 30건이 넘는 총기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이나 중국에서 제작되는 실총과 동일한 형태를 가진 복제 총의 밀수 또한 문제가 되긴 마찬가지 이다. 비인가 시설 등에서 제작되어 유형과 불법으로 유출된 총기의 부품을 조립하는 형태의 총기로 문자의 각인이 정교하지 못하거나 실총과 상이하고 총변의 각인이 없어 사건 발생 시 추적이 어려운 특징이 있어 불순한 목적으로 밀반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총기 유통의 실태를 기반으로 테러에 사용하기 위한 총기를 준비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있다면, 분명 어렵지 않게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진다.

69) 최창호. “총기감식 전문교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 2018, p. 11.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총기로 저지르는 테러의 성향이나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해외의 사건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2019년3,15 뉴질랜드 남부 최대도시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 예배당 ‘모스크’ 2곳에서 호주국적의 남성 ‘브렌던 태런트’에 의해 발생한 무차별 총격 테러가 발생 하였었다. 군복차림을 한 범인은 이슬람 예배당에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금요 예배 중이던 신도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도주 중 체포되었다. 당시 착용하고 있던 헬멧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범행 장면을 페이스북을 통해 약 17분간 생중계하면서 게임을 하듯 테러를 자행하였다. 이민자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비디오 게임을 통해 가상 총격훈련 등 2년 전부터 구상을 하였고, 3개월간 본격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특히 뉴질랜드가 원래 목표가 아니었지만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도 이민자들이 있고,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다’ 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범행 장소를 선택하였다고 언급 하는 등 전형적인 반 이슬람, 이민정서에 기인한 백인우월주의 극우 테러로 테러 청정 지대로 인식이 높았던 뉴질랜드에서 최악의 대형 총기테러 발생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다.⁷⁰⁾

우리나라의 경우 이슬람 극단주의나 민족주의 등에 기인한 테러사건이나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테러 단체 등은 전무하지만, 조현병, 개인적인 보복, 사회불만자들의 외로운 늑대형 테러에 총기가 사용 되었을 때의 상황을 늘 염두 해 두어야겠다.

3. 차량 테러

가. 기본 유형

차량을 이용한 테러는 차량(Vehicle)에 폭탄을 탑재하거나 차량 자체를 공격 수단으로 테러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획득이 용이하고 저비용으로 대형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예전부터 자주 사용된 테러 유형이다(이승열, 2018). 최근 예는 테러대상이 민간으로 무차별 확산되면서 유명 관광지나 넓은 광장 등 다중 운집 장소를 대상으로 한 차량 돌진 테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방식은 차량으로 돌진하여 인명피해를 입히는 방법과 차량에 폭탄을 탑재하여 폭파 시키는 유형으로 구분되며, 두 가지 방법이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다량의 폭탄을 싣고 돌진하는 차량은 폭발물을 은밀하게 탑재할 수 있으며 원격조작에 의해 테러범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폭파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

70) “크라이스트 처치 테러 사건”,<https://www.bbc.com/korean/news-47578970> (검색일 2020,11,8)

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차량에 탑재된 폭발물은 폭발 시 파편, 열, 그리고 압력에 의한 파괴력으로 인접 시설물은 물론이고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데 폭발 시 파손된 유리와 부품들이 또 다른 무기로 변형되어 폭발 자체에 의한 인명 피해보다 이러한 파편들로 인해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전체 피해의 70%~80%를 차지하기도 한다⁷¹⁾.

나. 변형

차량 돌진 또는 폭발물 탑재 차량은 그 상태 그대로 시설이나 사람에게 돌진하는 공격 방식을 취한다. 이런 차량돌진 형태는 도구(차량)를 획득하기 용이하며 광장이나 시설물 등 목표로 하는 곳에 접근이 쉽고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일반인들로부터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니스 축제’ 테러나 독일 베를린 ‘성탄 마켓’ 테러 사례에서처럼 우발적이고 단순하여 사전에 적발이 쉽지 않아 ISIS 등 테러단체들은 차량돌진 테러를 선호하고 있으며 추종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공격을 적극 선동하고 있다(전중섭, 2020).

차량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테러가 지금까지는 차량 폭탄테러 위주로 발생했다면 점차 차량돌진 테러로 그 양상이 바뀌면서 2017년도부터는 폭탄테러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반면, 돌진테러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테러 대상에서도 군, 경 등 정부, 국가 기간시설을 뜻하는 일명 ‘하드타킷’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광장, 시장, 관광지 등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인 ‘소프트 타킷’으로 확장하고 있다. 차량돌진 테러는 강화되는 각국의 테러예방 대책을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한 ‘저비용 복합테러’로서 사전 계획 없이도 정신이상자 혹은 사회불만자 등 누구나 모방할 수 있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렌탈카⁷²⁾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차량획득이 쉬워짐에 따라 앞으로 더욱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71)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테러정보통합센터』, 2017, pp. 1~ 5.

72) 17.10.31 미 맨해튼에서는 우즈벡 출신의 ‘사이포프’가 임대한 차량으로 돌진 테러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테러정보통합센터』, 2017,

< 그림 - 1 > 차량 폭탄 탑재 시 폭발 피해 기준

ATF	차량유형	폭발물 최대적재량	치명상 유발 공중폭발 범위	최소 대피거리	유리파편 낙하범위
	Compact Sedan	500 pounds 227 kilos (In Trunk)	100 Feet 30 Meters	1,500 Feet 457 Meters	1,250 Feet 381 Meters
	Full Size Sedan	1,000 pounds 455 kilos (In Trunk)	125 Feet 38 Meters	1,750 Feet 534 Meters	1,750 Feet 534 Meters
	Passenger Van or Cargo Van	4,000 pounds 1,818 kilos	200 Feet 61 Meters	2,750 Feet 838 Meters	2,750 Feet 838 Meters
	Small Box Van (1.4 Ft. box)	10,000 pounds 4,545 kilos	300 Feet 91 Meters	3,750 Feet 1,143 Meters	3,750 Feet 1,143 Meters
	Box Van or Water/Fuel Truck	30,000 pounds 13,636 kilos	450 Feet 137 Meters	6,500 Feet 1,982 Meters	6,500 Feet 1,982 Meters
	Semi-Trailer	60,000 pounds 27,273 kilos	600 Feet 183 Meters	7,000 Feet 2,134 Meters	7,000 Feet 2,134 Meters

美 총기화재국(BATF) 폭발 피해기준

※ 출처 : 테러정보통합센터, 2017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다. 사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2016.7.14. 프랑스 남부의 세계적인 휴양지 니스 해변산책로에서 대형 차량돌진테러가 발생하였다. 테러범은 최대 국경일인 '바스티유 데이'(혁명기념일 7.14)에 축제의 불꽃놀이 등 행사 관람 차 운집한 3만 명의 인파를 향해 렌트한 19톤 짜리 대형 트럭으로 돌진하였다. 범인은 '05년 튀니지에서 프랑스로 이주하여 니스에서 배송트럭 기사로 근무 했던 자로, 테러 당일 현장에서 약 2km 거리를 갈지자(之) 형태로 약 70km 속도의 소속 주행을 하여, 대규모 인명 살상 후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현장에서 사살되었다. 당시 범인은 범행 전 'ISIS'와 '미 올랜도 총격사건' 등을 검색하고 주변에 ISIS지지 발언을 한 상태였다.

프랑스 당국은 수사결과 04년 분열증 및 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 증세를 보여 온 테러범이 1년 전부터 공범들과 테러를 모의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ISIS 연계증거는 찾지 못하여 결국 자생테러로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시 파리 폭탄테러(15.11) 직후 발령한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하게 했으며 이후 대테러법이 보강(16.7) 되기도 하였다. 차량을 직접 테러에 이용하는 전형적인 'Loiw-Teck' 수법으로 이후 세계 도처에서 '외로운 늑대형' 테러범들의 모방사건이 빈발하였으며, 누구나 실행이 가능한 테다 사건

예측이 곤란하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어 테러수단으로 급부상 바 있다. SNS를 통한 국제테러조직의 선전선동이 자생테러 확산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유럽 내 인터넷 규제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가 되었던 테러 사건이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내에서 극우주의자들의 BLM⁷³⁾ 시위 방해를 위한 차량돌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유사 형태의 대형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내 주요외신들은 ‘미 전역에서 BLM 시위대를 행해 고의 차량돌진 사건이 최소 66건 이상 발생했다’고 보도하였다. ‘06.7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에서는 KKK⁷⁴⁾단 지역책임자의 픽업트럭이 시위대로 돌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이 백인우월주의자의 소행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들은 ‘17.8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차량테러와 같이 시위대를 위협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는데 차량을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며 틱톡, 트위터 등 각종 SNS를 통해 ‘All Lives Splatter’, ‘Run Them Over’ 등 차량돌진을 선동하는 게시물까지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확산에 편승하여 세력을 확장중인 백인우월주의 세력들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차량을 이용해 대형 테러를 획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차량을 흉기와 더불어 손쉽게(Low-Tech)활용하는 테러수단으로 인식해 왔는데 ‘14.9 당시 ISIS 대변인 ‘일 아드나니’는 추종자들에게 “불신자들을 돌이나 칼, 차량으로 죽여라”고 선동한 이후 서구권에서 크게 차량테러가 유행하였다.

< 표 - 6 > 주요 차량돌진 테러사건

시 기	발생국	내 용
‘16.12	독일	베를린 크리스마스 야외시장에서 망명신청이 거부된 우 튀니지 난민 ‘암리’(24세)가 19톤 대형트럭으로 돌진, 12명 사망, 48명 부상
‘17.4	스웨덴	스톡홀름 백화점 인근에서 망명신청이 거부된 우즈베크인 ‘아킬로프, (39세)’가 30톤 대형트럭으로 돌진하여 5명사망, 14명 부상
‘17.6	영국	런던 브리지 및 인근 마켓에서 남성 3명(파키스탄계1명, 모로코계2명)이 승합차로 돌진 후 흉기테러, 8명 사망, 48명 부상
‘17.8	스페인	바르셀로나 람브라스 거리 등 관광지에서 모로코 출신 ‘아부야쿱, (22세)등이 관광객에 차량으로 돌진, 16명 사망, 132명 부상

※ 출처 : 테러정보통합센터 ‘주요 테러사건’

73) BLM (Black Lives Matter)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의미로 인종차별에 반대해 진행 중인 시민운동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Black_Lives_Matter (검색일 2020,10 25)

74) Ku Kulux Klan, 미국 남북전쟁 이후 테네시주 펠래스키에서 6명의 퇴역군인에 의해 탄생한 백인 우월주의, 반유대주의, 인종주의, 개신교 근본주의, 반가톨릭주의, 반동성애주의 성향 사이비 종교 및 테러리스트 집단이다. <https://www.voakorea.com/world/3225735> (검색일 2020,10,25)

유럽의 경우 차량테러가 발생하기 쉬운 여러 취약요인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광장, 테라스 등 야외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각종 쇼핑과 먹거리를 위해 오가는 시민들이 연중 끊이지 않는 곳들이 많았다. 이에, 차량돌진 테러가 예측 불가능한 만큼 주요 장소, 행사장 등에 차량돌진 방지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고 이런 노력과 적극적인 대응 결과 '18년 이후 유럽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차량돌진 테러는 주춤해진 상황이다. 해외에서의 차량테러가 빈발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시도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국가중요시설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인 지원으로 비교적 양호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 진입로에 '로드 블록' 을 배치하여 차량테러에 대비하고 있으며, 외곽울타리에 대한 추가 차단벽 도입을 추진 중 이기도 하다.

4. 드론 테러

가. 위협의 증가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국가중요시설 이나 공항부근에 드론이 출현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불법 드론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안티 드론에 대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드론은 침투에 따른 위협이 군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항이나 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유형의 테러에도 사용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드론(Drone)'은 무선 전파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를 말하며 무인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행체를 말한다. 1930년대 군사 정찰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벌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에 착안하여 드론(Drone)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이 드론은 통신 및 항법 장치와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여객, 화물수송 뿐만 아니라 전투나 정찰과 같은 특수한 임무 수행까지 활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항공법'상 드론의 정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이나 혹은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로 중량 150Kg을 기준으로 이하는 무인비행장치, 이상은 무인 항공기로 분류되며, 12Kg이상 드론을 상업용으로 운항 시 운항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드론의 특성 상 테러나 기타 상황 발생 시 대응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탐지 자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는 일부 국가중요시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드론에 대한 잡이 확보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시작은 군사용으로 시작되었지만 비약적인 기술발정을 거듭하여 지금은 항공촬영, 재난, 재해 감시, 구호,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더욱 확대가 될 전망이다. 그 이면에 점차 어두운 면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드론의 무기화로 테러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⁷⁵⁾

다양한 테러수단과 주체가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최근 테러조직은 테러 선동, 추종자 포섭, 무기 밀매, 자금 모금 등에 익명성, 보안성이 뛰어난 다크웹,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정찰, 공격용 드론을 사용하는 등 최신기술의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은 대테러 전략보고서(‘18.4)를 통해 다크웹을 통한 무기거래가 테러와 연계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또한 미 FBI 등 대테러기관은 드론테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고 나섰다(18.8).

또한 미 FBI 등 대테러기관은 드론테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고 나섰다(18.8). 이처럼 드론을 활용한 범죄와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원전이나 공항 등과 같은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하는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추적하여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안티드론 기술은 불법적인 드론에 대한 탐지-식별-무력화 의 3단계로 구분되는데, 드론의 탐지 및 식별은 주로 레이더나 드론의 무선통신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무력화는 주로 전파교란(Jamming) 방식이 사용되며, 전자적으로 드론의 운항을 방해하는 전파교란(Soft Kill)과 드론에 물리적으로 직접 타격을 주는 파괴(Hard Kill)로 구분하기도 한다.

나. 사례

2018년 드론 침투로 인한 큰 사건이 발생하였었다. 2018.12 영국 게트윅 공항에서 드론 침투로 인해 3일간 공항이 폐쇄되었고, 이로 인해 8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11만 명의 승객이 발이 묶였으며 수백억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사례가 있다. 만일 드론 침투로 항공기와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대형 참사가 일러날 수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또한 예멘 후티 반군 드론 공격이 2018.7 UAE 아부다비 공항공습을 시작으로 공군기지, 정유 시설, 그리고 미사일이 배치된 사우디 공항공습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후티 반군의 드론이 무서운 점은 100Km 상의 거리에서 드론에 미리 입력해놓은 목표지점을 향해 비행한 뒤 그대로 타킷을 향해 돌진하

75) 박준석. “국내 국가중요시설 드론, 무인항공기 테러공격 대응 방안”, 『대테러연구집』, 42호 2019, pp. 167~168.

는 공격을 하는 것으로 무선 조종을 하지 않아 라디오 주파수 스캔 탐색기로 탐지가 불가능 하고 드론 탐지 레이더로 탐지 한다고 해도 비행체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처할 시간이 매우 짧다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2018.8.4.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국가방위군 창설 81주년 행사에서 당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연설도중, 드론을 이용한 국가원수 암살 기도가 발생하였다.⁷⁶⁾ 대통령은 안전했지만 국가방위군 7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비롯하여 정부 고위 관리들과 요인들이 단상에 밀집 하였었다. 당시 현지 시각 17시30분경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TV 중계 카메라 영상이 흔들렸으며, 경호원들이 긴급하게 대통령을 보호했다. 드론 테러에 이용된 2대의 드론에는 반경 50m 범위까지 살상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C4 군용 폭약이 드론별로 각각 1Kg씩 탑재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19.2에는 러시아의 유명 무기 제조업체 ‘칼라슈니코프’⁷⁷⁾사가 일명 ‘자살드론’을 제작하여 공개하기도 했다. 이 드론의 넓이는 1.2m에 시속 130km의 속도로 비행하며 최대 3kg의 폭발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격형 사제 드론이 중동의 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드론마저 출시되자 테러 집단에 의한 악용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가장 심각한 드론의 군사적 위협은 ‘AI 드론의 별 때 공격이다. 만일 이런 AI 기술이 장착된 수십, 수백 대의 전투형 드론이 침투를 하거나 테러를 일으킬 목적으로 침입한다면 참혹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⁷⁸⁾

엄청난 비용을 들여 안티 드론에 대한 방어체계를 구축 했었던 사우디의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석유 정제 시설인 아브카이크 단지와 인근 쿠라이스 유전도 예멘 후티 반군의 무인기 18대의 공격 앞에 힘없이 파괴되어 전체 산유량의 50%에 달하는 하루 570만 배럴 생산이 전면 중단된 사례를 보면서 드론 침투 및 이에 따른 위협은 언제, 어느 곳이나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

다. 대응

이와 같이 드론 침투 및 이에 따른 위협은 언제, 어느 곳이나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불법 드론에 대한 대

76) 이시욱. “공항, 원전 등 국가 주요시설 대 드론 방어체계 구축방안”, 『DT&C』, 2014, p. 25.

77)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성능으로 테러 단체들의 기본 무기로 자리잡아온 AK 소총의 제작자 ‘칼라시니코프’가 만든 무기제조 업체. <https://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20, 10,12)

78) 이시욱. “공항, 원전 등 국가 주요시설 대 드론 방어체계 구축방안”, 『DT&C』, 2014, p. 54.

응을 간략히 살펴보면, 미국은 '18년 '신종위협 방지법'을 제정하고, 공항 당국이 드론 식별, 무력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안티드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은 '항공교통관리 및 무인항공법'을 제정하여(국회 계류 중, 10,16), 경찰에게 드론의 강제 착륙, 압수, 수색 등의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금년 6월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을 개정하여 '드론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항 상공 비행 시 퇴거, 훼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각국이 법 개정 등을 통해 드론위협 차단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을 엿볼 수 있다.

우리정부 또한 금년 2월 '드론테러 대책'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법, 제도 정비 및 기술 개발 지원에 착수 하였다. 우선 공항 등 국가보안시설에서 드론 무력화 장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파법을 개정(2020,6,9)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드론 실명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드론 식별 및 무력화 장비 개발에 더욱 주력하여 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23년부터 '드론탐지 시스템'을 전국 공항에 설치할 방침이다.

현재 'KAIST'가 개발한 '드론탐지 시스템'을 김포공항에 설치하여 시험 운영 중이기도 하다. 이렇게 불법 드론이 국민안전의 실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다가온 만큼 '안티드론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테러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이다.

5. 사이버 테러

가. 개념과 특성

사이버 테러는 정보시스템 망을 파괴시키거나 정보시스템에 침투하여 정보를 탈취해가는 방법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다. 사이버 공간이 오늘날 안보 위협의 주요 대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이 사이버 공간이 기존의 전통적인 차원의 현실 공간에 네 번째 차원의 공간으로 추가되는 의미 있는 삶의 공간으로 등장하였는데 반해, 기존의 현실 공간들과는 달리 이 네 번째 공간상에서 국가의 법집행과 안보활동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이다(Dogrul & Celik, 2011). 기존의 3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국가 공권력의 안보 및 대테러 또는 범죄대응활동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것이다. 반면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특성은 범죄자 및 테러리스트, 적대적 국가 행위자에게 상당한 힘의 증강(Force Multiplier) 효과를 만들어 내며, 기존의 사회 안전과 국가안보의 핵심 주

체인 국가 행위자에게 더욱 곤란한 과제를 안겨준다. 이런 사이버 공간은 기존의 현실 공간에 추가되면서 기존 공간에서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향들이 나타난다. 이는 사이버 공간이 기존의 현실 공간들을 시간과 공간적 한계를 넘어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테러와 안보위협 그리고 범죄가 맞물려 있는 다양한 상황의 양상은 적대적 국가들과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여러 범죄자들이 저비용으로 공격대상 국가들이나 사회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온, 오프라인의 테러를 개별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에 대해 개별 사례중심, 기술적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사이버공간의 확산과 정보화의 혁명, 기술의 발전과 초 연결 사회의 등장과 같은 미래사회가 초래하는 테러 위협의 질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⁷⁹⁾

나. 각종 사례

기존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접근들은 사이버 테러의 위협을 기술적 침해의 문제로 삼는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침해대응과 기술적 예방, 억제와 같은 문제로 이해하려는 측면이 있다. 즉 해킹 바이러스나 웹 바이러스의 유포, 논리폭탄 전송, 대량 정보 전송 및 서비스 거부 공격, 고출력 전자총 등의 기술적 방법을 통한 전산망의 교란, 붕괴, 특정 컴퓨터 단말기에 대한 공격, 교통, 금융, 전기, 수도 등 전자적으로 제어되는 모든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교란이나 공격, 스미싱, 보이스 피싱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대규모의 전산망 범죄행위 등 여러 가지 유형의 테러공격 또는 범죄 행위의 한 양식을 다루는 것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문종식, 이임영, 2010:21-27; 서동일, 조현숙2011:42-48). 하지만 이런 인식은 사이버 테러가 미래 사회의 환경조건과 결합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해지는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는 더욱 전문 적이고 정교할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리눅스 서버를 이용하여 새로운 백도어⁸⁰⁾ 삽입을 시도하는 공격이 동아시아, 중남미 지역의 리눅스 서버를 대상으로 유포 되고 있는 일이

79) 윤민우. “온,오프라인 결합 테러의 위험성 분석과 대책” 『대테러연구』, 제42호, 경찰청, 2019, p. 35.

80)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의해 컴퓨터의 기능이 무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컴퓨터에 몰래 설치된 통신연결 기능. <https://namu.wiki/w/%EB%B0%B1%EB%8F%84%EC%96%B4>, (검색일 2020,11,4)

지만 5월에 벌어졌다. 이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는 ‘Speak Up’ 이라 불리며 6개의 다른 리눅스 배포판에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을 하였다. 이러한 공격은 CPU 나 네트워크 점유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스크립트를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한글문서 파일(hwp)로 위장한 악성 코드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다. 정상 한글문서 파일이지만 악성 스크립트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한글 파일을 열람한 것처럼 정상 한글 파일을 화면에 표시한다.

스피어 피싱⁸¹⁾ 메일을 통한 공격 또한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외부에 공개된 메일 주소들을 통해 유입된 메일이 발견되었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유포 방식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메일에 ‘Excel’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첨부파일이 ‘html’로 위장한 ‘Excel’을 다운로드 하게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국내외 포털사이트 계정을 탈취하기 위한 공격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첨부파일을 이용하여 메일 발송 시 사전에 제작해 둔 피싱 경유지 링크 파일을 메일에 첨부하여 접속 시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피싱 공격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출처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 하므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단계 인증이나 해외 로그인 차단 등의 설정을 통해 예방을 할 수 있다.

2014년 블랙 햇 아시아 컨퍼런스 에서 글랜 월스킨 연구원은 ‘스누피’ 라는 해커 무인기를 개발, 시연, 비행 중 무선 인터넷망으로 가장하여 2피트(61cm) 이내의 스마트폰, 테블릿의 와이파이에 연결을 허락한 스마트폰이 보내거나 받는 모든 정보(아이디, 비번, 신용카드 정보, 위치 정보 등)를 다운받는 실험에 성공하였다. 무인기에 스마트폰 또는 라우터를 장착하여 해킹 경유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변조한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악성코드 예방용 보안 어플 설치로 위장하여 와이파이 이용자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메일을 보내 스파이웨어 또는 백도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감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⁸²⁾

또한,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해킹 및 사이버 테러도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의 74455’ 조직에서 일으킨 것으로 미, 영 사법당

81) 특정한 개인들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한 피싱 공격을 말하며, 공격자가 사전에 공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공격 대상에 대한 정부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피싱 공격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http://www.bloter.net/archives/221705>, (검색일 2020, 11,15)

82) 조현진. “드론 해킹으로 정보탈취”, 『보안뉴스』,가천대,2017,(검색일 2020,12,21)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4409>

국은 발표 하였다. 러시아의 정보 전쟁은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쟁과 심리전,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폭력적 공격을 위한 사이버 공간의 이용 등을 포괄적으로 통합한 개념이다.

사이버 공간과 안보에 대한 미국 등 서방과 접근이 다른 러시아의 접근의 핵심적 차이 가운데 하나는 정보의 내용(content)을 서방과는 달리 러시아는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위협이 ‘사회적, 인도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보내용의 이용의 위협’으로 표현 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세력에 의한 사이버 공간의 효과적 활용은 미국과 유럽, 동아시아 등 비 이슬람 권역에서 테러 자원들을 모집할 수 있게 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든다(Fides, 2010 September 29.) 또한 정보, 통신, 훈련, 자금, 지휘통제, 물자 및 무기 등의 지속적인 보급 역시 다크웹 등의 사이버 공간을 통해 손쉽게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사이버 테러의 피해는 가상공간에 머무른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 방식은 공격이 가상공간에서 머무르고 공격의 대상과 피해 역시 가상공간의 목표인 정보통신망, 포털사이트, 웹사이트, 단말기 혹은 여러 종류의 디바이스 들로 한정된다. 사이버 테러를 가상공간에 국한되는 가상의 폭력으로 단정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오류이다. 사이버 또는 정보통신과 관련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전략적 혁신은 점차 가상 폭력을 현실 폭력과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우선 공격용 사이버 무기의 개발은 향후 이러한 사이버 무기를 통해 교통시스템, 발전시설, 주요 산업설비 등의 통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오작동 시킴으로서 치명적인 폭발과 같은 인위적인 재난을 초래하게 만들 수 있다(윤민우, 2014). 또한 실제 현실폭력을 지원하는 통로로서 사이버 공간이 활용되고, 인터넷 망에 결합된 컴퓨터 자체가 이동하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온, 오프라인의 테러와 폭력의 결합 이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인력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제 3 장 외국의 대테러기관 법제도

제1절 미국

1. 대테러기관

미국의 테러대응체계는 정보를 기반으로 예방적 차원의 전략적인 접근에 대한 특징이 나타난다. 대테러 기관으로 국토안보부, 대테러자문위원회, 연방수사국, 국가대테러센터, 국가안전국 등을 설치하고 있다. 이 중 국토안보부가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9·11 테러 당시 기관 간의 업무협조와 정보공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인식에 따라 2002년 11월 25일 국토안보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되었다. 이는 세관, 이민국 등의 기존 조직과 사이버 대테러센터 등 신설조직을 산하 기관으로 하여 총 22개의 조직을 분리, 통합한 대통령 직속 내각 부서이다. 2003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 하였으며 근무인원 23만 명, 예산 400억 달러의 거대한 조직이다.

주요 소속기관으로는 관세국경보호국(CBP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민국(CIS :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해양경비대(USCG : U.S Coast Guard), 연방재난관리청(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이민관세집행국(ICE :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비밀경호국(USSS : U.S Secret Service), 교통안전국(TSA :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등이 있다. 주요 임무로는 정보수집과 경고, 국경 및 수송 안전, 국내의 테러 방지 활동, 주요시설 및 자원 보호, 테러로 인한 대참사 억제, 위급상황 대비 및 대응 등 매우 광범위 하다.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산하에 사이버안보국 내의 사이버 조정관과 국토안보부,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 국무부, 상무부, 등 실무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사이버 안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DNI 산하에는 사이버위협정보 통합센터(Cyber Threat Intelligence Integration Center, CTIIC)가 설치되어 사이버 위협과 사고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게 하였다. 국가안보회의(NSC)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최고의 심의 및 협의의 기관이고, 국가정보국(DNI)에는 산하에 국가대테러센터(NCTC)를 두어 정보공동체로서, 법집행기관, 군, 국토안보부 등 30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집한 테러 정

보를 취합하여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역할 및 기능을 담당하게 했다. 주 경찰은 자체적으로 대테러 진압부대를 운용하고 테러사건을 수사하지만, 그 이상의 권한을 넘어서면 FBI에 바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하는 구조가 자리 잡혀 있다. 미국의 대테러와 관련한 정부 정책은 전략기획과 세부계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테러 전략기획은 PPD-8(Presidential Policy Directive-8)⁸³⁾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PPD-8은 국가 재난대비 목표(National Preparedness Goal)를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경감(Mitigation),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와 같이 5개 임무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5개의 임무 영역은 테러와 재난으로부터의 위기와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기획, 정책 지침을 개발하고 법적 위임 사항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 PPD-8 중에서 ‘국가 예방 프레임워크(National Prevention Framework)’는 테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Homeland Security, 2013: 1-2).국가 예방 프레임워크의 목적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안보에 위협이 되는 테러활동과 테러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자료(intelligence and information)를 탐색 및 수사하는 것이다(Homeland Security, 2013: 2).

국가 예방 프레임워크는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 등 모든 관계기관에 적용되므로 연방정부의 각 유관부처 또는 기관의 장, 주지사, 시장, 경찰, 소방 부서, 지역 공동체의 장 등과 같이 주요 지휘관들은 테러리즘의 예방에 필요한 역량과 조정 기구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략적 지침을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는 연방수사국(FBI)의 합동 대테러업무팀(Joint Terrorism Task Forces : JTTFs),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대테러팀과 정부부처, 국토안보부, 사법 지원 업무부서 등 정보 혹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정부기관, 법집행 기관 그리고 국가 안전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직에서 핵심 역량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2. 대테러 관련 법제도

미국은 다양한 테러 공격에 따라 안보문제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한 후 기존의 대테러 관련법을 포괄하여 강화하였다. 대테러 법제도로는 연방국적법,

83) 대통령 전략 혹은 정책 지시를 의미한다. 대통령의 전략지시의 명칭은 정부별로 변해왔다. 레이건 대통령은 NSDD, 부시(GeorgeH.W Bush)대통령은 NSD, 클린턴대통령은 PDD, 부시(GeorgeW.Bush) 대통령은 NSPD. 오바마대통령은 PPD(Presidential Policy Directive)이다. , 『대테러 인권보호관』, 테러방지와 인권보호, 2019, p. 19.

대통령령 제39호, 애국법(USA Patriot of 2001)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애국법이 테러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법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애국법은 국가의 정보수집 및 수사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정된 것으로, 특히 국내외 테러행위의 저지 및 처벌과 법 집행기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총 10개의 장, 15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테러 국내안보 증진, 감시 권한 강화, 국제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테러수사에 대한 장애 요소 제거, 테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 핵심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 확대, 테러에 대한 형사처벌의 확대 및 강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⁸⁴⁾ 또한 테러 대책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테러 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직 및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근거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테러대응 컨트롤 타워로서 국토안보부(DHS)를 창설하기 위해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4’을 제정하였고, 미국 내 정보기관 간 정보를 통합하고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개혁 및 테러리즘예방법 ‘IRTPA,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을 제정 했다.

미국의 테러대응 체계는 경험을 축적하여 정보를 기반으로 예방적인 차원의 전략적 접근의 정책방향의 특징이 나타나며, 테러의 정보수집, 분석, 평가 및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공유 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재 미국의 정보수집·수사와 관련된 기본법은 ‘자유법(FREEDOM Act)’과 ‘해외정보감독법(FISA)’이 있다. 자유법은 업무 기록 요청, 전자 감시, 펜트랩(Pen/Trap) 장치 사용, 테러리즘 대응 및 기타 범죄 관련 정보 수집과 수사 절차에 관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수정할 목적으로 한 ‘해외정보감시법(FISA)’⁸⁵⁾을 개정한 법이다.

이 법은 대량의 정보 수집의 논란이 되었던 ‘애국법(PATRIOT Act)’ 215조와 ‘해외정보감시법(FISA)’의 펜레지스터 등을 금지시켰다. 다만, 이 법은 테러리스트 조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생적 테러리스트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외로운 늑대 조항(Intelligence Reform Act, §6001)’이나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꾸는 테러 용의자를 특정해 감청하는 권한은 그대로 유지했다. 미국의 ‘자유법(FREEDOM Act)’은 ‘애국법(PATRIOT Act)’의 큰 틀을 유지하며 기록수집 등과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이다.

84) “테러방지와 인권보호”, 『대테러 인권보호관』, 대테러센터, 2019, p. 21.

85) 해외정보감시법은 미국 정보기관이 외국인의 전화를 영장 없이 도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2012년 12월 28일 5년 연장이 승인되었다. 『테러정보통합센터』, 2018.

제2절 영국

1. 대테러기관

영국 역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테러대응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접근의 정책 방향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4가지 핵심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핵심원칙은 추적(Pursue), 예방(Prevent), 보호(Protect), 대비(Prepare)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추적은 영국과 해외에서 자국에 이익에 반하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고, 예방은 테러리스트가 되려는 자국민 혹은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자국민을 저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호는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항하는 강력한 보호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대비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완화 시키는 것이다.

대테러기관으로는 통합테러분석센터, 국가 테러리스트 금융수사국 등을 두고 있으며, 통합테러분석센터(JTAC)는 국제 테러리즘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하여 2003년 6월에 영국 정보국 보안부 산하에 설치되었다. 이 센터의 주요임무는 국내, 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제 테러리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평가하는 것이고 테러리즘 위협 수준을 공지하며 정보를 발령하기도 한다. 국가 테러리스트 금융수사국은 테러 예방활동에 있어서 전면에서 나서지 않고 후방에서 금융수사 및 추적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 실태와 규모 및 예산 등은 비밀로 하고 있다. 금융수사국의 주요 임무로는 테러리스트의 자금줄을 죄어 테러공격이 어렵도록 방해, 차단하는 것, 주요단체의 금융추적 및 감시를 통해 테러공격을 사전에 감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대테러안보실(OSCT)을 추가하여 테러사건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테러관련 법률제정을 지원하며, 대테러 작전 중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런던 경찰청 대테러 본부는 런던이나 영국을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내 극단주의자에 의한 공격을 차단하여 처벌하는 등 테러 예방 활동과 제지, 선제적 대응, 관련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정보보안부(MI5)와 비밀정보국(MI6)은 국내외 테러정보의 수집과 테러위험을 탐지하여 공유하고 정보통신본부(GCHQ)와 국방정보부(DI)는 정보기관이다.

정보보안부(MI5)는 내무부 소속으로 국내 테러 정보 수집, 국가 대테러 정책 제시, 광범위한 정보활동 등을 수행하지만 체포의 권한이 없다. 비밀정보국(MI6)은 국외 정보 및 해외에서 자국에 대한 테러 위협을 탐지한다. 정보통신본부(GCHQ)는

내각과 군 지휘관들에게 국방과 외교, 경제 정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신호를 제공하고, 국가 안보사항이나 테러 정보 수집 및 검증을 한다. 마지막으로 국방정보국(DI)은 군 관련 이외 테러 관련 정보, 대량살상무기 관련 정보의 수집과 평가, 그리고 생산한 정보 평가와 결과 자료를 정보 공동체에 배포하는 임무를 띄고 있다.⁸⁶⁾

2. 대테러 관련 법제도

영국은 대테러활동을 위한 다양한 개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대테러 정책과 관련된 법 중에서 특별한 입법영역을 수립하였다. 이 법들은 테러 활동과 테러 조직의 진압에 대한 법적준거와 테러리스트 단체의 확산을 방지하고, 테러로부터 영국의 강력한 회복(복원)력을 제공한다(Sarma, 2016: 10). 영국의 테러관련법의 특징은 테러가 의심되는 용의자 혹은 테러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권한, 그리고 테러자금을 미연에 차단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테러 단체의 불법자금 금융계좌 추적, 해외 테러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임시 출입국 금지명령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 제정된 수사권 법안, 일명 ‘엿보기 법’을 통해 경찰이나 보안 당국, 정부부처 등이 통신 업체와 인터넷 서비스업체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방문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였다.

2000년에 제정된 테러대응법, 2001년의 대테러범죄 및 안전보장법, 2005년에 제정된 테러방지법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테러대응법은 조직적인 테러행위나 테러리스트를 위한 자금조달 및 재정적인 지원을 규제하기 위해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테러조직의 지정, 테러목적의 자금 공여 금지, 경찰에 테러리스트에 대한 무영장 체포권한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테러 범죄 및 안전보장법은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테러방지를 위해 형사법 및 형사권한을 개정, 보강하였고, 독극물 등의 감시에 대해 명시하는 등 대테러범죄와 안전에 관한 규정을 한층 강화하였다.

나아가 이 법에서 출입국관리의 강화, 항공보안조치의 강화 등의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2005년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지정된 물건, 물질의 사용 및 소지 금지, 지정된 서비스 및 시설의 사용 금지, 특정 행동에 대한 제한, 거주지 및 방문자의 제한, 여권의 압류, 전자감시 및 사진촬영 강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⁸⁷⁾

86) 박재풍, “주요선진국의 테러대응체계에 관한 연구”, 『대테러 연구』, 42호, 경찰청, 2019, p. 24.

87) “테러방지와 인권보호”, 『대테러 인권보호관』, 대테러센터, 2019, p. 26.

위에서 언급했던 영국의 새로운 감시법인 ‘수사권 법안(Investigatory Powers Bill) 일명 엿보기 법(snooper’s charter)’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통신 업체에 이용자가 웹사이트, 앱, 그리고 메시징 서비스를 방문한 기록을 12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 정보는 경찰과 보안당국, 정부부처, 세관 등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정보당국과 경찰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웹브라우저에 대한 해킹을 더욱 쉽게 하도록 했다. 국내정보국(MI5), 정보통신본부(GCHQ), 국방부등 정보기관들과 경찰이 ‘사망, 부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장비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비 개입’은 컴퓨터나 다른 장비로부터 통신, 정보, 기타 데이터 등을 얻는 행위, 즉,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해킹하는 것을 뜻한다. 개인 정보들을 무더기로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정보기관들에 부여한 셈이다. 아울러 법원은 경찰이 요청 하면 언론의 통화 내역과 인터넷 기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하게 된다.⁸⁸⁾

제3절 독일

1. 대테러기관

독일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테러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에 기반한 조직을 중심으로 테러대응활동을 한다. 독일의 핵심 조직의 구성은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거나 특정 기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기 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해 테러에 대응하고 있다.

대테러기관으로 합동대테러방지센터, 통합인터넷센터, 연방범죄수사청, 연방경찰, 연방검찰청 등을 두고 있다. 특히 합동대테러방지센터는 9·11 테러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정보기관과 경찰 당국 간 시사적인 동향을 교환하며 초기 대응책에 관해 협의하기 위한 일일 정보브리핑, 입수한 정보를 기초로 공동으로 진행하는 위협 평가, 테러리즘에 대한 효과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안 평가, 장기적 관점으로 국제 테러리즘을 분석하는 조직분석 등을 주요임무로 한다.

여기에 연방 내무부와 그 산하의 연방정보기술 보안청(Federal Office for Information Security, BSI)을 중심으로 연방 경제에너지부, 연방 교육연구부, 연방

88) 박재풍. “주요선진국의 테러대응체계에 관한 연구”, 『대테러 연구』, 42호, 경찰청, 2019, p. 25.

국방부 등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방정보 기술보안청은 기술 업무뿐만 아니라, 사법적 임무를 총괄하고 집행하고 있다.

BSI 산하 국가사이버방어센터(National Cyber Defense Center, Cyber AZ)는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기대응을 주도하며 연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주체들을 총괄하는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방 내무부 산하의 연방범죄수사청(Federal Criminal Police Office, BKA)은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며 특별수가기관(Quick Reaction Force, QRF)을 설립하고, 연방헌법수호청(Federal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BFV)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외국 정보기관 및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2018, 김상배).

2. 대테러 관련 법제도

독일의 테러관련 법의 특징은 테러를 범죄의 규정에 따라 처벌 하도록 하고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 신설 및 개정을 통해 테러 대응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부여 하였다. 예를 들면, 2002년 발효된 ‘대테러법(TGB)’을 통해 ‘연방헌법보호청법’, ‘연방범죄수사청법’ 등 테러 관련법을 개정하고,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특히 경찰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2006년 개정된 ‘연방범죄수사청법(BKAG)’ 제20a조에서 제20x조를 신설은 국제 테러 위협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 감청, 비밀 정보원 및 신분 위장 경찰관 투입, 온라인 수색, 테러 혐의자 위치 추적 등 테러 대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대테러정보법(ATDG)’은 연방범죄수사청, 연방헌법보호청 등 총38개 대테러 유관기관들 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 대테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은 대테러 유관 기관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 간의 정보 교류를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물론 테러 대응을 위한 법상 권한들은 필요한 경우 최소한만 허용되며, 헌법상 요건들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의회 혹은 독립된 기관에 의한 사후 심사가 요구하고 있다.

예방 및 대응활동을 위해 조항법(2002) ‘Artikelgesetz’을 기반으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대테러활동을 위한 법과 테러공격 이후 발생한 살인, 폭발물 공격 등은 범죄로 규정하여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다. 대테러 법제도로는 대테러리즘 일괄법, G10법, 이민법, 대테러 데이터 베이스법, 형법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대테러리즘 일괄법은 단속의 대상에 종교단체 및 국외 테러리즘 조직 구성원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G10법은 우편, 전화 등의 비밀 불가침 원칙을 제한하는 것을, 이민법은 테러지지단체에 속한 외국인에 대한 국외추방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⁸⁹⁾

위와 같이 주요 선진국들의 법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각 국은 테러와 관련된 단일 법 보다는 개별법을 제정하여 보완적 형태로 가고 있으며, 테러의 유형이나 범주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정보 주도형 국가 대테러 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고 있으며, 각 유관기관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심의, 총괄, 정보통합, 수사, 정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여 상설기구로서 국가 대테러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과 독일의 접근 방식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은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지속적인 법 강화를 통해 ‘형법’을 개정하여 대테러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⁹⁰⁾.

89) “테러방지와 인권보호”, 『대테러 인권보호관』, 대테러센터, 2019, p. 4.

90) 박재풍. “경찰의 대테러 관련 법, 조직, 임무 재정비 방향 연구”, 『대테러연구 최종 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6, p. 162.

제 4 장 선제적 예방 기법 및 대응 방향

제1절 테러범죄의 특수성과 선제적 대응 방안의 필요성

1. 테러방지의 법적 근거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사회 전체를 공포상태에 몰아넣는 테러범죄의 행위 목적은 일반 범죄와 달리 매우 광범위하다. 또한, 테러범죄와 일반 형사범죄의 불법의 정도를 비교하면 테러범죄의 불법성이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테러범죄는 개인의 생명 및 신체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해하며 나아가 주권을 제약하는 등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러범죄는 일반범죄와 구별하여 별도의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불법성의 크기에 따라 일반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9·11 테러 이후 전쟁수준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며 그물망 조직으로 사전에 색출 및 예방이 어려운 뉴테러리즘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뉴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처방식이 요구 되었고, 구체적으로 테러범죄를 처벌하고 정보수집 활동 등을 통해 테러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UN 안전보장 이사회는 9·11 테러이후 ‘테러와의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을 결의하면서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가입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테러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를 신설, 개정하고 있으며, UN의 회원국인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기존의 일반범죄를 규율할 목적으로 법률을 통해 테러범죄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테러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테러범죄의 신설 및 가중처벌, 통합적인 테러대응기구의 설치, 효율적인 정보수집 및 통제절차 마련 등을 규정하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헌법 전문에서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의 확보를 추구하고 있고, 제5

조 제2항에서는 국군의 신성한 의무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37조 제2항에서는 기본권 제한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은 국가기관에도 테러 등의 폭력범죄를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의 의무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준수’를 규정하고 있고 제76조와 제77조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긴급 명령권과 비상계엄권 등 국가긴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며, 모든 폭력적 지배를 부정하고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테러방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테러와 같은 폭력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헌법의 요청이자 국가의 책무인 것이다.⁹¹⁾

2. 기본적인 대응 방향

1980년대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방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행정규칙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만들어졌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정부는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후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의원 안으로 테러방지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인권침해 및 국가정보원으로의 권한 집중 등이 논란이 되면서 매번 폐기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테러법안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2016년 3월 테러방지법으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테러사건에 대한 경험이 전무 하다 보니 전술 혹은 전략적 접근의 정책 방향 설정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앞서 미국, 영국, 독일의 대테러 제도와 법령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물리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테러 대응 보다는, 정보를 기반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에 기반 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한다.⁹²⁾

< 표 - 7 > 국외 대테러 제도의 비교

구 분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법	개별법 제정	개별법 제정	형법과 조항법	형법중심의 조문 제정
정책 방향	전략적 접근	전략적 접근	법안 강화	법안 강화

※ 출처 : 경찰청 대테러연구 제42호 29p

91) “테러방지와 인권보호”, 『대테러 인권보호관』, 대테러센터, 2019, p. 5.

92) 박재풍. “주요선진국의 테러대응체계에 관한 연구”, 『대테러 연구』, 42호, 경찰청, 2019, p. 34.

9·11 테러 이후의 테러리스트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테러공격에 대한 사후적 대응을 통해 테러리스트를 검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를 발생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테러공격을 사전에 차단 또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테러대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새로 제정된 테러방지법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에 관한 정보수집 등 테러예방에 관한 활동까지 확대하였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권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테러단체를 구성하려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하려다가 실패한 미수행위는 물론 그에 대한 예비 음모행위 역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테러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과 정보의 종합, 분석 및 판단을 관계기관 간에 공유하는 것이 요구된다.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에서는 테러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테러활동의 컨트롤 타워로서 대테러센터를 두도록 규정하여 기존 체제의 미비함을 보완하고 있고, 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할 때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의 역할과 임무, 목표설정 등을 명확하게 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국내에 대테러 정책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의 역할에 국내외 테러유형을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하여, 그에 따라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국내에 발생할 수 있는 테러공격의 위협을 최소화 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⁹³⁾.

제2절 선제적 예방 기법

1. 구조화 분석기법(Structured Analytic Techniques)

청사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테러사건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화 분석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기법은 미국의 정보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개발한 다양한 대안분석 기법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CIA와 FBI가 사용하

93) 박재풍, “주요선진국의 테러대응체계에 관한 연구”, 『대테러 연구』, 42호, 경찰청, 2019, p. 34.

고 있는 선진 분석기법으로, 정부청사 시설의 테러에 예측, 적용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이런 선진 기법 활용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은 위기관리 강화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구조화 분석기법은 정보분석관이 입수한 불완전하고 애매모호하며 때로는 기만적인 첩보들을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적 분석 방법인 것이다. 구조화 분석기법들은 일반적인 직관적 함정은 물론이고 특정한 인지적 편향을 피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하고, 목적의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법이다⁹⁴⁾.

이런 구조화 분석기법은 청사 방호를 수행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여야 할 광범위한 선택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직관적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테러대응 업무에 있어 자칫 범하기 쉬운 인지적 편향과 직관적 함정에 빠지지 않게 경계시키면서 새로운 대안을 확인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물론 항상 올바른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공식은 존재할 수 없겠지만 구조화 분석기법이 오류의 정도와 빈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⁹⁵⁾

우리가 사용할 ‘구조화분석기법’으로 구조화 ‘브레인스토밍’, ‘레드햇 분석’, 전형적인 ‘사단면 분할기법’, ‘지표도출’과 ‘지표 타당성 검증기법’ 등이 있다. 먼저 분석의 초기단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나 여러 갈래의 아이디어들을 종합하고자 할 때 구조화된 분석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 혼자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인데 이런 목적의 구조화 분석기법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구조화 브레인스토밍’이다. 이것은 특정한 규칙과 절차를 따르는 하나의 집단 과정이다. 이것은 초기의 적절한 변수들의 목록, 다양한 가설들, 핵심 행위자나 이해관계자들,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들,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결과들이나 시나리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 된다 (허태희, 2017).

일단 정부청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테러 상황에 대해 도표로 작성 하고, 테러 수법이나 수단, 방식에 대한 가설을 구성해 본다. ‘사분면 분할기법’을 이용하여 테러범이나 기타 위해세력들이 청사시설을 공격하는 모든 가능한 수법들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테러범들의 관점과 상황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선행 가설을 구성해 본다. 그리

94) 이길규 외 3명 공저, “정보분석 사례연구: 구조화 분석기법의 실제” (박영사: 한반도미래연구원) 2017, pp. 1~7.

95) 위의 책, pp. 10~19.

고 어떤 구성요소가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찾아낸다. 모든 시나리오를 정리하여 가장 신뢰할 만한 시나리오는 목록의 맨 위로, 낮은 것은 맨 아래로 배치하여 우선순위를 둔다(허태희, 2017).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사분면들은 선행가설과 대안적인 가설들을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성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공격자가 조현병 환자나 난민신청 거부자 인지를 구분하여 이들의 공격 무기가 흉기 인지, 인화성 물질인지, 수렵용 총기인지 혹은 소형 사제 폭발물인지, 장소는 청사 내 주차장인지 방문객 대기 공간인지, 단발적 일지 아니면 여러 명의 동시 다발적 형태인지, 동기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상 증오인지 난민 신청 거부에 대한 불만 표출인지, 이러한 경우의 수를 놓고 고려하면 수많은 조합이 생길 수 있다.⁹⁶⁾

< 표 - 8 > 청사 내 발생 가능한 테러 상황 가설

핵심 구성요소	선행 가설	대안적이거나 반박되는 가정들	
누가? (공격자)	조현병 환자	정부 정책 반대자	난민신청 거부자
무엇을? (무기)	흉기 및 인화성 물질	수렵용 엽총	소형 사제폭발물
어디에서? (공격장소)	방문객 대기 구역	주차장	외곽 출입문
어떻게? (공격방식)	단발적 사건	동시 다발적 사건	확장적 연발 사건
왜? (공격동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상 증오 (망상)	정책철회에 대한 항쟁	민원처리 불만의 누적
언제? (공격시간)	가까운 미래	특정한 일자	1년 내

이외에도 추가 분석사항으로 어느 시나리오가 가장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시나리오인지 아니면 주목해야 할 시나리오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지, 가장 그럴듯한 가능성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하는데 어떤 핵심적인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 분석기법이 우리로 하여금 테러 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테러를 미리 막는데 있어서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구성된 가설 중에 가장 신뢰성이 높은 가설을 찾아 그에 대응하는 계획과 조치를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96) 허태희. “몸바이 테러사건과 구조화 분석기법의 적용”, 『신안보연구』, 190호, 2017, pp. 90~92.

우리가 어떤 테러 사건을 예상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탐지하고 예기치 않은 변화를 경고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관찰현상으로 대표적인 것이 관련 지표의 도출과 이들에 대한 확인과정이다. 가설 속에 나타난 대표적인 지표들의 확인과 추적은 기본적으로 테러 공격을 피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지표들은 확인되어진 구체적인 시나리오의 맥락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시나리오와 관련된 지표들의 사전 파악은 테러 상황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훌륭한 시나리오를 도출해 내는데 도움을 준다.

< 표-8 > 의 가설을 조합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시나리오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우선순위를 정하고,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것은 버린 후 각각의 목록을 검토하거나 개량한다.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할 만큼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테러 공격 등을 피하거나 잠재적인 적대행위를 막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에 맞춰 방안을 마련하여 최고 의사결정자가 선택을 하기 쉽도록 모든 관련 자료를 일정한 형식으로 구조화하여 판단 근거를 제공하거나 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정보를 제공하고, 테러에 강력하게 대응 할 수 있게 선제적으로 조치한다.⁹⁷⁾

< 표 - 9 > 청사 내 테러 중 주목할 만한 시나리오

주목할 만한 시나리오	평 가
1. 단순 흉기 테러- 조현병 환자가 흉기난동과 방화를 목적으로 인화성 물질 과 흉기를 휴대하고 방문객 출입 구역에서 테러를 일으킨다.	4
2. 다발적 총기 난사- 정부정책 반대자들이 수렵용 업총을 소지한 채 주차장 으로 난입하여 총기를 발사한다.	3
3. 민원인의 민원 처리 불만 누적으로 소형 사제폭발물을 제작하여 외곽 출입문 부근에 설치/ 폭발	2

2. 행동탐지 기법 (Behavioral Detection OffiCer)

정부청사 내의 하루 유동인구는 대략 800여 명에 육박한다. 이러한 다중운집 장소에서의 테러리스트, 위해 기도자 및 기타 범죄자의 공격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함에 따라 군중 속 숨어있는 위해 의도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에 대한 연구

97) 이길규 외 3인 공역. “정보분석을 위한 구조화 분석기법”, p. 4.

Richards Heuer & Randolph Pherson, *Structured Analytic Techniques for Intelligence Analysis*,

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테러 범죄예방에서 행동탐지는 매우 중요하다. 테러 등의 범죄는 잠재적 위협자, 대상, 보호인의 상관관계 속에서 발생 하며, 사회에 대한 불만, 정신질환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일정 시간의 준비기간을 가지고 발생한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위협분석 데이터를 활용 하여 사전 행동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⁹⁸⁾

미국의 민간 경비 업체는 대규모 공연이나 풋볼, 스포츠 경기장 행사 시 ‘행동탐지 전문팀’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람의 행동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느 곳이나 ‘행동탐지요원’은 배치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천공항에서 2019년부터 시범운용을 미치고 전면 배치되었다. ‘행동 탐지(Behavioral Detection)’는 위협이 되는 사람을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관찰과 대화기법을 사용하여 신체적 변화, 몸짓, 이상행동 등을 보이는 신호에 초점을 맞추어 선별된 사람에 대해 검색이나 인터뷰를 강화하여 상황을 통제하는 기법이다. 이때 사적인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력을 운용하게 되는 이유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사전에 탐지함으로써 위협을 경감시키고, 분명한 목표를 두어 부수적인 혜택과 회복력을 지니기 때문이다.⁹⁹⁾ 연구에 따르면, 미심쩍은 사람의 행동만을 감시하는 것보다는 보안근무자 등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잠재적인 위협을 줄이는데 20배 이상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영국의 ‘서섹스대’, ‘울버햄프턴대’의 모의실험을 통해 밝혀졌다.¹⁰⁰⁾

테러리스트들은 대개 그들의 의도를 암시하는 행동부호를 표출하기 마련인데, 그런 부호들은 쉽게 표출되기도 하고 스트레스 요인을 통해 유발되기도 한다. 이때 그들의 스트레스 요인은 보안 근무자의 질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인지적 결과나 정서적 불일치로 이상 징후를 표출하기도 하는데, 적절한 훈련을 거친 사람이라면 그런 이상 징후를 식별해 낼 수 있는 것이다. 행동에 대한 탐지는 환경적인 기초자료의 수립, 사람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행동 관찰, 기초자료에 의거한 행동 분석, 법 집행의 단계적 확대, 이 네 가지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현재 행동탐지기법은 국가별로 상이한 법률 제도 하에 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싱가포르,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운용되어 지고 있으며, 공항 등의 배치를 모델로 삼아 정부 청사에 행동탐지 .인력의 배치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인원, 장소, 방

98) 윤영성. “제2회 미국 행동탐지 컨퍼런스”, 보고서, 대통령경호처, 2019 p. 1.

99) 유지선. “항공보안에서의 행동탐지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대, 석사학위논문 2015, pp. 11~ 12.

100) “공항보안요원, 감시보다 질문해야 적발을 높아”,

<https://www.yna.co.kr/view/AKR20141117089300075>, 『연합뉴스』, (검색일 2020,11.28)

법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행동탐지 분석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받은 인원이 배치 장소에서 얼마나 자주 목표인원에 대해 관여하게 되는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행동탐지 절차는 정부 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 이동 가능 장소 일부를 포함해서 탐지 인력이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여 관찰하고 질문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느 곳이나 배치될 수 있다. 검색이나 질문 등의 인터뷰 장소는 정해진 곳 외에 주차공간이나 대기실, 방문하는 사무동 등이 될 것이며. 이들의 배치 전략은 예측 불가능한 배치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방법 적인 측면에서는 ‘공공연한 방법’ 과 ‘은밀한 방법’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공공연한 탐지’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방문객의 눈에 잘 띄게 하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출입인원이 이동할 때 그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 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국제 행사장에서 경찰특공대의 위력순찰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은밀한 탐지’는 사복 차림으로 투입 되어 의심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인지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¹⁰¹⁾ 기본적인 절차는 수색, 탐지, 반응 의 세 가지 이다.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직관에 의존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며, 사전에 상황을 조치하게 된다. 군중 속에서 관찰하는 행위를 ‘수색(Search)’ 이라 하고, 수상한 행동을 탐지하기 위해 감각을 곤두세우는 것을 ‘탐지(Detect)’ 라고 한다.

또한 인터뷰에 의해 자극받는 것을 ‘반응(React)’ 이라 한다. 이 업무절차는 단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3명이 한 팀을 이룬다. 복장은 유니폼과 캐주얼 복장을 혼합하고, 각자가 전략적인 위치에서 활동하게 된다. 관찰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일탈적인 행동이나 외관을 탐지하며, 인터뷰의 도움을 얻어 비정상 행동을 탐지해 내기도 한다. 그 결과는 정상적인 행동에서부터 테러리스트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행동탐지 분야는 관찰이나 질문과정에서 개인적인 편견이 아닌 과학적인 면담기법을 통해 위협인물을 사전에 판별한다. 또한 팀을 이루어 근무하면서 장소에서 대기 중인 방문객 등 인원을 대상으로 인터뷰 기법을 활용하여 위해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 이런 관찰 결과에 따라 법 집행 공무원에게 추가적인 조사 등을 위해 인계 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최대한의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매뉴얼 등을 정하여 실행하고, 정부청사 내 환경에서 현재 투입되어 있는 CCTV 관제 요원 들이나 위에서 언급한 대테러

101) 유지선. “항공보안에서의 행동탐지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대 석사학위논문, 2015, p. 13.

기동 인력들에게, 혹은 추가적인 인원들로 구성하여 행동탐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운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 진다.¹⁰²⁾

< 표 - 10 > 거동수상자 관찰 기준표

구 분	주 요 행 동
대체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중 속에서 유난히 떠들거나, 침묵을 지킨다 - 땀을 흘리거나 목표를 집중적으로 주시하며 몸을 고정하고 무표정하다. - 자신의 주변상황에 무관심한 듯 긴장하여 목표가 공격 범위 내 들어올 때 초조하게 기다리며, 위해 도구를 자주 확인한다. - 불안을 느끼면 입 안 건조, 침 삼킴, 입술 깨물기, 턱이나 귓볼 만지기 등의 행동을 보인다. 보통 성인은 분 당 20회 정도로 눈을 깜박이지만, 불안을 느낄 시 횟수가 증가한다.
장벽 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동수상자는 대개 군중의 2~3열에 위치하며 옥내에서 위해 시설물 등으로 자신을 가린다. - 오른손으로 왼쪽 신체부분을 접촉하는 등의 신체 교차하기 행동을 보인다.
의도 동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이나 손목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하려는 물건을 자주 확인하며, 위해 기도 시 사용하는 손의 반대편 어깨가 쳐진다. 즉 오른손 잡이는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고 왼쪽 어깨는 내려간다. - 공격 충동이 높아진 사람은 입을 굳게 다물고, 머리를 앞쪽으로 내밀고, 얼굴을 찌푸리며, 안색이 창백해진다. - 상태가 악화되면 머리를 뒤쪽으로 빼고 눈을 크게 뜨며 안색이 붉어진다.
눈동자 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무자의 시선을 의식적으로 피하며, 갑자기 군무자와 마주치거나 불심검문을 받았을 때 눈 주위가 순간적으로 떨리거나 눈동자의 동공이 확대된다.
영역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군중 사이에서 위해를 가하려는 손 방향의 영역(공간)을 반대편 손을 사용하여 일정 부분 확보하려 한다. - 물리적 차단선, 가드레일 등 방어공간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타 방향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중과 행사장에서 대화 시 위해 목적이 차단되어 군무자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사소한 자극적 언사를 보일 경우 극단적으로 흥분한다.

※출처 : 유지선, “항공보안에서의 행동탐지 기법에 관한 연구” 2015, 56p.

제3절 정부청사 대테러 강화 방안

1. 관련 법령의 정비

최신의 테러들은 기존의 방호체계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기술적인 측면의 위협이 매우 증가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테러 사례를 통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의 범주

102) 유지선. “항공보안에서의 행동탐지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대 석사학위논문, 2015, p. 25.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부청사 시설의 방호체계에 있어 테러 대응에 대한 전담조직의 편성이나 또는 신설을 통해 대테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테러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¹⁰³⁾, 기존의 방호체계에서 테러대응에 대한 전담 인력의 추가적인 확충이나 조직적인 변화가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정부청사는 ‘가’ 급의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세종, 서울, 과천, 대전 청사 외에 9개의 지방합동 청사가 있고, 여기에 상주하는 방호 인력은 방호직공무원과 청원경찰이 있다. 청사 별 상황은 상이하지만 대체로 방호직공무원은 건물내부 순찰, 통합상황실 운용, 귀빈의전, 사무동 내부 출입인원 통제 등을 담당¹⁰⁴⁾ 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은 건물 외곽에 대한 순찰이나 시설 내 반입 물품 확인, 외곽 출입 통제 등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청사의 방호는 일반직 공무원인 방호관과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의 신분인 청원경찰로 이원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청사의 방호경비를 담당하는 방호직 공무원은 정부청사 안에서 악성민원인과의 대치 상황이나 긴급 테러 상황 발생 시 아무런 법적제재 권한이 없는 흠결을 갖고 있기도 하다.

즉 청사에 대한 방호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민간인 신분인 청원경찰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권한을 가진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호직공무원도 경비구역인 청사 안에서 필요 범위 내에 ‘경찰관직무직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¹⁰⁵⁾.

이러한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이원화는 테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지휘체계에 많은 혼선을 야기 할 수 있다. 법원의 ‘법원보안관리대’나 국회의 ‘경호기획관실’과 같이 조직의 직무범위 및 권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으로 정하여 질서유지나 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여 권한을 확보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조직법’ 제34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정부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1980년에 제정된 ‘정부청사관리

103) 박준석. “국내 국가중요시설 드론, 무인항공기 테러공격 대응방안”, 『대테러연구』, 제42호, 2019, p. 194.

104) 청사 별 상황에 따라 출입관리 행정이나,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교관의 업무를 맡음

105) 권채리.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령 정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행안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7, p. 22.

규정'은 총 11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상당부분은 정부청사의 수급이나, 배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에 관한 조항은 크게 청사의 출입관리에 관한 '제8조의 3'과 방호 진단에 관한 '제9조의 2' 뿐이다. 내용을 보면 '청사의 출입과 관련하여,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청사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밖에 청사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8조의3) 이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주요 관장사무 중의 하나인 정부청사의 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방호에 관한 규정도 형식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과 다른 행정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구속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방호를 비롯한 테러 대응 등 청사의 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현재의 체계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권을 확인하는 내용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게 된다.

또한,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정부청사의 관리를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규율함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런 한계는 방호 관련 조항에서 구체적인 수준의 직무권한을 명시하지 못하고 청사의 출입관리와 방호진단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위에서 언급하였던 '방호직공무원'과 '청원경찰'이라는 방호주체의 혼재로 이원화된 지휘 체계로 인해 테러 등의 상황 발생 시 문제점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청사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상의 권한명시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작용법'을 통해서 규율하는 것이 정부조직체계와 법률에 적합할 것으로 보여진다¹⁰⁶⁾.

이처럼 완벽한 테러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법령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현재 각 담당기관 별로 필요한 개정이 진행 중이다. 불법드론의 저지에 필요한 대응 등을 위해 전파이용의 방해나 차단에 대한 허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파법'을 개정하고, 공항시설에서 불법드론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의 근거를

106) 권채리.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령 정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행안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7, p. 23.

마련하기 위해 ‘공항시설법’이나 ‘항공안전법 시행령’의 시행규칙을 개정 심의 중이다. 또한 국가중요시설의 공중테러 방호체계 구축에 필요한 ‘통합방위 지침’이나 ‘세부시행지침’도 개정안을 마련 중이고, 대응장비의 구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보안업무 규정’과 ‘국가보안시설 관리지침’ 역시 법제처 심사 중이다.

이렇듯 정부청사 시설에 대한 강력한 테러대응의 차원에서 위와 같이 법령의 정비가 선행되어진 후에 정부청사의 방호조직이 테러예방 실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과 직급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의 개편을 해야 한다. 이러한 테러대응 조직은 테러발생 전이나 후의 업무성격이나 시설의 크기, 특성 등에 따라 상설, 혹은 비 상설 조직으로 구성되거나 기존의 조직이 활용될 수 있겠다.¹⁰⁷⁾ 또한 몇 가지 전문적인 분야로 세분화하여 인력의 수급이 정착되어 체계적인 테러대응 전담 조직이 설치되어야 한다.

2. 테러 대응 초동 조치 인력(Count Terrorism Unit)

테러 대응에 대한 전담조직 등의 기동인력 운영은 매우 강력한 대응 중 하나이다. 현장 지휘라인에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며, 강력 대응팀이 항상 작동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은 목적에 맞게, 각 정부청사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구성원의 지휘라인은 전문경력관 등으로 구성하여 업무의 이동이 없게 하고, 대응 팀은 특수부대 출신으로 훈련된 강력한 전력을 보유한 인력으로 위기 시 현장대응과 협상, 물자의 사용에 전권이 조직의 장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전 안전진단을 통해 필요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국가위기관련 정보가 적시성 있게 제공되어야 하며, 상황접수와 현장조치가 ‘One-Stop’으로 이루어지도록 근무 중인 하급관리에겐 권한이 위임되어야 완벽한 테러 대응이 가능한 조직으로 운영이 가능해진다.¹⁰⁸⁾

2015년 말부터 제2롯데월드 타워에서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민간 테러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적인 소규모 폭력 사태보다는, 계획적인 테러 위협이나 대규모 위협 사태에 시설주가 직접 대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한 것이다. 또한 2020년 초에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은 47명으로 구성된 ‘전담 대테러 기동대’를 창설하고 ‘전술팀’과 ‘탐지팀’으로 나누어 테러, 재난 등 상황 발생 시 안전 활동

107)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 『대테러 센터』, 2017, p. 16.

108) 최기남. “중동테러리즘에 대한 한국경호 안전도 극대화 방안”, 경기대, 2005, (저자 이메일 인터뷰, cknam11@naver.com)

을 지원하고자 운영 중이다. 국내 일반테러 테러사건이나, 항공 테러사건 등에 모두 투입 되는 경찰특공대는 경찰의 대테러 담당 영역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테러 사건이 발생 하였을 때 경찰 특공대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진압하고, 폭발물을 처리하여 근본적인 테러 상황을 정리하기엔 그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이다.

물론 테러 발생의 빈도로 보아 현재 새롭게 추가 설치되고 있는 경찰특공대를 포함하여 전체 특공대가 충분히 일반테러 발생 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정부청사 시설을 비롯한 대규모 국가중요시설에서 상주하는 방호, 보안 인력들보다 빠르게 초동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테러 사건에서 초동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테러는 짧은 시간 내 대부분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시설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대응에 대한 결정을 지체 없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초기대응에 실패한 사례는 곳곳에서 나타난 바 있다. '08년 인도 뭄바이 테러나, '15년 프랑스 파리 테러는 초동조치의 실패로 진압하는데 각각 58시간, 11시간씩 소요 된 사례가 있다. 피해확산의 방지 차원에서도 가장 빠르게, 정예화 된 인력들이 투입되어 초동조치를 취하고, 후속으로 투입되는 경찰특공대 등의 작전에 기반을 마련하여 완벽한 테러 대응을 위한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호인력과 차별화된 경력이나 혹은 능력을 보유한 자원들을 선발하여 경찰특공대에 준하는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고, 상주하는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에 폭발물에 대한 별도의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인원과, 이동하는 인원들에 대한 행동의 탐지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같이 편제 되어 하나의 팀 단위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3차원 공간정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상황 발생 시 이동 거리나 확보 지역, 폭발물의 위력 등을 대입하여 화면으로 구성하는 방법 등 대응을 연구하며 훈련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테러대응 전담팀' 인 것이다.

3. 폭발물 대응 전문 인력(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의 처리를 위한 경찰인력이 투입되기 전에 폭발물에 대한 탐지나 용이성을 확보 하고, 주변을 통제하며, 상황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해 시설관리 부서와 협력

을 할 수 있는 폭발물 초동조치 대응 인력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조직이 업무를 위해 대비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선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폭탄위협(The bomb threat)’, 두 번째, ‘의심되는 포장물 또는 실제 폭발물 장치(Asuspicious package or actual explosive)’, ‘세 번째, 폭발(An explosion)’, 이다. 폭발물 사고 대비계획상 처리절차의 기획과 개발 문제에 있어 위의 세 가지 중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 폭발물 위협 부분이다. 폭발물 위협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 실제적으로 확실한 대비책을 세우기 힘든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이나 조직이 폭발물테러 위협의 대상이 되고, 이런 사건 발생 시 사법당국이 개입하게 된다. 폭발물 위협의 위험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에 과민하게 반응을 한다면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업무수행을 중단하게 할 수 있으며, 성급하게 전문가처럼 행동할 위험이 있는 반면, 과소하게 반응한다면, 시간, 비용, 최악으로 사람의 생명문제에 있어서 까지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또한 폭발물사고 대비 계획이나 처리절차에 있어 의심스러운 포장이나 실제 폭발장치에 대한 처리 분야는 더욱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사실, 의심스러운 포장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거나 실제로 폭발물이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그 대상물에 대한 처리 절차에 차이는 없다. 왜냐하면, 박스나 가방, 소형책자 또는 어떠한 형태의 포장물이라 할지라도 한번 의심스럽다고 여기지면, 그 순간부터 실제로 폭발물이 장치되어 있는 것처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폭발물 처리반 (EOD)¹⁰⁹⁾ 을 운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절대로 비전문가는 의심스러운 물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의심물체 내에 폭발장치의 존재 여부나 폭발물 장치의 제거, 해체 결정은 폭발물 처리반의 업무인 것이며, 폭발의 발생이 폭발장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폭발 사고에 대비한 계획 및 위기대응 내용은 같다. 단지 폭발사고가 폭발물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가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그 후의 처리 절차는 다양해진다. 이러한 것들을 경찰의 전문 폭발물처리반이 전부 출동하여 대응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들의 관할 작전 반경은 매우 넓다. 따라서 시설 내에 상주 하는 전문 인력의 신속한 초동 조치를 통해 폭발물에 대한 처리작업 이전 단계인 식별이나 주변의 대피 여부, 통제 규모에 대한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폭탄테러위협은 사실상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모든 테러위협은 사실

109) Explosive Ordnance Disposal.

이 아닌 것으로 밝혀 질 때 까지는 사실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 폭발물 의심물체를 최초에 발견하여 판단을 내릴 때 혹은 폭발이 발생하여 건물이나 특정지역에서 상주 직원 등 사람들을 대피 시켜야 할 때는 대피과정 또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훈련 시 또는 실제 상황 시 화재로 인한 대피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폭발물과 관련된 대피는 아직 폭발하지 않는 의심물체에 의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엄격하게 통제되어 실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대피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일반적인 대피(Evacuation)', 두 번째, '영향을 받는 부분 대피(Partial evacuation of the affected area)', 세 번째, '대피하지 않음(No evacuation)', 이다.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는 최초에 초동 조치를 하는 인원의 판단이 가장 먼저 적용될 것이고, 의심되는 물체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의 전술적 필요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작은 서류 정도의 폭발물 의심물체라고 가정할 경우 건물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의심되는 물체가 특정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안전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고층 건물인 경우 사람들을 의심물체 발견 지역으로 통과하여 아래로 대피시키기 보다는 위로 대피 시켜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 폭발물의 크기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한 대피 거리가 결정되는데, 이때 건물의 구조나 건축 연령, 건축 재료 등도 고려된다. 폭발물 의심물체나 폭발물에 의한 위협에 대한 대피는 화재 대피와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

폭발물 테러 의심 물체의 발견이나 위협 등에 대피 명령 신호를 화재경보기로 전달하는 것은, 엄격한 통제 하에 대피를 할 수 없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폭발물을 다룰 때에는 출입문과 창문 등을 개방하게 되는데, 폭발은 저항이 약한 곳으로 분출되므로, 출입문과 창문을 개방 했을 때 폭발의 충격파나 폭발효과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화재훈련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은 화염에 산소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폐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대응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화재경보를 사용하면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유 건물 거주자들은 화재경보 발령 시 연기나 불길 등 시각적인 정보가 없을 때는 화재훈련 정도로 여기고 대피에 능장을 부리거나 경보 자체를 무시해 버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빠르게 판단 할 수 있는 폭발물에 대한 초동 조치 인력의 편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군이나 경찰에서 폭발물 처리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경력을 보유한 자원들을 별도로 선발하여 청사 내에서 관련 위협이나 상황 발생 시 출동하게 되는 군, 경 폭발물

처리반의 투입에 앞서 목격자의 면담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의심 물체에 대한 식별 등 위협여부와 함께 주변의 통제를 맡아 수행하여 실제 폭발 가능한 물체일 경우 처리반이 투입되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 운용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에 투입된 폭발물 처리반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어 실제 사고에 대한 방지나 안전의 확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항의 경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예규로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어 조직의 임무에서부터, 임용기준, 책임의 구분, 장비의 규정, 유지 관리, 대응 절차, 복장, 교육 훈련, 기록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동 조치 등의 현장 대응을 하는 전담 폭발물 처리반은 폭발물에 대한 탐지장비, 확인장비, 취급장비, 운반장비, 처리장비 등 다양한 종류의 장비를 두루 보유하고 있다.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발견 된 의심 물체 혹은 실제 폭발물이 발견 되었을 때 처리 능력의 초과일 경우 합동조사팀에 보고하여 군이나 경찰의 폭발물 처리반에 인계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나 분석결과를 빠짐없이 제공하게 된다.¹¹⁰⁾

110) 하진학. “급조폭발물 테러 대응방안 연구”,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2018. p. 69.

제 5장 결 론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의 확보,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으로는 사회질서의 안정과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테러는 이런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 등을 직접 침해하는 범죄이며, 헌법질서와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테러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해왔고, 안보 선진국들은 테러를 미연에 차단,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상황에 맞게 수시로 개정하였다.

여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의 다양성과 정치적 이데올로기 등이 혼합된 신종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에 발생하는 신종 테러의 특징은 4차 산업 혁명을 기반으로 점조직 형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동하고, 무차별적인 살상을 야기 시킨다. 더욱이 신종 테러단체의 조직은 탄력적이고 유연하며 과거의 전통적인 테러보다 더욱 전문적이고, 전략적 측면에서 신기술을 사용하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동을 한다. 그리고 이들의 테러 목적은 과거와는 달리 정치적인 목적이나 주요 목표가 불분명하여 의도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사회불만자 들이나 조현병, 인셀 등에 기인한 심리적 변형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테러를 이미 경험했던 주요 국가들은 위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강력한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정부청사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이미 갖추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정부청사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테러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방호인력들의 질서유지와 방호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권한이나 질서 유지권 등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의 '경호기획관실' 이나 법원의 '보안관리대'와 같이 조직의 직무범위 및 권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으로 정하여 질서유지와 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여, 권한을 확보 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와 같이 '정부청사관리규정'을 통해 출입관리와 방호진단에 관해서만 규정을 하게 된

다면, 적극적인 테러 대응은 어려울 것이며, 일상적인 질서유지 업무나 기타 방호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더욱 더 위축되고 제한 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이미 2017년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보고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실효성 차원에서의 공감 여부와 방호인력의 자질 문제, 법령 개정을 위한 정부 입법 등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 등이 문제 시 된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재조명 되어, 중장기 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청사 시설에 대테러 업무와 대응 전담팀이 새롭게 지정되어야 한다. 이런 전담조직은 충분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¹¹¹⁾ 청사 내 대테러 전문가 양성과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법령 정비를 통해 전체 인력에 대한 정비가 어렵다면, 테러대응 전담팀에 각각의 권한과 업무 분장을 통해 청사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폭발물 등의 상황 발생 시 전문 처리반의 투입 이전에 의심물체에 대한 식별이나 탐지가 가능한 소규모 인력도 포함 시킨다.

셋째, 현상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연구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구조화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고, ‘위력 순찰’이나 거동 수상자를 인터뷰 하여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 할 수 있는 ‘행동탐지 기법’을 통해 상황을 인지하여 저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상황 발생 시 강력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배치하여 후속 부대 투입 전 현장 보존이나 접근 통제, 상황 브리핑 등의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하여 기존의 방호인력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행동탐지, 테러/폭발물 대응, 대테러 직무교육, 위력순찰 등의 업무를 전담 할 수 있는 소규모 조직을 편성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어떠한 테러가 지금 실행단계에 있다면, 기존의 경찰력이나 방호인력 만으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현재 각 정부청사시설 별로 테러에 대한 강력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에 청사 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에 대해 순위를 나누어 분석하여 그에

111) 박준석, “국내 국가중요시설 드론, 무인항공기 테러공격 대응방안”, 『대테러연구』, 제42호, 2019, p. 195.

맞는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질서유지와 테러 대응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정비’를 통해 방호인력들에게 질서유지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고, 청사 내 테러 대응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활동 한다면, 정부청사의 관리를 맡은 조직이 주체가 되어 테러를 대응함에 있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함과 동시에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응인 것이며, 나아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안전망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 2017년.

경찰청. 『대테러 연구 제 42호』, 2019년.

경찰청. 『경찰의 대테러 관련 법, 조직, 임무 재정비 방향 연구』, 2016.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의 대테러 전략기획 수립 방안』, 2017.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정책 포럼. 『대테러작전 대비태세 발전방안』, 2016.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청사 방호, 보안 관련 법령정비 연구』, 2017.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 『사제폭발물 제조가능 화학물질 관리방안 연구』, 2011.

박종천 외 3명. 『세계 분쟁지역의 이해』, 푸른길, 2016.

제임스 루이스 저, 하홍규 역. 『종교와 테러리즘』, 한울아카데미, 2020.

최은수. 『4차 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비즈니스북스, 2018.

이재영, 문영상 외 지음. 『인사이트 플랫폼』, 와이즈베리 2020.

나. 논문

- 홍태현, 2019,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위협 대응방안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우, 2018, “독일의 테러대책에 대한 검토”, 『한국테러학회회보』 제11권 제3호.
- 박재풍, 2016, “경찰의 대테러 관련법령, 조직, 임무 재정비 방향 연구
경찰청 대테러연구 제 42호.
- 김영준, 2019, “테러리즘에 대한 인지 및 사회 심리학적 고찰”
경찰청 대테러연구 제 42호.
- 윤태영, 2010, “영국의 대테러리즘 위기관리 체계와 전략”,
“한국위기관리논집” 제 6권 제 1호.
- 박종건, 2017 “뉴 테러리즘의 위협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맹석, 2018 “대테러정보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기관의 발전 방안”
아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병철, 2019 “한, 중 테러대응전략 비교 연구” -사이버 테러 대응 중심-
북경대학교 훈련 보고서 (경호처).
- 이상경, 2019 “외로운 늑대형 테러범 탐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 기법 연구”
호주 국립대학교 훈련보고서 (경찰청).
- 홍현도, 2019 “테러발생국가의 테러대응 훈련 및 조직 연구”
센트럴 플로리다대학교 UCF 비상대응센터 훈련 보고서 (해양경찰청).
- 박충민, 2018 “테러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용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유상범, 2016, “테러에 대한 주요국의 대비 현황 및 시사점”, 국방대, 안보연구시리즈 제1권 제1호.

Spaaij, R. 2012. Understanding Lone Wolf Terrorism , Appleton, C. (2014). Lone wolf terrorism in Norwa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정현석, 2015 “국내 자생테러리즘의 가능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현수, 2014 “테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llmann, S. J. 2003. Racial Profiling and Terrorism. New York Law School Law Review.

김충호, 2017 “한국군의 뉴테러리즘 위협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윤민우, 2014 “새로운 안보환경을 둘러싼 사이버 위협과 대응방향”
가천대학교.

김준성, 2017, ‘공항 특수경비원의 비정상 행동탐지기법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논문.

이치영, 2017 “한국과 미국의 대테러 조직 비교분석”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기남. 2004. “중동테러리즘에 대한 한국경호 안전도 극대화 방안”,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우정희, 2015, “테러리스트의 심리적 특성 고찰”,
한국테러학회보, 제8권 제2호.

조흥제, 2020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테러동향과 대응방안,
한국테러학회보 제13권 제2호

송봉규, 2019, “제 4차 산업혁명기술과 범죄에 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제12권 제2호.

김범모, 김형주 2020,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사회적 가치
불법, 악의적 드론 대응을 중심으로’, 회계정보연구, 제38권 제1호.

임창호, 이윤용, 2019,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드론이용 , 테러리즘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원 제 15권 제 3호.

유병철, 2019, “한, 중 테러대응전략 비교 연구”, 『대통령경호처』,
중국 북경대학 훈련보고서.

유지선, 2015, ‘항공보안에서의 행동탐지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대학원 석사논문.

윤영성. 2019, “제2회 미국 행동탐지 컨퍼런스”, 보고서, 대통령경호처.

한희원, 2019, “인공지능(AI)기반의 치명적 자율무기에 대한 법적, 윤리적 쟁점”
기초 연구 국가정보연구 제 12권 제 1호.

오재환, 2011 “개선된 질문검색 요령 교육 프로그램이 민간경비원 직무성과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허태희, 2017 “뭍바이 테러사건과 구조화 분석기법의 적용”, 신안보연구(통권190호).

ABSTRACT

A Study on Preemptive Prevention Techniques and Counter-Terrorism Measures in Government Complex According to Changes in Terrorist Environment

by Kim young hoon

Major of Anti Terrorism & Security
Graduate School of Legal Affair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The study aims to present only government offices with preemptive responses to the paradigm shift in transnational terrorism and security threats facing the world today. The term New Terrorism was coined by the Land Institute of the United States, and we want to look at the paradigm that has changed since the September 11 attacks, and find a strong response to terrorism at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In the ever-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there are no terrorist attacks caused by Islamic terrorist groups in the Middle East, but there are situations in which terrorists and foreign terrorists are hiding in the country, and there are lonely wolves such as racial chauvinism, schizophrenia, social discontent, Insel, etc.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sought to protect government office facilities and further study measures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by preparing measures to preemptively respond to terrorism.

Terrorism is now looming a global security threat that is hard to withstand in any country or society today, and as the worldview of terrorism, ideologies and

means of terrorism, and methods of terrorism are constantly changing, the recent appearance of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between countries is a good indication of the problem. Therefore, the activities of appropriate diagnosis, search for solutions, and response efforts against terrorism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in this changed environment. Moreover, as recent terrorism in many parts of the world is characterized by unpredictability and diversification, the world will surely continue to wage war without a front that is hard to pred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this threatening situation and to present appropriate countermeasures through realistic analysis techniques, establish a task force to respond strongly, and provide basic data for recognizing terrorist responses in the building.

[Key words] New terrorism, The international situation, Modify laws
Psychological factor, Response Dedicated Personnel
Counter-terrorism Unit